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리는 용기로써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성스런 진리.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진촬영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6월 7일 수요일(주간) 제273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목동에 사는 법안정사 신도인 오유미(30)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초고속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한다.

조리법과 재료구매 정보가 있는 요리관련 사이트와 영화·연극·콘서트 예매 사이트는 물론 수시로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 민원서류 이용안내를 살펴본다.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알뜰한 살림을 살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항공권과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철도청·티켓관매전용 사이트에서부터 부동산,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중고품 안내 및 홈쇼핑 사이트 등 계층별로 유용한 정보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각종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론환기를 통한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관소에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이나 장관과의 대화와 각종 여론수렴 창구를 통한 사이버 민주주의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 여행
다양한 정보 수집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등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불교단체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문화재보수비 등 각종 지원금, 각 자치단체의 복지시설 위탁운영 정보 등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가 적지 않다.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 이를 재가공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사찰이나 불교단체 종사자는 물론 불자들도 컴퓨터를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업무에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생활화 운동'에 동참할 때다.

연령별·직업별·주제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들. 방송·신문사 등 전문적인 정보제공업체와 기업들, 정부기관, 민간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매일 매일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낸다.

이제 불자들도 인터넷과 친밀해져야 하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2천여 사찰 12일 오전 10시 '108 타종'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발원"

태고종 7~9일 선암사서 통일기원 정대불사

분단 50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의 원만성취와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기원 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2일 오전 10시 전국 2천여 사찰에서는 일제히 범종을 울려 회답 성공을 기원하고, 사시 축원을 통해 통일 발원문을 봉독한다. 태고종, 강원도불교연합회, 통도사도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오는 12일 사시예불 때(巳時, 오전 9~11시)에 전국 사찰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사시 축원과 108 명종(鳴鐘)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시 축원은 사찰에서 사시에 올리는 불교의식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맞아 전국 공통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원만히 성취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산가족 상봉이 속히 이루어지고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없기를 모든 대중은 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발원하옵니다"라는 축원문을 공동으로 봉독하게 되며, 동시에 전국 사찰에서 108번 타종을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는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모으자"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제안에 따라 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의식을 봉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본·말사에 공문을 보내 사찰의 참여를 당부했다.

사시 축원은 오전 예불(禮佛)때 봉행하는 의식이며, 명종의식은 사찰에서 중요한 행사나 의식 때 타종하는 의식이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인곡)은 7~9일 선암사에서 1만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평화통일기원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의 불행을 걷어내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대역사(大役事)"라며 "화합의 초석을 놓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불교연합회(회장 도후 신흥사 주지)는 강원도와 함께 4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새천년 자유·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제'를 봉행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주지 신허)도 2일 환룡사 9층목탑 출현 진신사리 봉안 대법회를 봉행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했다.

정성문 기자
(swjung@buddhapia.com)



모내기 울력 통도사 부방장 악산스님을 비롯한 선원과 강원의 스님 600여명이 5월 30일 경내 경작지인 장발들로 모내기 울력에 나섰다. 마음밭을 일구듯 정성을 들여 모를 심는 얼굴에 큰 땀방울이 맺혔다. 이날 스님들은 600여평의 논에 모를 심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공원정책 워크숍 28일 연다

조계종 소송대책특위

조계종의 참여연대 소송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는 5월 31일 총무원1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련 반환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위는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되, 사찰과 국립공원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첫 번째 정책워크숍을 오는 28일 개최해 국립공원 정책과 문화재 보존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는 워크숍 발제문을 기초로 하여 정부와 국회, 환경단체 등에 국립공원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워크숍은 국립공원 연구자와 환경단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국립공원의 특수성에 따른 사찰의 비중과 역할'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대책위는 또 소송 및 정책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19개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사찰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조계종측 소송대리인으로 지경법률사무소의 양영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정성운 기자

"환경·인권 등 시민운동 불교 새포교 전략으로"

조계종 교육원 본말사 주지 연수회서 제기

새 시대를 맞아 숫자에 연연하는 포교를 지양하고, 환경감시·인권·통일 등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포교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5월 31일부터 1일까지 개최한 서울·경기·강원 본말사주지 연수회에서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새로운 사회의 급격한 변화: 시민사회의 부상'이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유국장은 "생태적 위기를 눈앞에 둔 전세계 인류지성은 대안으로 불교적 사유체계 및 수행에 그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는 이제 생명운동이라는 포괄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불교사회운동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국장이 제시한 불교내 운동섹터는 갑시운동(쌀불, 환경, 정부정책), 지역운동(내고장 지키기, 지역문화지도 제공, 지역생태계 조사), 인권운동(북한탈북자, 어린이, 실직자, 여성), 계몽운동(부부윤리, 피해자고발, 비행청소년상담), 전통문화운동(문화찾기, 문화가꾸기), 산림지키기운동, 국제NGO운동, 지역화폐운동, 통일운동 등이다.

이어 본말사주지들은 강의내용을 토대로 '교구별 10년내 10대과제 선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교구 월정사는 △오대산지키기 성역화사업 △불교문화재교육 △계정혜 삼학연수원 건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낙후시설 개선등 유아교육 진흥 △방송국건립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2교구 용주사는 △북한사찰과 교류 및 지원방안 모색 △지역사회 봉사운동 △지역 문화운동 전개 △신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재정 공포 △효행교육실시 △불교장묘사업 추진 △사찰전산화 사업 △교구 포교지 발간등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사 신흥사 봉선사도 △남공당 건립 △대안학교 설립 △승려복지관 건립 등 교구 실정에 맞는 사업과제를 발표했다.

212명의 서울 경기 강원지역 본말사주지가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21세기 사회와 종교, 사찰의 정체성 찾기, 교구활성화 방안, 주지 리더십 함양 등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촉구

불교·환경단체 30곳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30여개 불교단체와 녹색연합은 5월 30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생태계와 민족문화의 보고인 지리산을 환해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불교단체와 녹색연합 대표들은 이날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역사회의 물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생활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한편 범불교대책위(준비위원장 수경스님)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문 6면〉

한편 서울·경기·강원지역 본말사 주지 213명은 1일 남한강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살리기' 동참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불교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buddhanews.com 6월1일 '오픈'



조계종 승가고시 시행한다

6월중 법령개정안 마련…고시위원회도 구성

승려의 자질향상과 승단의 위계 확립을 위한 종단차원의 승가고시가 실시될 전망이다.

조계종 승가고시는 85년 제정된 승가고시법에 1급에서 3급에 이르는 지위와 자격을 승려들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급과 5급의 경우도 수계산림의 적법성을 추인하기 위해 계단위원회에서 종법의 뒷받침 없이 16년간 임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가고시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승가위계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해마다 승풍진작과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한 승가고시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5월 30일 강원, 율원, 기초선원, 대학 등 종단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고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계단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4급 및 5급 승가고시를 종단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급이상의 승가고시도 단계적으로 치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서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종단의 교육현실과 고시시행의 한계는 승가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며 "고시위원회를 구성, 고시과목 개선,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선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발제에 나선 철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과 지오(해인사강원 강주)스님은 "승단의 질서는 위계의 준수로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법계품서의 취지에 따라 종단차원에서 고시집행주체를 확립하여 승가고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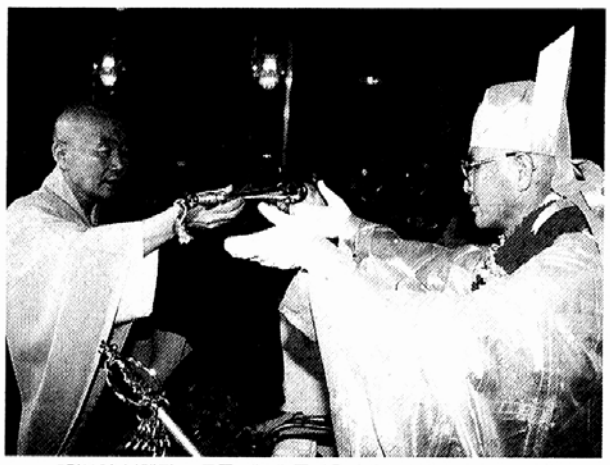
동화사 기초선원장 영진스님과 본각(승가대 교수)스님은 "일률적인 시험제도는 참선수행을 위주로 하는 선원과 사회복지 등 외전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의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공통과목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승가고시 전반과 법계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1급부터 5급까지 단계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제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6월까지 승가법계고시와 관련한 종법개정안 및 종령개정안 마련, 고시위원 추천, 종령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초까지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고시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여 올해 가을에 열리는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참여키로 했다.

또 4급 승가고시가 정식화됨에 따라 승가 기본교육의 교과목 통일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강원과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과목의 신설작업도 병행하여 승가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계제도 시행령 개정작업이 방향을 잡은 만큼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5월26일 봉행된 조동종 제3세 증정추대법요식에서 윤지명 증정스님(오른쪽)이 봉행위원장 학봉스님으로부터 불자(拂子)를 봉정받고 있다.

조동종 윤지명 종정 추대 법요식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학봉) 중창 11주년 기념과 윤지명 제3세 종정 추대 법요식이 5월 26일 오전 11시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 특설도량에서 봉행됐다.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여래종 종정 인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각 종단의 원로와 대덕, 간부 스님들과 조동종 신도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요식에서 종정 지명스님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서원한 부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부대중은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진여실상의 자성불을 발굴하여 대자대비심으로 불국정토를 건설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지명스님은 지난 56년 백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75년 묵담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남체스님으로부터 비구계법계를 품수했다.

스님은 조동종 제2·3대 총무원장, 승정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소희문도회 종신총재로 있다. 이경숙 기자

"북한 종교인 서울방문 정부지원 필요"

KCRP 변진흥 사무총장

"북한 종교인의 서울 방문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변진흥 KCRP사무총장은 29일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대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남북 종교교류협력의 의의와 전망'이란 제목의 사례발표를 통해 남북한 종교인의 상호방문을 강조했다.

변 사무총장은 "평양교예단의 방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현실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뒤따를 경우 앞으로 종교인들의 서울 방문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 종교인의 서울 방문을 종교계에서 제시할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또 "남북 종교교류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은 종교분야의 남북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신계사 복원과 대장경 공동번역, 기독교계의 교회유적 복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재가연대, 연구비지원대상자 결정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불교활동 연구비(각 100만원) 지원대상자를 선정, 5일 오후5시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는다.

'21세기 한국불교혁신의 과제'란 주제아래 선정된 연구자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박수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사이버 스페이스를 활용한 불교의 포교현황과 발전전략 △박재현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계장-조계종 승려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박규보 대불청 부산지부 연수원장-NGO운동과 불교 △이덕진 시민선우회 부회장-우리나라 장묘관계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황선정 자비의전화 상담연구원-청소년 공부방법 배우기 프로그램(수식관 명상을 중심으로) △정연희 포교사단 교육연구원-아함경에 나타난 교육활동 연구 △이재수 광주불교교육원 간사-한국불교의 올바른 재가상 정립을 위한 소고(유마경을 중심으로) 등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교양대 졸업생 대졸이상-40대 '많다'

불교교양대 신도교육 참여자는 대졸이상 학력(51%)에 40대(33%)가 가장 많았다. 또 이들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75%), 스스로 불교대학에 입학(42%)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전국 60개(응답 42개 대학) 불교대학 졸업생 556명을 대상으로 신도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고 신행기간이 오래될수록 교육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것으로 조사됐다.

신도교육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불교대학의 교과목은 근본교리(65%), 부처님 생애(11%)이며, 어려운 교과는 근본교리(23%), 종교학(20%), 종헌종법(14%)순이었다. 강사는 스님교수(48.9%)를 재가교수(28.4%)보다 더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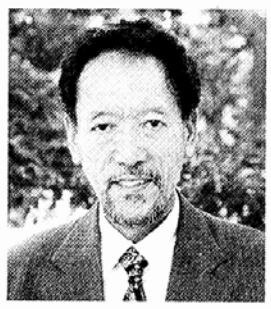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티베트 타쉬 왕디 장관이 정대스님에게 불상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인터뷰 티베트 타쉬 왕디 문화종교부장관

"달라이라마 한국방문 원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티베트에 관심있는 한국 불자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도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 구체적 협의를 위해 5월31일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티베트 망명정부 타쉬 왕디(53·사진) 문화종교부 장관.

타쉬 왕디 장관은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방문으로 어느 정부이든 그 정부에 불편을 끼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달라이 라마의 뜻을 전했다.

타쉬 왕디 장관은 "한국의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이므로 한국 방문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타쉬 왕디 장관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한국 불자들에게 그의 경험과 영감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미희 기자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 정대스님 예방

달라이라마 방한 지원 요청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 3명이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5월31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타쉬 왕디 문화종교 장관과 카르마 갤렉 유톡 스님, 자툴 린포체 스님 등 전·현직 일본·동북아 대표부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국의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달라이 라마를 뵙고 법문을 듣고 싶어한다"면서 "방한준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한이 원만하게 이뤄져 불교 홍포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쉬 왕디 장관은 "달라이 라마는 한국 국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오랜 불교 전통을 지닌 두 나라의 불교 교류가 가속화되고 세계평화와 남·북한 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베트 대표단은 4박 5일간의 방한기간 중 양산 통도사를 참배하고,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을 비롯한 불교종단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등을 방문해 달라이라마 방한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협의한 후 4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정웅기 사무국장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지원하기로 해 달라이 라마 방한 불사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국학원 이사회 감사 2명 선임유보 조계종과 갈등 '완화'

동국학원은 29일 신라호텔에서 제169회 이사회를 열어 공인회계사 장현표(67) 씨만을 감사로 선임하고 감사 2명에 대한 선임은 유보시켰다. 이로써 감사 선임을 놓고 동국학원과 조계종이 빚어온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3명의 감사를 선임해 왔는데, 이들 모두 7일부로 임기 만료된다. 이에 따라 동국학원은 조계종에 감사 추천을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임박해 추천을 의뢰한 것은 종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조계종 입장과 부딪쳤다.

조계종은 종법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요청해야 했다며, 감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동국학원 이사회 감사는 스님 2명과 재가 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 스님 2명은 조계종에서 추천·선임되었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한반도 전역에…

본사사령
김두식 命 취재1부 기자
권형진 命 취재2부 기자
2000년 6월 1일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에서 용왕대재가 열립니다

새 천년 용의 해를 맞아 용왕대재가 서해제일의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에서 열립니다.
4월 28일 (음력3월 24일) 입제식을 거쳐 49일간 봉행하게 되는 보문사 용왕대재는 예로부터 그 가피가 충만하고 그 영험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의 용왕대재입니다.
관세음보살 우측 보처로 비·구름·물을 관장하는 용왕대신은 육도중생을 이롭게하고 바다물속의 중생을 구호하는 성중입니다.
선망부모의 영혼을 천도하고 살아있는 중생들의 안락함을 원하는 불자들은 모두 서해제일의 관음성지 강화도 보문사에서 열리는 용왕대재에 참석하여 모든일을 원만성취할 수 있는 용왕대신의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4년 6월

봉 행

▶회향철야기도 6월 14일 (음력 5월 13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용왕제 회향 6월 15일 (음력 5월 14일) 오전 10시
▶회 향 법 문 정대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 참 금 30,000원 영가1위 10,000원
▶구 좌 번 호 국민은행 252-01-0003-040 예금주 보문사
우 체 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조흥은행지로 7626131
▶문 의 처 종무소 ☎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장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교통편문의 서울지역 ☎ 02)387-8578·352-8926
인천·부평·부천지역 ☎ 032)766-7500

대한불교 조계종 보타낙가산 보문사 증명총무원장 정 대
주 지 지 만

목어

불안시대 어떻게 사나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하여 5월 28일 금배지를 가슴에 단 국회의원 273명 중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이 기소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명 정도가 늘어날 예상이며, 기존 형사사건으로 재판진행 중인 의원도 9명이나 되어 10%를 상회하는 금배지가 녹슬어가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대변하여 국가경영에 청량제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범죄자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얼마 전에는 광주 민주화의 영령들을 참배하러 간 신선한 386 금배지들마저 질펀한 술판이나 벌이고, 국민의 교육을 담당한 교육부장관까지 그 대열에 줄서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니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토막살해하고, 시민운동가가 불륜의 성추행을 자행하는 등 온갖 극악무도한 천륜의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경제도 지난달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기울었고, 주가도 엎치락뒤치락 하여 국민의 생존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도 국회도 시민운동가도, 하물며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 나라에 법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으며, 윤리도덕은 어느 구석에 구겨져 있고 양심은 어디에 묻어버렸는가. 법을 어긴 이는 지옥으로 가야 할 것이요, 윤리도덕을 팔아먹은 이는 축생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묻어버린 자는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도 보낼 곳이 없다. 모든 근원이 내 양심을 버리면서 싹트는 것이기에 인과응보로서 제가 버린 양심에 제가 버림받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심이 없으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권위의식과 욕망을 버리고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양심 찾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과 교육부장관 등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조차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시바삐 챙겨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미래의 새싹들에게 양심을 회복하는 교육을 시켜야 이 나라의 앞날이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 양심은 태양과 같은 것이다. 자, 모두 두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승가고시' 시행 과제

기본교육기관 교과목 통일

현행 4급 고시 계율위주 출제 '문제'

고시제도는 삼국시대 불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승직제도에 따른 품계 부여가 그 유래이며, 승단의 위계와 승려의 지위를 가늠하는 방편이 됐었다. 고시제도는 1600여년 한국불교사에 배출하여 승단의 발전과 승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1954년 비구-대처 불교분규를 전후하여 명맥이 단절됐다.

1962년 조계종이 창종하면서 교단 전체의 위계를 세우고자 종현에 고시위원회를 명시했다. 그러나 1968년 대종사 9인, 종사 28인에게 법계를 품수하고, 1972년 대종사와 종사급에 한하여 특별전형으로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반면 법개정은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풍진작과 승려위계 확립, 승려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법계에 따른 승가고시 실시 문제는 통합종단 창종 이래 해마다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종단 분규 사태를 거치면서 승가위계 확립과 승풍선양이 필요하다는 내외의 여론이 높았다.

이번 종단 차원의 승가고시 실시방침은 구족계만 받으면 모두 평준화돼 버리는 위아래 없는 승려위계를 확립하고, 스님에 대한 재교육 기회도 부여하여 승가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를 주관하는 주체도 없이 종법에 맞지 않게 16년간 임시적으로 구족계 수계를 위한 4급 승가고시가 실시된 것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처사였다.

조계종은 가을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종단 차원에서 첫 실시할 4급 승가고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3급 이상의 승가고시도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수행력과 종단지도력, 위계서열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을에 실시하는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4급 승가고시를 원만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고시위원회법, 법계법, 승가고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다. 현재의 승가고시법에 의하면 승가고시위원회 시행근거가 모호한 만큼 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고시전형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가 없어진 만큼 교육원으로 이첩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기본교육의 통일성을 위해 강원 및 대학의 기본이수 공통과목 선정이 선결과제다. 4급 승가고시의 실시는 전통강원을 위주로 한 승가교육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의 근대적 학교교육으로 병립돼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차별화 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종법에 규정된 4급 승가고시과목 8개중 선학개론 불교사 조계종학 외국어등 4개 과목은 전통강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다.

85년부터 시행된 4급 승가고시는 율원 중심의 계단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대학과 강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90% 이상의 문항이 계율위주로 출제돼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고시위원회는 고시의 내용을 계율편중이 아닌 삼장(三藏)에 의거하여 기본교육 이수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승가고시위원을 역임한 고산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은 "승가고시제도의 시행은 승려 전반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승단위계를 확립케 하여 종단안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더없이 유력한 방도가 될 것이다"며 "교육원에서 사무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은 5월 30일 조계사 대회의실에 승가고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찰 공원기여도 1천억"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관람료 1천원 반환 참여연대 소송에 대항

"참여연대가 문화재관람료로 낸 1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면, 조계종은 1천억원을 돌려달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

얼토당토않은 얘기 같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같은 주장은 5월 25일 관람료위원회와 국립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인 사찰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찰토지를 공원지역에 편입시켜 무려 1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해상 면적을 제외한 국립공원의 면적은 3825㎢이며, 이 가운데 사찰소유지는 8.3%에 달하는 317㎢이다. 도립 · 군립공원에 편입된 토지까지 합하면 463㎢(전체 자연공원 면적의 9.7%)이다. 1천억원이라는 수치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지의 사용료를 1㎢당 1000원으로 계상해 5년치를 산출한 것이다. 조계종의 국립공원 기여도가 5년간 최소 1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용료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공시지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 김영주 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6년 5월 공원구역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에 권고하였으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23조 3항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이고 조계종이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조계종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조계종의 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생각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실의 '몸'을 갖추지 못하면 무의미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⑰ 간화선은 최고의 수행법인가 (2)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간화선이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빠르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간혹 간화선은 다른 수행법보다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도 한다. 우선 이 두 가지 주장을 검증해 보기로 하자.

간화선이 쉽고 빠른 길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리 만치 간단하다.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기(直指人心)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모토는 그러나 심상찮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성을 봄으로써(見性)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불성만 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인데 그 불성을 직접 가리켜 보여준다니 이보다 쉽고 빠른 길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쉬운데 왜 부처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불성을 바로 가리켜 보여주어도 중생이 그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성은 항상 작용 중에 있건만 우리는 사물을 보듯이 그것을 대상화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보는 작용 그 자체이고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관으로 파악할 수 없고 말과 생각으로 포착할 수가 없다. 마치 눈(眼)이 눈(眼)을 보지 못하고, 칼이 칼을 베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멀고,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힘드니 그것을 쉽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간화선의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선지식이 불성을 가리킬 때 수행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간화선이 표방하는 기치 안에는 불성을 가리키는 선지식의 역할 외에 수행자의 행법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에 쉽고 빠르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화두 참구가 삼매력의 증진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기와 행법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간화선만이 어떤 경우에도 가장 뛰어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 주장은 때때로 여타 수행법-염불, 간경, 주력, 위빠사나 등-에 대한 폄하와 함께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념을 가진 수행자가 이외로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른 수행법에 의해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선 위빠사나는 〈사념처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붓다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한 뛰어난 수행법이다. 붓다의 교설을 소승 운운하며 평가절하한 것은 소위 '대승' 불교의 근거없는 오만이지만 경전에 명시된 붓다의 수행법까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 밖의 수행법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록이 많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예컨대 지눌의 경우, 경을 보다가 세 번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간화선 제일주의자들이 화두 참구가 아니라서 완전한 것이 못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 이름(名)에 걸맞는 실질(實)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현재 간화선이 외면당하고 있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아마도 말법시대라서?) 간화선 자체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 정황과 조건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로서 '가장 위대한 무엇'은 없다는 연기의 이법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간화선의 이상은 현실의 '몸'을 갖지 못할 때 무의미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형해화한 이상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찬사와 비판을 고루 늘어놓고 회색지대에 몸을 사린 듯이 보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간화선에 대해서 애정과 불만을 동시에 가진 필자로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하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사과문 당사에서 기획한 대마도문화탐방의 신영훈 원장님의 동행은 1차(5月 19日)만 해당되나 2차 3차 까지 동행한다는 오인광고가 된점에 혜초여행 개발은 신영훈원장님과 현대불교신문의 독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왕국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호를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490,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6/30, 7/14, 23, 8/11, 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6/12, 26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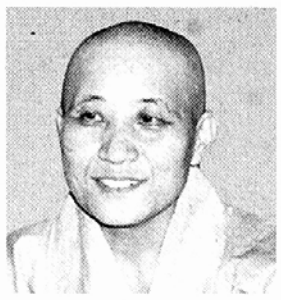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세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7/2,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7/2,16 목,일(15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기강세워 참된 수행자 양성"

비구니선원 선문회 초대회장 영운 스님



"전국에 35곳의 비구니선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천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비구니선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올바른 참선수행인을 위한 도량을 만들기 위한 뜻으로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禪門會)'를 창립했습니다."

5월 13일 창립된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초대회장 영운 스님(석남사 주지)은 모임 결성의 취지를 부처를 이루기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의지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백흥암에서 열린 창립 모임에는 21개 비구니 선원의 스님 27명이 참석했다.

다소 흐트러진 기강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대리 방부를 금하기로 했으며, 미리 연락없이 방부를 취소하면 3년 동안 전국 어느 선원에도 방부를 드릴 수 없도록 했다. 대중의 동의없이 결제 중 외출을 해서도 안된다. 영운스님은 첫 모임에서 이같은 규율을 정하고 올 동안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옛 어른들은 송장을 탁자 밑에 넣어놓고라도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할 정도로 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칼로써 무명을 잘라내야 기강이 다시 살아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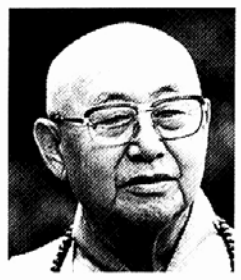
영운스님은 소임을 맡은 스님들과 의논해 산철에는 조사어록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4년 석남사에서 출가한 영운스님은 이후 30여년 동안 은해사 백흥암을 비롯한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했으며, 98년부터 석남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법륜사 불교회관 건립에 쓰라"

덕암스님 사재 6억 내놔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이 평생 마련한 6억원을 종단 창종의 산실인 사간동 법륜사(주지 혜초) 불교회관 건립불사 기금으로 내놓아 화제다. 덕암스님은 최근 제자들을 불러 그동안 사찰법회 등을 다니며 평생 모아온 6억원을 사중에 내놓으며 "법륜사는 대륜스님께서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도시화를 지향하며 창건한 유서깊은 도량이므로 대륜스님의 사찰창건 정신을 받들어 현대인에 맞는 도심포교도량으로 새롭게 가꾸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륜사는 인근의 주택 2동을 매입, 사찰경내를 확장해 부도전과 불교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불교회관은 현재 덕암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건물과 앞마당 터 173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운다. 불교회관 3층에는, 법륜사가 덕암스님의 출가사찰이기도 한 금강산 유점사의 서울포교당으로 출발한 것을 알리기 위해 유점사 53불을 그대로 조성해 모실 예정이며 1층과 2층은 불자들이 다양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사찰경내에 부도전도 조성해 대륜스님과 덕암스님의 부도와 탑비를 봉안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일주문

청담중고 학생·교직원 수계식



광복 청담학원 이사장(도선사 주지)은 5월30일 청담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교직원 및 중고생 350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가졌다.

경북 공무원 대상 특강



도업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장은 경북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도내 문화 및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한 전통문화반 교육에서 '불교문화'를 주제로 5월30일 강의했다.

보문사 용왕대재 회향기도

지만 강화 보문사 주지는 14일 오후 7시부터 용왕대재 회향 철야기도를 갖는다.

실상사·법련사 창배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22일 실상사 법련사 참배 및 청와대 국회의사당 견학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영문 법화경' 출판기념법회



도림 서울 법화정사 주지는 12일 오후 1시 평화통일불사리탑사 서울포교당 법화사에서 평화통일과 세계불국토건설 발원성취를 위해 발간한 〈영문 법화경〉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산불 이재민에 구호품 전달



지홍 조계사 주지는 5월31일 지난번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주민들에게 텔레비전 25인치 22대와 농협상품권 등 1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석가모니삼존불 점안법회

자현 대구 삼보사 주지는 15일 오전 11시 석가모니삼존불 개금 및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장성 석불친견 답사



이근후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은 18일 전남 장성군 일대로 6월 석불친견 답사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8시 이대부속병원 응급실 앞이다. (011-9016-5171)

평불협 홈페이지 개설



김도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대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bubtanet.or.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평불협 사업현황과 관련자료, 북한불교 연구자료, 통일서예대전 작품 등에 관한 자료 등이 실려있다.

인설차 문화전·차예절 강연



이길녀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은 제1회 전국 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를 4일 오전 10시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차예절 경연대회, 차예절 강연 등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26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 26주기 열반대재가 5월 30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일공 원융종 종정,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등과 신도 2만여명은 대조사를 추모하고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이 자리에는 중국 운남성 불교협회 스님 10여명도 참석했다.



해인사 삼선암 혜안 스님 다비식

해인사 삼선암 감원 혜안스님이 5월23일 세수 78세 법납 55세로 입적, 영결다비식이 27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선암과 연화대에서 해인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은 1945년 정행스님을 은사로 득도, 운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88년 조계종 단일계단 제9회 구족계 비구니증사로 추대됐다.



불교복지보건대 4기 호스피스 입학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은 5월30일 제4기 불심호스피스 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한 수강생들은 3개월 동안 호스피스, 간병, 봉사 등에 대한 이론과 병원실습을 거쳐 각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자비행을 펼치게 된다.



실천승가회, 비전향장기수에 후원금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5월31일 조계종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위한 후원금 1천만원을 불교장기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5월 7일 '비전향장기수 그 못다한 이야기'를 주제로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를 개최해 모금한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1300명 수계대법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은 5월 25일 문무관(체육관)에서 녹원(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을 전계아사리로 모시고 제8회 전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송석구 총장 등 1300여명의 교직원·학생·일반인들이 참석해 재가오계를 수지했다.

호소 백혈병 앓는 민석이 살려주세요



만성골수백혈병을 앓아온 4살난 아이가 수술은 했으나 수술비와 병원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민석 어린이〈사진〉는 2년 전부터 만성골수백혈병을 앓아오다 지난해 10월 삼성 서울병원서 수술비와 모든 치료비를 차후에 내도 좋다는 병원측의 배려로 아버지로부터 골수를 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만에 재발해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이달초 수술날짜를 받아놓았다. 하지만 수술비 4백만원은 둘째치고 통원치료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버지 김천수씨는 노점상을 하다 골수기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김정임씨는 간병때문에 다니던 공장일을 그만둔 지 오래다. 민석이 집은 보증금 2백만원의 월세 단칸방에 한시생계보호가정으로 지정돼 있는 형편이다. 도움 주실 분은 (02)806-1376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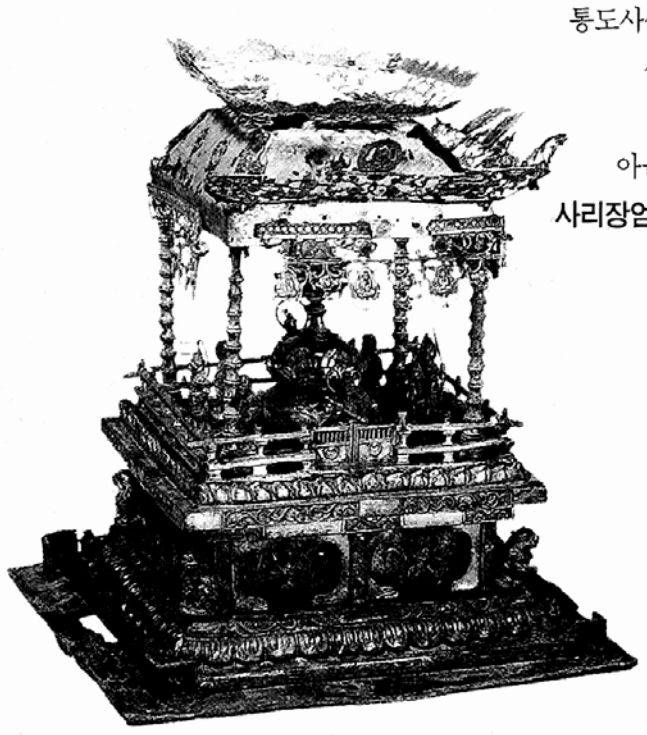
"마음의 때 쓸어요"

Focus

"작은 노력으로 사찰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 도량을 청소하며 출소하면 새 삶을 살겠다고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수원교도소 불자 모범재소자 15명이 5월 2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물 뿌리기, 도량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심신(心身)의 때를 함께 닦아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라 대국통(大國統)이자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되는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기의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공개되오니 모든 불자님들은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
(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행사안내 : 통도사성보박물관
전화 0523) 384-0010,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사리친견 행사기간 동안 부산,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순환버스를 수시 운행합니다.

www.48man.co.kr

사이버 법당서 불공올린다

개인법당 제공…동영상 법문·신행상담도

3D 입체영상 제작…영가 위패도 모셔

절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불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상으로 예불을 모실 수 있는 사이버 법당이 탄생한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고시고 사시불공은 물론 조상영가 위패도 모실 수 있는 사이버 법당의 탄생으로 시간에 쫓겨 사찰에 자주 가지 못하는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의 신행생활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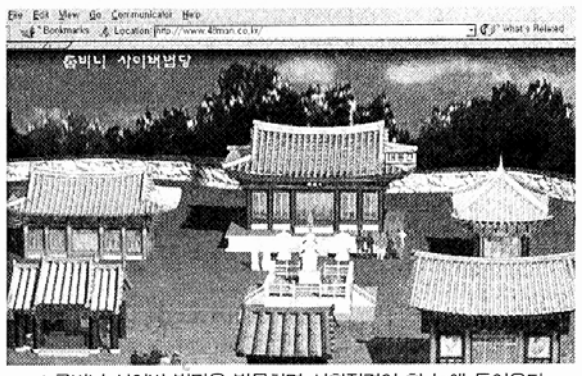
시범운영을 거쳐 1일 오픈한 룸비니 사이버 법당(www.48man.co.kr)은 단순하게 법당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나만의 법당을 꾸밀 수 있도록 개인법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독특하다. 법당도 대웅전, 영산전, 산신각으로 나눠져 있어 네티즌들이 원하는 부처님을 선택해 경배하고 예불을 모실 수 있다.

지안스님(도서출판 무심사 대표)이 주지로 운영하고 있는 룸비니 사이버 법당은 기존의 사이버 법당과 달리 법당 내부의 불상들을 3D입체 영상으로 제작해 마치 법당으로 들어간 듯 사실감이 뛰어나다. 예불문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과 자막으로 듣고 보며 같이 동참해 예불을 모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웅전에 들어가면 예불 외에도 사시불공, 초하루불공, 보름불공, 관음재일불공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천수경〉 염불도 같이 할 수 있다. 영산전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 아미타불 불공과 지장보살 불공, 화엄시식 등의 의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곳에는 영가 위패와 함께 사진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했다. 산신각에서는 산신 불공을 드릴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6개월에 1만원의 비용으로 꾸밀 수 있는 개인법당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미타불불당, 약사여래불당, 천수천안불당, 지장보살불당, 석굴암불당 등 5종의 불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하는 불당을 선택해 꾸밀 수 있다. 이 불당에서는 아침 낮 저녁 평상시 예불과 가정평온 가내길상 사업번창 생일축하 합격기원 병상위문 출산 첫돌 회갑 등의 축원도 올릴 수 있다.

사이버 법당 주지 지안스님과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신청해 개인법당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행상담은 물론 교리 가정문제 등을 문의하면 스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코너다. '이주의 법문' 코너에서는 지안스님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쇼핑몰에서는 불교용품도 구입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룸비니 사이버 법당을 방문하면 사찰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을 모신 불단 앞에 흔들리는 촛불도 실감나게 재현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허 길 량
〈대불광 관장〉

작업장으로 가는 차 속에서 〈천수경〉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것이 내 수행의 시작이자 내 작업의 시작이다. 불상 조성을 업으로 하다보니 삶 자체가 곧 수행이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조각이라 하지 않고 조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부처님 조성은 나무를 선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나무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나무는 숨을 쉰다. 인간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도 준다. 그 부드러운 느낌과 무늬에 정신없이 빨려들어 나무를 조각하는 동안 내 마음은 천진한 동심으로 돌아간다. 나무마다 결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 어떤 나무로는 동자승을, 또 어떤 나무로는 보살상을 조성하게 된다. 재료가 목재라 건조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 청동불과 달리 목조불은 건조과정에서 금이 가는 등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나무를 선정해 불상을 조각하고 여법하게 큰스님의 점안식을 거쳐 신도가 참배하는 그 과정은 하나의 의식이다. 그 의식을 거쳐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80종호 32상을 지닌 여법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시대에 따라 변해온 부처님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된다.

불상을 조성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부처님 상호를 조각할 때에는 삼매에 드는 마음으로, 아니 삼매에 든다. 불상 조성은 일반적인 조각과 달라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정결히 하고 조성에 임해야 한다. 불상이라는 것이 곧 성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한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승주 선암사에서 보냈다. 그때는 내가 왜 절에 갔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했던 집안 살림에 입하나 덜기 위해 보내졌던 것 같다. 그 시절에는 불상 조성을 모두 스님들이 하셨다. 대부분 흙으로 조성하는데 나는 그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다. 흙을 만지는 내 모습을 보던 스님들은 한결같이 "너는 크면 조각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내가 불모가 되는 동기가 됐다. 내 스승은 우일스님이다. 이미 입적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단청장 일섭스님의 수제자였던 우일스님께 불상을 조성하는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불상을 조성하면서 갖는 가장 큰 원은 내가 조성한 불상이 영험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절에 모셔져서 신도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면 항시 신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는 영험한 부처님이 되도록 기원한다. 조각을 시작한지 33년이 됐고 독립해서 조각을 한지도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제대로 된 불상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수련과정이 있어야 한다. 10년 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조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10년은 커녕 1, 2년 배우고 뛰쳐나가 조각한답시고 설쳐대니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다.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조각기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조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을 조각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해야 하는 것이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력도 필요하다.

스님은 절에서 법문을 통해 포교하지만 불모들은 형상으로 포교한다. 신자들이 〈팔상록〉을 읽고 이해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팔상도를 조각해 보여주고 10여분만 설명을 해주면 웬만한 사실은 쉽게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불모들의 포교다. 내가 조성하는 불상들을 보고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고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불상을 조성하는 원이자 이유다.

예불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

우리 모임에선

성북승무사무소 자인사 순례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9일 10시 명성산 자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사이에 자리한 명성산은 능선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곳. 법우회는 자인사 사찰 순례와 함께 명성산을 등반할 계획이다.

유불동 명선계 제다실습

유니텔 부처님나라 전통차모임 '명선계'가 3~4일 양일간 지리산 청미래와 경남 하동 화계면으로 전통차 실습을 다녀왔다.

이번 실습에서는 지리산 청미래에서 나는 효월수제차에 대해 공부하고 차만들기 실습에도 동참했다.

불과회장 정판수씨 재선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판수)는 5월29일 제7차 정기총회를 천안 금정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정판수 현 회장이 재선임〈사진〉됐다. 대한불교제과인회는 기획실을 개설해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정산악회 백운산 등반

스원포교당 거사회 다정산악회는 5월28일 원주 백운산으로 등반대회를 다녀왔다. 백운산은 치악산 못지않은 명산으로 아름다운 계곡이 유명하다.'

천불동 부경법회 철야정진

천리안불교동호회 경남부산지역 모임인 부경법회가 5월27~28일 원동 신흥사에서 철야정진을 가졌다.

이번 첫 철야정진법회에서 회원들은 일심으로 절을 하며 신심을 다졌다.

지하철 안산승무소 법우회 창립

회장 김인철씨…"사회봉사 등 주력"

지하철 안산승무사무소 법우회가 5월26일 산본 정혜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정혜사 주지 정혜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신 안산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불교 기초교리, 정기법회, 사회봉사활동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인철 회장은 "회원 모두가 화합해 법우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초발심자가 많아 좀더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위해 매월 교리 강좌를 겸한 정기법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안산승무사무소 법우회 회원 외에도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등 각 철도청 법우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청불교신행단체대표자회 박창식 회장은 축사에서 "안산법우회의 발족으로 철도청 법우회가 좁더 다각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2001년에는 철도청 법우회 연합회를 구성해 연대활동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 불자회합동 수덕사·개심사 순례

감사원 불자회(회장 남정수)가 10~11일 수덕사, 개심사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수덕사에서의 불교체험과 더불어 정혜사와 만공탑 등을 참배하고 개심사도 둘러볼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원한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를 관람하고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도 듣고 방장 원담스님도 친견한다.

감사원 불자회의 성지순례에는 농림부, 공정거래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정부부처 불자회들이 다수 동참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대전어우러지기아봐타센타(http://myhome.naver.com/avatar21)-선공학이라고 불리우는 아봐타프르그램 소개.

■법정스님 명저 모음(http://kr.buddhism.org/bbs/bud/pubjeong)-법정스님의 여러 글들을 읽어 볼 수 있는 곳.

■달마게이트(http://dhamool.buddhism.org)-독특한 명상 사이트 달마게이트. 오늘의 명상 메시지, 명상 입문과 정진으로 시작하여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탐구하는 사이트로, 명상과 명상음악 자료 등도 제공한다.

■고금선원 (http://livezen.buddhism.org)-고금선방, 고금 선 연구소, 이 무엇고 담론, 마음 편해지는 법, 무차탁마, 선사기연, 선시모음, 의로어로논증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화두참구법도 가르쳐 준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http://happy.buddhism.org)-손한식씨의 홈페이지로 가족과 장애를 극복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꾸며진 사이트.

■청량(靑廊)의 집(http://dharma21c.buddhism.org)-부처님 말씀, 깨달음을 위하여, 동양철학, 건강정보, 청량 소개, 사랑채, 가볼만한 곳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정보에서는 한약학에 조예가 깊은 전문 약사와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무료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천태종대성사(http://cafe.daum.net/cccd)-5월16일 개설. 천태종 교리와 기도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天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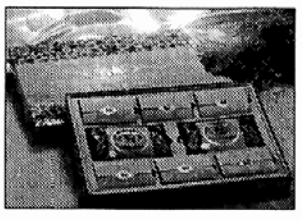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물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불교 대사회 활동의 방향

불교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을 밝고 맑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종교라는 것이 불교인들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늘려 나가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구체적 표현이어야 한다.

한 개인의 행복이 추상적 관념적 세계의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불국토 실현으로 이어지려면 불교 신앙은 당연히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연대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문제를 말하며, 오늘의 몸짓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적 운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불교는 당연히 사회운동,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요구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불교는 그 동안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개인의 안심입명을 추구하는 소승적 차원에 머물거나, 종교적 바탕을 잃고 운동 논리 속에 매몰된 소수의 운동가들이 불교 시민운동을 대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양상이 극복되려면 우선 스님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님들의 의식이 가장 구시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계제에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조계종 서울·경기·강원 지역 본말사 주지연수회에서 불교 시민운동이 나아갈 큰 틀을 제시한 것은 불교의 밝은 앞날을 위해 매우 주목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지스님들의 연수에서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스님들 자신의 의식 변화 요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불교가 현실사회의 구체적인 괴로움을 걷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또 이웃종교보다도 뛰어난 종교적 바탕을 지니고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의 영역으로 통일 운동, 문화운동 등 11가지의 구체적 예를 제시되었다는 것도 불교 시민운동의 무한한 가능성과 구체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불교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스님들의 변화 의욕에 이러한 발제가 기폭제가 되어, 모든 사찰들이 불교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고 보살행이 시민운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불교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불교문화 상품화의 조건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불교계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절들은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영산재 등과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불사도 개최되고 있다. 불교문화재의 상품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들(www.jikjicorea.com, www.jikji.org)도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예술 공연들도 기획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의 한가지 공통적인 한계성은 이벤트성 행사, 건물 짓기, 전시회 개최, 관련 상품 개발 등의 명색(名色) 강조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등에 대한 새로운 문화전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세계인의 축제가 된 2002년 월드컵이 목전에 다가왔다.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불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는 것이다. 번역의 경우도 단순한 직역은 큰 의미가 없다. 해석과 분석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곧 탄탄한 학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벤트성 행사도 이러한 시각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일차적으로 누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종단의 분야별 권위자들과 불교학 전문학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문적 체계성을 구비한 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의 돈황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에는 옥스퍼드, 런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의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다. 물적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16세기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은 당시의 인재 선택 기준이 "누구를 아느냐"에 있음을 개탄하였다. 현대에서도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개리 쉬버 교수는 "무엇을 하는가"(What they do)와 "어디에 속하는가"(Where they are)라는 기준으로 선 후진국을 구분하면서, 선진국일수록 전자를 강조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연구비 지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때, 불교 유물·유적의 문화상품화 전략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지리산댐 백지화' 범불교 토론회

'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원회'는 5월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살리기를 위한 범불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봉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이 '지리산댐의 진행경과와 문제점'을, 해강스님(지리산살리기 실상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지리산댐 문제에 대한 범불교적인 대응방안'을 발제하고, 영담 불교신문사 사장 스님, 최연 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이창구 함양댐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단지 '물 문제'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정치·경제·문화·생태계·산업구조·종교 등 총체적인 '생활의 문제"라면서 "향후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범불교, 범국민적인 사안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



◇ '지리산 댐 백지화' 토론회 장면. 왼쪽부터 해강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석봉 집행위원장.

"200여 사찰-유물 곳곳에 산재"

해강〈지리산 살리기 실상사 집행위원장〉



지리산은 민족의 발원지인 백두산의 맥이 흘러 머무는 민족의 성산이자, 반만년 부침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의 고향이다. 천년이 넘도록 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보호해 온 사찰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지리산은 산 밖의 생명들이 지치고 힘겨울 때, 버림받고 서러울 때, 모든 이들을 말없이 보듬어 달래주는 어머니이다. 봉우리, 골 골마다 문수보살의 중생제도 서원이 서려있는 화엄도량이다.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舍利菩薩)에서 산 이름이 기원한 지리산에는 화엄근본도량인 화엄사, 한국 범패의 연원인 쌍계사, 가야불교 인도 직접전래설이 전해오는 칠불암, 벽송지엄소님의 수행도량인 벽송사 등 유서깊은 200여 개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7점의 국보와 41점의 보물, 51점의 지방문화재, 12곳의 중요사적지 등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산재한 불교문화의 보고이다.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에는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하고 있다. 식물 744종·포유류 39종·조류 87종·양서류 92종·파충류 12종·어류 27종·곤충류 139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올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중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 될 것이다.

지금도 지리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건설된 횡단도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켰고, 계곡마다 자리잡은 위락단지는 하류지역 하천수질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강댐, 합천댐, 하동댐 등 지리산 양수댐 2기가 이미 건설되었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3개의 대형 식수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지리산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더 이상 개발의 논리로 환경과 문화를 정부가 앞장서 파괴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환경-생태-문화 파괴적 행정"

김석봉〈낙동강유역 댐반대 집행위원장〉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낙동강의 심각한 오염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96년 발표된 대구 위천공단 건설 계획은 낙동강의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산·경남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가 급조한 대책이 남강상류(낙동강지류 중 하나, 지리산유역) 지역의 청정수원 개발이다. 지리산의 맑은 물로 낙동강의 오염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함양과 산청, 진주를 지나 낙동강 하류로 흘러드는 자연스런 흐름을 단절시키게 된다. 이는 청정한 남강상류를 오염시키고 남강중류의 수량을 극소화시켜, 남강하류(낙동강 본류)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양질의 지리산 계곡수에 의해 그나마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남강댐 수질이 지리산 식수댐에 의해 폐수로 전락,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100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낙동강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중류의 집중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류지역의 청정수를 낙동강 본류까지 흘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지리산 댐에 집착한다면, 낙동강도 포기하고 지리산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지리산의 생태적·사회·역사적·문화적 가치,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성지로서 기능했던 지리산의 민족통합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지리산댐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량확보 위주의 공급확대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 식수용·잡수용 수도꼭지를 구분하는 중수도시설의 도입, 노후상수관 교체, 물절약 국민운동 등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탁소리

선원의 교학위주 시험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선방스님들은 교리지식이 없다"

"선방에서 나와 과연 대중교화 할 수 있을까"

5월 29일 한 토론회에서 강원에 관계된 스님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선원도 기본교육을 점검받는 교학위주의 승가고시에서 예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자나 언어를 버리고 화두와 하나되기 위해 엄격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학위주의 시험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문제가 크다. 선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이 같은 발상은 선이 인류정신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은 물론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론 종단의 교육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승려의 기준 및 자질 검증을 도외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방법에 있어 선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답이나 선원 생활태도 등을 중심으로 선방스님들에게 적합한 시험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리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스님으로서 의식과 자질이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동화사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은 "교학에 치중하지 않는다고 수행자를 무지하다 매도하는 것은 참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며 "수행자의 본분은 수행인데 종단에서 스님들에게 수행자가 되기보다는 성직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출가자의 90%, 다른 종단의 경우 거의 99%가 사판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조계종 기초선원의 출범은 선정을 통한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였다. 특히 근래 종단이 분규로 시끄러울 때마다 출가자의 수행부족에서 원인을 찾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초선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처럼 교학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초선원에 입방하고, 포교는 하지 않은 채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을 무위도식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다. 스님들이 불철주야 용맹정진으로 선방에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모습 그 자체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길이 되고 불교를 일으켜 세우는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법왕·대한불교 일붕선교종·창종주 일붕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탄신87주기·열반3주기

제 4회 일붕 대제

귀의 삼보하시옵고.
춘초는 연년록이라 올해도 무정한 잎새는 말없이 푸르렀지만 스승님께서 가신지 어언 4년이 흘러 벌써 큰스님의 4주기가 닥쳐 왔습니다.
저희 종도와 문도들이 올해는 큰스님께서 평소에 주석을 하시던 서울 일붕선원에서 아래와 같이 4주기 추모법회를 모시기로 하였사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와 큰 스님의 공덕을 함께 기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 2544(2000)년 6월 10일(음5월 9일) 오후2시
◈장 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일붕선원 대법당
◈문 의 : TEL 02)394-9468 FAX 02)395-9468

■ 주최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주관 : 일붕 전국문도회
■ 후원 : 일붕장학회, UN뉴스, 일붕신문

2544 禪의 향연 2000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안내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삐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운 추위가 뼈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 코를 찌르랴.
— 황벽선사 —

일 정

구 분	찻수	기 간	정 원	수련비용	대 상
일반부	1차	7월10일~14일(4박5일)	남자 20명 여자 20명	70,000원	19세~55세
	2차	7월17일~21일(4박5일)	남자 20명 여자 20명	70,000원	19세~55세
	3차	8월 7일~13일(6박7일)	남 20명 여자 20명	90,000원	19~55세(유경험자)
청소년	1차	8월 1일~ 4일(3박4일)	남,여 100명	30,000원	중, 고등부 학생
어린이 숲속마을	1차	7월25일~7월27일(2박3일)	남,여 200명	20,000원	초등학생
	2차	7월27일~7월29일(2박3일)	남,여 200명	20,000원	초등학생
자원봉사자 — 수련경험자로서 매 찻수마다 5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3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모 집 요 강

1.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본인이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6월30일(금) 우체국 소인까지입니다. (일반인에 한함)
5. 7월5일(수)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일반인에 한함)
6. 수련기간중 조석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7.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대흥사)수련원
8. 문의처 : 종무소 ☎(0634)534-5502,5503 팩 스 (0634)535-5357
온라인 : 예금주 — 대흥사
우 체 국 502716-0019095-11
국민은행 562-01-0039-629

※청소년과 어린이는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 청 서 양 식

대둔사 참선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별명 성별 남 여
주소 ㅁㅁㅁㅁㅁ
주민등록번호
전화 및 팩스
직업 : (구체적으로) 종교
희망차수 : 제 차
(월 일부터 일 까지)
수련회 경험 유무
無( ) 有( ) 年 년도 제 차
참가소건(자세하게)
년 월 일
신 청 인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 둔 사 (대흥사) 주 지 보 선
수련원장 법 인

벤처기업 직지코리아

직지찾기 '도전과 창조'

신문발행·문화상품 제작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일.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최근 이 같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화벤처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고, 직지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 직지코리아(대표 정덕형)가 인터넷의 바다에 돛을 올린 것이다.(www.chikchi.co.kr)

직지코리아 대표 정덕형 씨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는 지난 천년 최고의 발명품이자, 최고의 소프트웨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이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직지'라는 문화유산 속에 내포돼 있는 도전·개척·창조의 정신을 '지금 이곳'에 생동하는 가치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청주시민회가 지난 96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직지찾기운동'에 한몫을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목표다.

현재 직지코리아는 직지디지털연구소를 중심으로 직지신문, 직지아트 분야를 구축해 놓고, 직지 CD롬, 직지문화상품 개발, 직지 애니메이션 제작 등 현대적인 방법으로 직지를 일반 대중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화벤처기업 직지코리아 메인 홈페이지.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직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직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직지신문에서는 직지와 관련한 각종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직지아트는 직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이미 5월 열린 제1회 충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직지디지털연구소가 개발한 직지문화상품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직지 머그컵, 티셔츠, 배지(휘장), 버튼, 파일 등 7종 12품목이 선보이고 있다.


◇직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 제공하는 직지디지털 연구소.

또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직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택해 예술기획 아루트와 함께 직지 애니메이션도 제작중이다. 현재 50% 정도 작업이 진척된 이 애니메이션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직지, 불교 선어록으로서의 직지, 문화재로서의 직지 등 다양한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직지 소재의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직지아트.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자랑스런 불교문화인 직지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너무 미약하고, 직지의 잠재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정씨는 "직지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의 문화, 동양의 정신으로서의 직지의 우수성을 모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최승희 보살춤 사진으로 본다

호암아트홀 7월2일까지


◇1939년 프랑스 공연 당시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모습.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로 평가받는 '최승희(1911~?) 사진전'이 9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호암아트홀 로비에서 열린다.

지난 10년간 최승희 연구에 몰두해 온 정병호 교수(중앙대)가 그동안 수집한 최승희 사진 500장 가운데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학생 시절,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최승희 무용 공연장을 접한 이후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지를 누비며 최승희 자료 사진을 모아왔다. 전시되는 사진은 숙명여고 시절 앳띤 모습에서부터 일본체류 시절, 세계 순회공연때, 월북 후 등 최승희가 살아온 삶을 굵은 마디별로 분류해 무용가 최승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중에는 정교수와 절친한 김병철 남산예술원장이 골동품점에서 발견한 1939년 프랑스 파리 공연 당시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모습이 원판으로 공개된다.

열 여섯 나이에 일본에서 유학한 최승희는 20대에 이미 한국과 일본의 최고 무용수로 자리 잡았고, 30년대 이후에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동양무용의 독특한 세계를 발전시킨 '보살춤' '초립동' 등을 선보이며 30년대 말부터 미주,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이은자 기자

"미술문화 대중화에 노력"

문화집단 '솟대' 대표 김원열씨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해 선보이고, 다양한 기획 전시로 보다 많은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문화집단 솟대 대표 불자 김원열 씨는 말한다. 솟대는 미술작가를 위한 전문 문화 사업체다.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조소 판화 공예 사진 영상설치미술 등 여러 분야 작가의 미술작품을 유치해 서울 은현궁미술관과 경기 포천 취옹예술관을 무료로 대관, 전시하는 일을 한다. 작품관리는 물론, 전시홍보와 국내 최초로 미술인 지원 대출제도까지 도입해 실력있는 미술인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술문화의 대중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는 10%의 이윤은 문화운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할 것"이라는 김 씨는 "특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는 특색있는 불교 미술작품의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집단 솟대는 앞으로 인터넷 가상화랑 개설, 미술 무료 강연회 및 실습, 비평 무크지 발행 등의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며, 현재 신인작가의 전시 모집과 작가회원, 후원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02)2635-1338

이은자 기자

'찾아가는 박물관' 6월엔 임실·양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박물관' 6월 전시를 전북 임실 동 중학교(6.13-6.15), 강원 양구 문화체육회관(6.20-6.21)에서 각각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의 고도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를 비롯, 신라시대의 적석목곽분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천마총 출토품과 토우 등 55점을 복제, 전시한다.

또 지난해 특별전시회로 인기를 끌었던 '아름다운 금강산전'에서 선을 보인 일제시대 금강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유점사와 장안사의 유리원판 사진패널 43점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한 만화로 보는 박물관 패널 31점도 함께 전시된다.

이밖에 용의 해 상징 용 문양 스탬프 찍어가기, 용·봉황 전통탁본 시연 등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우리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02)398-5086

이은자 기자

화해

김영동씨 새음반 각 종교예식곡 조화

연이어 울리는 법고소리에 잔잔한 카톨릭 미사음악, 거기에 산사의 스님이 부르는 종성곡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과 천주교의 종교음악을 매개로 화합을 노래한 음반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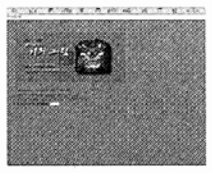
작곡가 김영동 씨가 최근 발표한 새음반 '화해(웅진미디어)'가 바로 그것이다. 종교와 인간, 그리고 자연의 화합을 주제로 한 이 음반은 각 종교의 예식곡과 자연음을 조화시켜 또하나의 음악을 탄생시켰다.

요즘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퓨전음악이다. 이 음반을 통해 김 씨는 동서양 정신세계의 융합을 시도하고, 인간과 만물의 상생과 조화를 표현하려 했다. 하늘소리, 화해, 영혼의 피리, 고해 등 9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는 전통 국악기 외에 법고와 범종, 인도의 지타르, 아메리카 인디언 피리 등 각기 개성이 독특한 다양한 악기 음이 녹아있다.

이은자 기자

귀일스님 기와그림 홈페이지 개설

www.kiwart.com



옛 기와에 도깨비 그림을 그려 넣은 귀일 스님(봉정사 지조암)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스님은 한국민예품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귀면와(鬼面瓦)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www.kiwart.com)

스님은 크고 작은 기와, 깨어진 기와, 수키와, 암키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와 모양을 그대로 살려 그 위에 그린 그림으로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마쳤다. 귀면와는 문화상품으로 판매도 하는데 5만원 정도의 소품에서부터 금단청을 사용한 고가의 작품까지 다양하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

톡톡튀는 진행 N세대 '솔깃'

"이소은의 '기적'을 신청하신 경주의 김우영 군. 자 지금 신나는 음악이 흘러 나갑니다. 녹음준비하시고 일요 법회 때 친구들에게 자랑하세요."

최신 유행음악을 편성해 심야시간대 청소년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담당PD 안희경, 밤 11시10분~새벽 1시).

인기 탤런트 최재원씨의 톡톡튀는 말솜씨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방송의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소개', '동화 속의 등화' 등 다양한 코너 운영 등 파격적인 진행이 청소년 불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다. 이 가운데 특히 '사랑을 나누는 장터' 코너는 인기 연예인의 애장품을 경매 형식으로 팔아, 그 수익금을 불우 이웃을 위한 자비행 실천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

하지만 가벼운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가볍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틈틈이 불교 교양서적을 정독하며 보다 알찬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즐거운 음악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불교사상을 전달하는 방송포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제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추천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 분	대 상	인 원	상 규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한 분	1명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명	300만원
예술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부분 제외)	1명	300만원
대중예술상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한 분	1명	300만원

2. 구비 서류 ① 추천서(지정양식) 1통
② 공적서(구체적 내용) 1통
③ 이력서 (명함판 사진 3장) 1통
④ 공적증빙자료(최근 2년이내 실적물) 1통

3. 추천마감 : 2000년 6월 30일

4. 심사및발표 : 본 재단에서는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5. 시 상 일 :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 기획실 (우편번호 136-075)

☎02) 926-4377(교환302) / FAX02) 921-9721

2000년 6월 7일

社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02)3446-5889 공급자 : 석씨향방

도선풍수의 맥 '땅=사람'

최원석씨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땅 풍수기행'



여주 신륵사 탑은 왜 강가에 서 있을까. 서울 호압사라는 절 이름에 '호(虎)'자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가야 땅의 산과 절 이름에 '어(魚)'자가 왜 유난히 많을까.

〈도선 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시공사)은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면서 자연의 공간과 삶을 조명한 책이다. 최원석씨가 풍수를 테마로 전국 사찰과 유적을 찾아다니며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과 사찰의 연관성을 파헤친 여행기이다.

여주 신륵사 탑 강가에 선 이유

'虎'자 절이름 호랑이 산세 제압

일반적으로 풍수라고 하면 잡술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풍수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선조의 묘 자리를 살피고 터를 골라 집을 짓는 명당풍수(明堂風水)가 아니다. 글쓴이는 온 땅을 사람의 몸과 같이 보는 비보풍수(裨補風水)를 한국풍수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그 비보풍수의 주역이 바로 도선 스님이다.

통일 신라 말의 선승 도선 스님은 선(禪), 풍수, 밀교, 사리탑 신앙을 종합하여 국토산천을 깨달음으로 보는 국토선(國土禪)이라는 새로운 풍수사상을 창안했다. 그 실천방안이 사탑비보. 이 책은 글쓴이가 93년부터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이 녹아있는 구산선문과 화엄 10찰 등 여러 사찰을 답사, 도선 풍수의 맥을 산천비보, 자연미학, 국토산천의 깨달음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땅이 곧 사탑'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땅도 사람처럼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 곳,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 도선 스님은 이런 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워 그 땅을 치료하고자 했다. 그래서 거센 호랑이 산세를 제압하기 위해 호압사라는 절이 세워졌고, 날뛰는 용과 말에 굴레를 씌우기 위해 여주 신륵사의 전탑은 대웅전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 자리잡게 됐다. 또 달아나려는 개의 형상을 한 산세를 눌러 앉히기 위해 경북 청도에는 떡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비보(裨補)', 도와서 모자람을 채워 주는 것이다. 즉 자연에 기대어 기생하려는 인간이 아니라 아픈 땅을 돌보고 치유해서 끌어안으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도선 풍수'인 것이다.



이 책의 1부 '도선의 국토선과 산천비보'는 도선 풍수의 현장 39곳을 둘러보고 쓴 것이다. 탑이나 절의 생김새를 살피기보다는 멀리서 가까이서 바라본 산과 절, 탑의 지리적인 입지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말 그대로 봉황이 머리를 드는 형국의 산세, 용트림하며 뻗는 산등성이, 연꽃 모양으로 솟은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맑고 고운 우리 땅의 성품임을 잘 보여 준다. 산, 바위, 절, 탑의 조화에서 결함 있는 땅조차 불력으로 살기 좋은 터전(명당)을 만들려 했던 도선 스님의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다.

2부 '도선의 풍수와 비보사탑에 관한 이해'에는 비보사탑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다. 도선 스님의 풍수이론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문헌상의 출처를 일일이 살펴보고 비보사탑의 현장을 도표로 정리했다.

이 책은 드선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우리 땅을 보는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산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명당을 만들려 했던 도선 스님. 그가 땅을 보살핀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근현대 선승 33인과 대화



이학종씨 '선을 찾아서'

경허·효봉·만해스님 오도송 구도기 등 담아

선승과의 만남을 통해 선의 참뜻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선승 33인의 구도기 〈선을 찾아서〉(민음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한 세대쯤 앞선 시대, 또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간 선지식들이 설한 삶의 지혜로 가득하다.

한국 근대불교를 일으킨 경허 스님을 시작으로 〈님의 침묵〉의 만해 스님, 하심행(下心行)으로 일관한 고암 스님, 일제치하에서 판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선승의 길을 걸었던 효봉 스님, 그리고 현존하는 서옹 스님 등의 삶과 수행과정, 그리고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특히 선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했던 이들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노래(悟道頌)와 열반송(涅槃頌), 그리고 여러 게송들은 선의 세계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이학종 법보신문 편집부장이 쓴 이 책은 20세기를 살다간 우리 나라 대표적 선승들의 수행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삶이 주는 가치와 독특한 교훈들을 일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0년은 결코 녹록치 않았던 세기였다. 그 격동의 시절을 명철한 지혜로 헤쳐 나갔던 선승들이 보여준 삶의 궤적들은 참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등대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더불어 사는 삶 선한 마음 실천

혜인스님 수필집 '내마음의 풍경'



25년 동안 미국 시카고에서 포교를 하다 8년 전 귀국한 혜인 스님(불심사 주지)이 수필집 〈내 마음의 풍경〉(나무심는사람)을 내놓았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글쓴이의 말처럼 이 책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더불어 사는 생활 속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고 살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알면서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끊는 방법은 없을까. 스님은 '선한 마음의 실천'이 업의 사슬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한다. 또 스님은 수행하는 마음도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종교의 위대성이 있다는 게 스님의 해석이다.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나는 누구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게 한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미국인 수도승이 쓴 티베트 불교의 지혜 '내마음 속 부처깨우기'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알기 쉽게 소개한 〈내 마음 속 부처 깨우기〉(창작시대)가 나왔다.

글쓴이는 티베트 라마 사원에서 30년 간 수행한 미국인 수도승 라마 수르야 다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존재'에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스와 이란, 인도를 거쳐 티베트 라마 사원에 도착,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섭렵한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글쓴이가 얻고 깨달은 지혜와 각성의 기록이다. 그것은 교리나 계파의 틀 속에 구속되지 않은 살아 있는 지혜이며 깨어있는 진리이다.

글쓴이는 이 책에서 진리를 깨우쳐 부처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즉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부처를 깨워라', '지금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서양 첫 비구니스님 아야 케마의 일대기 '이 생명 다 바쳐서'



남방불교 최초의 서양 비구니 스님 아야 케마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담은 〈이 생명 다 바쳐서〉(장승)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아야 케마(1923~1997). 그는 히틀러의 등장으로 가정과 조국을 등진 뒤 50여 년 동안 영국, 중국, 미국 등 10여개 나라를 떠돌며 전쟁고아, 빈민가의 처녀, 은행원, 주부, 여행가, 목장 주인 등 다양한 삶을 경험한다.

유난히 굴곡이 심했던 그의 인생역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영혼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그는 고통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다. 58세에 출가한 그는 그 동안의 삶은 내면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삶을 통해 '살아지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으며, 눈앞에 닥쳐온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도와 명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털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매력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지대방 이야기(송광사 강원 펴냄, 법공양)= 송광사 강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 '정혜사'에 실렸던 학인 스님들의 글 가운데 맑은 이야기만을 간추려 엮은 책이다. 송광사 강원 일화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강원의 일상이 소탈하게 담겨져 있다. 그 속에는 세상과 승가 속에서 스스로 본분사를 지키려는 학인 스님들의 신심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이 녹아 있다. 값 7천원.



▲한국의 박물관 3(한국박물관연구회 엮음, 문예마당)= 전 20권으로 기획된 '한국의 박물관' 시리즈 세 번째 목아불교박물관·통도사편. 경기도 이천 목아불교박물관 소장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대웅전, 일주문, 괘불, 석탑과 같은 박물관에서 전시하기 어려운 문화재들은 통도사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유래에서부터 세부 명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교조형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을 견학하지 않고서도 불교문화의 진수를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기획의도이다. 값 1만5천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다카하시 신지 지음, 김해석 옮김, 해누리)= 30년간 신과 영혼문제에 천착, 20세기 신화적 존재로 알려진 다카하시 신지의 영혼 고백서. 이 책은 '나는 왜 태어나 살다가 죽는가'라는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다. 목정배 동국대 교수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영혼문제를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압권이다"고 평했다. 값 9천원.



▲미하르쉬의 복음(슈리 라마나스라맘 엮음, 대성 옮김, 탐구사)= 슈리 라마나 마하르쉬는 20세기 전반에 남인도의 성산 라루나찰라에 살았던 수행자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보편적인 화두를 인류에게 제시한 그는 자기탐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값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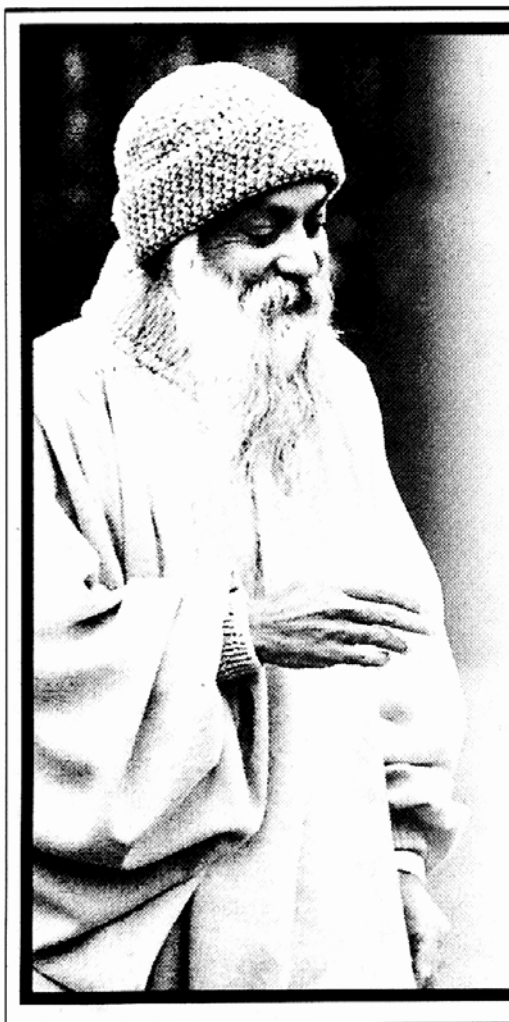
▲사람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김나미 지음, 현암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삶 속에서 죽음을, 죽음 속에서 삶을 발견하는 길을 열어주는 예세이다.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으며, 죽음과 관련된 70여 장의 컬러 불화도 실려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해준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 열 권	불 광
9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10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이경옥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신간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000원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쇼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라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쇼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다섯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轉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내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사이버 시대와 종교문화' 세미나

21세기 종교과제 시대맞는 교리해석 종교간 연대실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사이버시대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종교지도자 세미나 모습.

가상 공간이 현실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가서는 사이버 시대에, 종교계에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7대 종교 학자들이 '사이버 시대와 종교 문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찾은 해답은, 먼저 시대에 맞는 교리 해석과 종교간 연대를 실천하고, 나아가 가상 공간의 본질을 밝히고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공성진(한양대) 교수는 "종교는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문화에 공감하고, 또 그것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도그마에서 벗어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종교'를 실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영을 선택할 때임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현재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 수는 세계 4위. 따라서 종교계는 변혁의 중심에서 사이버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망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대의 종교 여건과 그 역할을 면밀히 검토한 윤원철(서울대)·김홉영(강남대) 교수는 "종교계는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가상과 현실의 총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가치관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에 종교 관련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예전의 권위는 희석되고 일반인 중심의 종교문화를 촉발시켜, 출판·음악·영화·일용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품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사이버 공간의 윤리를 정립시켜 인정(人情) 넘치는 인터넷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원광대에서 1학년 38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및 태도'를 설문 조사 결과, 종교성이 네티즌(인터넷 사용자)의 일탈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사이버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윤 교수 역시 설문 결과에 호응하면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사이버 시대는 정신을 다루는 종교에 강점이 있다"며 "현재 연구 성과물이 척박한 만큼 입체적인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의 심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 종교 학자들은 "사이버 시대에서는 기성 종교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유에프오(UFO)·천국의 문(Haven's Gate)·파룬궁 등과 같은 신흥 종교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 종교계는 정통성만을 강조하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형'과 '틀'만을 고집했던 20세기의 종교에서 과감히 탈피해, 21세기의 종교는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에 뛰어들어 새로운 믿음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불교문화재의 절도나 암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교계와 관계 당국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전문검사'로 통하는 전주지방검찰청 최순용 검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교계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비지정 문화재 보호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

문화재 보호법 개정 제언



최 순 용
전주지검 검사

불교문화재들이 문화재절도범에게 도난 당하고 암거래되고 있는 것은 우선 불교문화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야겠지만 법률적 허점도 적지 않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한 자, 절취 또는 도굴된 지정문화재를 취득한 자가 그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절취, 도굴한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문화재를 관매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한 범인 또는 그 장물범들이 문화재를 은닉하여 두었다가 공소시효 경과 후에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다음 그 문화재를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하여 조사하더라도 대부분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중단하였던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의 성격상 공소시효 7년은 너무도 단기간이어서 문화재 전문절도범이나 도굴범들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

따라서 필자는 지정문화재나 도굴된 문화재 발견 당시의 은닉 또는 보관자를 그 은닉, 보관의 원인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직원 2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사범단속반을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재사범단속반은 전국 검찰의 지휘를 받거나 경찰과 협조하여 문화재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범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로서 그 범인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여러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특유한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원 2명으로는 폭증하는 문화재사건에 대한 충실한 정보수집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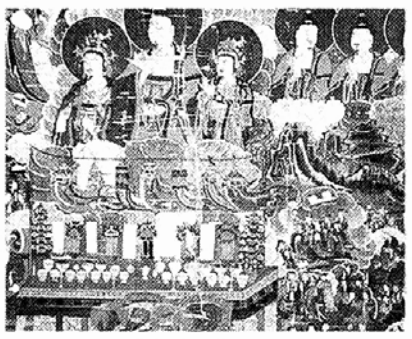
국가문화재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사범단속반원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단속반장 아래 중부, 호남, 영남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팀 당 2명씩 최소 3팀은 운영해야 한다.

한편, 불교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불교종단 내부에서도 도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물리적 도난방지장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면서도 현재 문화재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방치돼 있는 불교 문화재들에 대한 문화재지정을 서둘러야 하고, 문화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종단 자체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관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또 문화재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로서, 검찰을 비롯한 전국의 수사기관에서 불교 문화재 도난사건을 수사할 경우 종단내부에서 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마련,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이 글을 읽는 불제자들만이라도 귀중한 우리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보호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불교문화재 도난 사건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청룡사 감로탱 '보물'로



◇경기도 안성 청룡사 감로탱.

경기도 안성 청룡사 감로탱은 보물로, 전남 나주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전남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등은 도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된다.

문화재청이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키로 한 청룡사 감로탱은 대웅전 내벽에 걸린 불화로, 가로 239.9㎝, 세로 200㎝의 1692년 작품이다. 감로탱은 명료한 주제와 안정된 구도 그리고 선명한 색채로 18세기 조선 후기의 불화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자, 당대의 중생제도와 효사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불화의 구성은 상단의 아미타삼존, 칠여래, 관음보살,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등과 중단의 성반의식을 강조하고, 하단에는 속세의 여러 장면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불·보살의 몸에 금니를 한 것은, 다른 불화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지정 예고한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는 1317년 조성돼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능가사 사천왕상은 95년 복원 과정서 '1666년'의 조성 연대가 밝혀진 것으로,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양식을 띄고 있다. 불갑사 사천왕상 복장불서는 월인석보 중간본 등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간행된 38종의 경전이다.

중앙박물관 중국 문화재 7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의 문화재'로 박물관 소장 석조반가사유삼존상 등 불상 3점을 비롯해 모두 7점의 중국 유물을 선정, 전시했다. 이번에 전시된 석조반가사유삼존상, 석조미륵교각상, 석조여래입상 등은 삼국시대의 불교조각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로 북제(550-577)와 북주(557-580) 시대의 불상들이며, 북위시대 조각에서 수·당 조각으로 이행되는 단계의 양식적 특징인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청나라 초기 화가인 맹영광(孟永光)의 '계정납량도'도 전시된다. 맹영광은 우리 나라에 3년간 머물면서 한국의 문인·화가들과 교유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선과 화려한 색을 사용하고 있어, 청나라 원체화풍(院體畵風)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연구에도 중요한 비교자료가 되고 있다.

대전 보문사지 석조보살좌상 출토



◇대전 보문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보살좌상.

대전시 중구 무수동 보문사지(시기념물 제4호) 발굴현장에서 라마풍 석조보살좌상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단장 김정기)은 5월 30일 고려 말 양식을 보이는 석조보살좌상과 '강희(康熙)16년(1677년·조선 성종조)' 명문이 있는 암막새 등 1차 발굴 유물을 공개했다. 석조보살좌상은 라마계통의 옷주름과 유연하고 풍만한 신체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조사실 류형균 연구원은 "발굴 결과 금당지 남쪽 기단석이 각형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등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보문사 창건시기가 당초 추정됐던 고려말이 아니라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조사상' 13집 출간

보조사상연구원은 지눌 스님의 사상을 집중 탐구한 〈보조사상〉 제13집을 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진심직설〉의 한 고찰(한기두) △보조국사 지눌의 〈원돈성불론〉 상석(심재룡)을 비롯해 △선종사에서 간화선의 위치(혜원 스님) △간화선 형성의 사회적 배경(종호 스님) △대혜 간화선의 특질(인경 스님) △대혜의 묵조선 비판에 대하여(김호귀) △돈오점수의 수행법과 '무자' 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한 대혜종고와 보조지눌의 견해 비교(이병욱) 등 논문 13편과 논평문 등이 실려 있다. (02)733-5311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초판시로 연락주십시오. 일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 9078

배우자 이외 사람과 음행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0〉

오계상경-14

청정해야 번뇌·욕망 물들지 않아

사음 과보로 존경 잃고 패가망신

근본 5계 가운데 세번째인 불사음(不邪淫)계는 남녀의 순결과 삶의 청정을 강조한 계율인데, 〈숫타니파타〉에서는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현명한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생활을 피하라.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남의 아내(또는 남편)와의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가자에게는 음행을 완전히 여읨으로써 항상 번뇌와 욕망에 물들지 않는 '범행(梵行)'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에서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계이지만, 재가자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음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이다. 이 계율은 인간이 빠져들기 쉽고 부정한 과보를 낳는 관능적인 쾌락을 절제하여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고 욕망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깊은 업장과 번뇌의 세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식욕도 본능, 음행도 본능, 명예욕도 본능'이라 하면서, 탐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핑계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버려둔다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밝은 지혜를 등진 채, 무명심에 바탕을 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은 결과적으로 어둡고 추한 업장만을 길러낼 뿐이다. 탐욕심이 잘 살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라 하여 아무런 절제없이 무한정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불의까지도 서슴지 않는 추한 존재로 돌변하여 버린다. 비도덕적인 부정한 행위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탐욕의 굴레로 얽어매고 가리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음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무시되면서 절제를 모르는 쾌락 추구의 삶으로 곤두박질치듯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최근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적이고도 파렴치한 행태는 실망과 분노와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감각적 쾌락을 찾기에 급급한 현대인은 허약하고 모호한 도덕적 기반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존엄성마저 희생시키면서 무분별한 쾌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은 꿀을 탐한 나머지 꿀단지 속에 빠져 죽는 개미의 꼴과 다름이 없다. 진정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재가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 속에 "사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포함된 것이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윤락녀 또는 남의 아내와 분별없이 놀아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유방이 팽팽한 젊은 여자에게 미쳐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런 남성은 결국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다른 이에게 항상 비난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진다고 〈법구경〉은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음의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이는 어떠한 응보를 받게 될까? 〈화엄경〉「십지품」에서는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에 떨어지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음을 행한 과보로 복을 깎아내리고 주위 사람의 존경을 잃으며, 병을 얻거나 신용을 잃고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목격하는 바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물질화는 인간의 존귀함이 망각된 성의 상품화를 부추겼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의 노리개가 되어 금전으로 매매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절제와 여과없이 쏟아지는 성의 상품화, 포르노 등 음란물의 범람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요하고 있는 세태에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는 말은 자칫 공허한 잠꼬대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사음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원을 세워보자.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야기하는 고통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길러 각 개인, 부부, 가족, 사회의 순결성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서원한다. 사랑과 책임감 없이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나와 남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과 다른 이의 책임을 존중할 것을 서원한다.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성적 학대에서 지킬 것을 서원하며, 부부와 가족이 성적 방종으로 헤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세운 '원' 바꾸지 마세요

법회중계

지장재일

〈2000년 5월 21일〉



성원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잠념·미움·망상 등 기도중 생기는 장애 이겨내면 희열 느껴

오늘은 일요일이자 지장재일입니다. 일요일은 1주일 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고 밀린 일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일요일을 눈여겨 보게되면 한가함보다는 바쁘고 분주하다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또 요즈음 사람들은 바쁘면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 주변까지 분주하게 만듭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선 내 자신을 반성해 보면 조그만 일에도 바쁘다는 재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기도나 제사까지도 바쁘게 치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바쁘게 하는 기도는 정신집중이 안될 뿐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정신이 없어 가피를 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못 꿰어 쓰듯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할만큼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왕삼매론〉의 경전 말씀에 의지해 열심히 기도하길 권합니다.

'지장기도 4천일 회향'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오늘같이 지장재일에 만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장재일이란, 지장보살님 때문에 생긴 날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중생을 다 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보살로 남아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분입니다. 이렇듯 모든 기도에는 지장보살님처럼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을 세우되 그 원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말고 평상시 신심을 내서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잡념과 사념 등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보면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도 일게 되는 게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장애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고혈압과 심장병에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참다보니 병이 나기도 합니다만, 그 속에서 깨달은 스스로의 생각은 사람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일 고비'입니다. 미움, 증오, 싸움 등의 사념들을 참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장애는 그 장애 속에서 보리도를 성취한다'는 말처럼, 기도 중에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장애를 많이 극복하다보면 면역이 생겨 한결 여유로워 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는 말처럼 기도 속에 장애를 극복한 후의 쾌감 즉 희열과 환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급한 마음과 장애로 기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짬을 내어 자신과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과 날짜를 지키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공부가 되는 줄 모르게 공부가 되며, 기도가 되는 줄 모르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할때는 또 수행하는 선지식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할때 장애가 생기면 기도에 오히려 혼선이 올 경우가 생기므로, 선지식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선이 앉아서 하는 것은 물론 서서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 모두를 지칭하듯이, 기도 역시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념으로 생각이 기도에 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 생각됩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정진을 게을리 한 불자들은 지장재일인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져먹고 정진을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정진하시고 지장재일 오늘은 참 좋은날 되시길 발원합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매화마을서 자비·화합정신 배워

세계의 불교학 〈20〉 프랑스 ③

학자들 틱낙한 스님 방문 설법들어

연구점검하고 타종교와 대화 기회



◇프랑스 보드로 지방에 세워진 매화마을(Plum Village)에서 대중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프랑스 불자들.

프랑스 불교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행처를 꼽자면 단연 틱낙한 스님의 매화 마을(Plum Village)다. 이 곳은 프랑스 보드로 지방에서 자동차를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40여 명의 스님이 선방, 설법전, 공양간,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불교학자들이 이 곳을 찾는 것은, 최고의 수행처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수행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매력 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로 이민 온 불자들에게서 다른 교리와 수행을 생생하게 보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프랑스 불교학계는 유럽 불교계처럼 서양 우월주의나 신적 개념에서 불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프랑스 불교학은 주로 남방계 경전의 편집과 번역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다른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인색한 나머지 연구의 포괄성을 잃고 또 연구의 중복과 오류를 범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매화 마을에서 학자들이 아시아계 이주민들에게서 보고들은 새로운 연구 재료들은, 그들의 연구 태도의 변화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셈이다. 변화란 바로 불교를 알기 전에 아시아를 바로 보자는 것이다.

매화 마을는 매일 아침 베트남어와 영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참선과 기도 그리고 설법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수행 도량이다. 이중 이 곳을 찾은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은, 틱낙한 스님의 설법과 행선(Walking Meditation) 지도, 설법은 베트남어로 한 시간 정도 있는데, 영어와 불어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다.

"승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나의 고통이 승가의 고통이다. 승가는 깨달음을 향해서 실천해야 하며 함께 아름답게 핀 들의 꽃처럼 이해, 사랑, 화합하고 돌보면서 자라야 한다. 산은 부처님, 어머니이고 물은 중생, 자식으로서 산은 언제나 흐르고 떠나는 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부처님은 항상 중생이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틱낙한 스님의 이 설법은 분파와 갈등 속에 있는 대중들을 위한 평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보수파와 진보파, 늙은이와 젊은이, 출가자와 재가자 등 많은 이름 하에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이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름과 형식을 벗고 깨달음과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프랑스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들아보고 다른 불교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타종교와의 협력과 사상 논쟁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1992년부터 매화 마을에 '불교의 체계적 연구' 과정이 개설돼,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행도량에 서점과 도서관이 생기고 또 컴퓨터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베트남어 경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역경 프로그램과, 베트남 난민들을 돕는 원조 프로그램도 각각 진행되고 있다.

매화 마을의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다른 불교는 물론 종교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연관 학문 내의 불교 주제 연구와 자연과학의 합리적·이성적·실증적 사상과 불교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질 전망이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회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여화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을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낮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틀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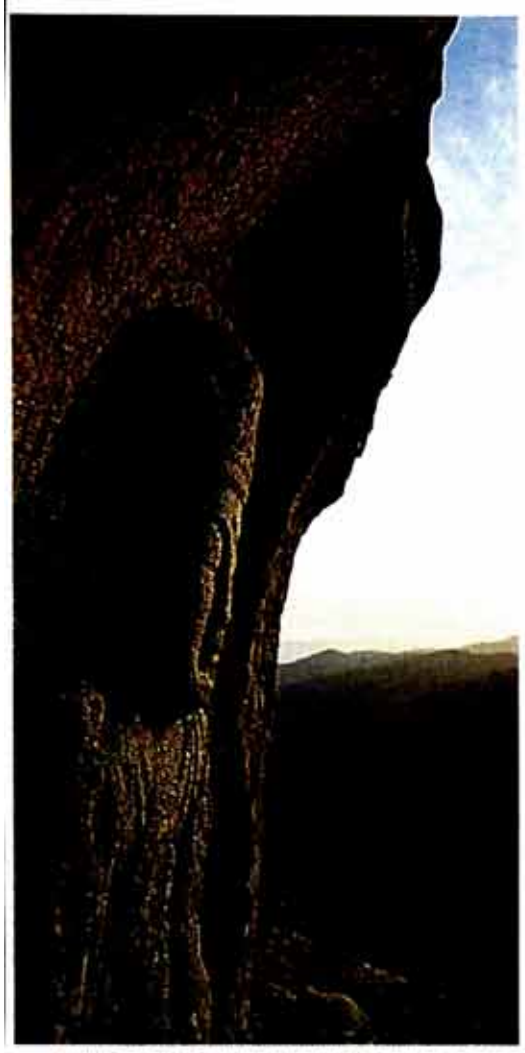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시방세계

장업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철 이정표
전철고등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철 안전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화재안정 포맥스
사철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며 본사 작업 사철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cm×30cm)



◇남산 돌부처들은 빛과 시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현현한다. 사진은 일출 때의 신선암 마애보살 유희좌상.



◇남산 지킴이를 자부하는 남산연구소 사람들은 불보살의 천당인 남산의 유적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틈만 나면 산을 오른다.

경주 남산
멀리서 바라볼땐
바위산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석불·석탑·절터…
불국의 세계

경주 남산연구소 사람들
www.kjnamsan.com

"부처님 만나러 남산에 간다"

매월 보름전후 토요일

남산 달빛기행

달빛을 등불로 삼아 남산을 오르는 것도 남산 산행의 또 다른 묘미이다. 남산연구소 남산사랑 모임에서는 남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매월 보름을 맞는 토요일 저녁, 남산 달빛기행을 떠난다. 청명한 보름 달빛 아래서 남산의 부처님의 미소를 만끽하는 남산 달빛기행은 세간에 찌든 모든 번뇌를 놓아 버리고 누구나 선의 삼매경에 빠지게 한다. 또한 차(茶)와 구수한 우리가락으로 남산 속에서 걸쳐지는 회향 한마당은 달밤의 정취에 즉 젖어들게 한다.

남산 달빛기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준비물은 특별히 없다. 그 대신 남산사랑모임에서는 "노래나 시(詩)를 한 보따리씩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다. 회비는 1년에 1만원이다. 이는 매월 엽서로 남산 달빛기행 안내문을 보내는 발송비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산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경주남산(www.kjnamsan.com)'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0561-773-8079)

한편 경주의 신라사람들(0561-748-7707)과 정토법당(0561-772-1950)에서도 매월 음력 보름을 전후해 달빛기행을 하며, 신라문화원은 1년에 2번 마련한다.



◇용장골 삼층석탑

천년 전 불국토를 향한 석공들의 비원으로 바위 속에서 태어난 남산의 돌부처. 그 부처님들은 동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봄그스름한 미소를 지으며 깨어난다. 그리고 하루종일 빛과 시간에 따라 수만가지 모습으로 현현한다. 남산을 '부처의 땅'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남산의 신비를 모른다면 남산 산행은 조각품 감상이나 산길을 걷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남산 지킴이'를 자부하는 경주 남산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탑골 부처바위 마애조상군(보물 201호)을 찾았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무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협시불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깨어진 것 같습니다." 마애불 우측의 범상치 않은 부분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덧어놓는다.

10여분이 지났을까. "여기를 보십시오"하는 흥분된 목소리가 일행들의 발길을 잡아챈다. 비천상의 모습이다. "저렇게 확연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생동적입니다. 빛과 비천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수없이 찾아 뵌 부처님이건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남산은 언제나 새로운 산이다.

남산지킴이 10명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경주 남산연구소는 남산 안내, 불적 발굴 및 보호, 그리고 토론회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남산연구소 실장 김구석(48) 씨는 연구소 설립의 주역이다. 고등학교 시절인 69년 남산을 처음 찾은 그는 30여 년을 남산과 함께 하고 있다. 천년 전 석공이 바위 속 부처님을 찾아냈다면, 그는 이 부처님들을 세상 속으로 나투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남산 관련 책자에 실린 사진들이 대부분 그의 작품일 정도이다. 그는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산행안내 500여 회, 남산 슬라이드 강연 100여 회, 그리고 사진전도 열었다. 이 밖에도 남산문화유산 강좌 등 남산을 위한 그의 활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가 남산을 향해 내뿜는 열정은 강수복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고도 대학원에서 남산연구를 하는 학생으로 되돌아갈 정도이다. 그는 남산을 '법열의 저장고'라고 말한다. "태양광선에 따라 불상전체를 감싸고 타오르는 법열은 금방이라도 세상의 모든 욕정을 태워버릴듯 뜨겁습니다. 수많은 불보살의 법열이 가득한 남산은 법열의 저장고이자, 부처님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지요."



◇칠불암 마애불상

남산연구회에는 지도위원 1명, 부실장 1명, 그리고 연구위원 6명이 있다. 그 가운데 연구위원을 맞고 있는 신라중학교 송재중(55) 교사는 80년대 초 대전에서 경주로 직장을 옮기면서 뒤늦게 남산과 인연을 맺었다. 남산과의 인연은 10여 년 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는 남산을 머리 속에 넣고 다닌다. 88년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 남산 유적의 모든 것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경주남산지도'와 10년간에 걸쳐 완성한 '경주문화유적전도'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지도를 손에 쥔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남산의 법향이 배어나고, 부처님이 살아 있는 듯하다'는 말을 내뱉곤 한다. 그는 요즘도 남산의 돌 하나, 기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연구위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사람이 바로 김덕수(48) 씨. 부처님마을 초대촌장, 남산사랑모임 초대회장, 현 농협불자회 회장이라는 하나같이 '돈 안되는(?)' 직함만으로도 그의 진면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인들이 남산의 바위와 숲을 부처님의 몸처럼 여기고 불보살상을 조각했듯이 그도 남산을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여기며 남산을 오른다. 그의 불심과 남산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남산이 경주시만의 것만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남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

남산연구소는 인터넷 사이트 '경주남산(www.kjnamsan.com)'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절터 130여곳, 석불과 마애불 100여기, 석탑 70여기, 석등 20여기 등 남산의 모든 유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남산 축소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사이트에 실린 사진들은 대부분 경주시 박물관 학예연구원이면서 문화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윤(37) 씨의 작품이다. 또 각종 문헌 기록 정리는 경주대 이근직(37) 교수가, 문화재적 접근은 계림고등학교교사 최민희(48) 씨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김성범(47) 씨, 그리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연구원 김호상(35) 씨가 맡고 있다. 이밖에도 남산 안내는 부실장 최광복(31) 씨의 몫이다.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남산 이야기만 나오면 신바람이 나는 남산연구소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남산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바위가 많은 광법한 산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불국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며 "남산 산행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여행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남산에 오를 때도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돌 조각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분신이자 깨침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주 남산은 지상에 펼쳐진 불국의 세계로 불린다. 하지만 그 불국의 세계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깨치려는 열원과 의지, 그리고 신심을 갖춘 사람에게는 성산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광법한 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남산은 천년을 이어왔고, 또 천년을 이어갈 것이다.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제품가격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선가격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금비누 (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제품가격
▶1 개 당 : 15,000원
▶100개 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①

惠可問曰
혜가문왈
若有人 志求佛道
약유인 지구불도
當修何法 最爲省要
당수하법 최위성요
師答曰
사답왈
唯觀心一法
유관심일법
摠攝諸行 名爲最要
총섭제행 명위최요
問曰
문왈
云何一法 摠攝諸行
운하일법 총섭제행

혜가가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긴요합니까?"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오직 마음을' 관(觀)하는 한 법이 모든 행(行)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단하고 요긴한 것이라 한다."

물었다. "어째서 한 법이 모든 행을 거두어 들인다고 합니까?"

알면 만 가지 행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나 꽃이나 열매는 모두 뿌리가 근본이다. 나무를 가꾸려면 뿌리를 북돋워야 살아날 것이고, 나무를 없애려면 그 뿌리를 베어버리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고 도를 닦으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힘만 허비할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악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구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又問曰
우문왈
云何觀心 稱之爲了
운하관심 칭지위료
答曰 菩薩摩訶薩
답왈 보살마하살
行深般若波羅密多時
행심반야바라밀다시
了四大五蘊 本空無我
요사대오온 본공무아
了見自心起用 有二種差別
요견자심기용 유이종차별
云何爲二 一者淨心 二者染心

"오직 마음을 觀하는 한 법이 모든 行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

師答曰
사답왈
心者萬法之根本也
심자만법지근본야
一切諸法 唯心所生
일체제법 유심소생
若能了心 萬行俱備
약능료심 만행구비
猶如大樹 所有枝條
유여대수 소유지조
及諸花菓 皆悉因根
급제화과 개실인근
栽樹者 存根而始生
재수자 존근이시생
伐樹者 去根而必死
벌수자 거근이필사
若了心修道則 省功而易成
약료심수도즉 성공이이성
若不了心而修道 乃費功而無益
약불료심이수도 내비공이무익
故知一切善惡 皆由自心
고지일체선악 개유자심
心外別求 終無是處
심외별구종무시처

운하위이 일자정심 이자염심
其淨心者 卽是無漏眞如之心
기정심자 즉시무루진여지심
其染心者 卽是有漏無明之心
기염심자 즉시유루무명지심
此二種心 自然本來俱有
차이자심 자연본래구유
雖假緣和合 互不相生
수가연화합 호불상생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또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관해야 알았다고 합니까?"

대답했다.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오온(四大五蘊:몸의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사대라 하고, 육신과 정신작용을 오온이라 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없음을 알며, 또 자기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물든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眞如)의 마음이요, 물든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무명(無明)의 마음이다. 이 두가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어 비록 인연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서로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법흥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不能見如來)"

한국불교를 빛낸 역대 조사들의 서릿발 같은 기개가 곳곳에 감돌며 구도의 길을 비쳐주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 송광사 화엄전으로 법흥(法興)스님을 뵈러갔을때, 스님은 '목우산방(牧牛山房)' 현판이 붙은 방에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쓰고 계셨다. 스님은 '야보송' 등 글씨 십여장을 더 쓰시고는 그 뜻을 자상하게 설명까지 해 주신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과 경구휘호 등 법보시를 즐겨하시는 법흥스님은 "나 라는 육신은 다생겁래 익힌 습기가 두텁고 탐심과 진심, 치심 삼독의 번뇌가 끼었으니 이 번뇌가 다 녹아없어져 맑은 명경지수가 될 때까지 일념으로 닦을 것"을 강조하시며 은사 효봉스님과 사형 구산스님의 생전 수행 일화를 누차 말씀하셨다.

"번뇌 녹을때까지 일념으로"

—스님의 은사이신 효봉스님은 38살에 출가하신, 늦깎이신데 수행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은사스님을 늘 그리워하며 수행의 귀감으로 삼고 계신데 효봉스님의 수행을 들려 주십시오.

▲효봉스님은 38살에 중 되어 12년만에 송광사 가서 조실했는데 그러한 사람은 만 명에 하나나 될까 말까예요.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을 8년동안 계속했지요. 스님은 금강산에서 안거에 들어갈 때 미리 대중스님들의 양해를 얻었지요. "저는 늦게 입산하다 보니까 한가하게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묵언을 하면서 입선과 방선 경행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지요. 스님들이 1시간동안 정진하면 10분 포행하게 되어 있는데 효봉스님은 그것도 안한다 했어요. 해제하면 걸망메고 다 만행가는데 효봉스님은 해제 결제도 안 했어요. 계속해서 8년 장좌불와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정진을 무섭게 했지요.

구산스님 역시 돌위에서 잠자고 미숫가루만 먹고 무섭게 정진했습니다. 먹을게 없을 때는 30리 밖 동네 탁발을 나가 그걸 끓여 잡수면서 장좌불와로 도를 깨쳤지요. 구산스님은 오래된 큰 절이나 돈이 많이 나오는 절은 정기가 빠져서 시원치 않대요. 새 터가 수행에 좋다는 의미에서 1년에 토굴 하나씩 지어 살며 수행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직접 지게로 짐을 지고 나무를 베어 서까래를 만들고 벽을 바르고 구들장을 손수 내가며 토굴을 짓고 밤에는 장좌불와를 해가며 도를 닦았습니다. 구산 스님이 도 닦다가 호랑이 본 이야기도 하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했답니다.

—불자들중에는 절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왜 불교를 믿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고를 허탈하고 성불하는데 있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자력으로 닦아 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중생들은 누구나 생사에 매여있어요. 생사에 매여있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걸 알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고 오는 것을 깨달아 생사에 매이지 않고 가고 오는 것을 임의로 자재하려고 참선하는 것이지요. 세상사람들은 적자생존의 지배하에 부모님 모시고 아들 딸 공부시키며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생사에 매일 수 밖에 없어요. 예술가들은 미의 창조를 위해서, 정치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일하지만 이게 업(業)입니다. 하지만 인간존재의 근거나 생명실상을 모르고 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생사의 근원을 알게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게되며 물과 심의 체성을 알아서, 가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되어 어디 태어나는 것까지 알 수 있기에 참선을 하는 것이지요.

참선하다 보면 잡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효봉스님은 득력(得力)을 강조하셨어요. 득력이란 일체 선악시비에 내 맘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득력하면 견성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사에 끄달리다 보면 번뇌가 많아 일념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요? 또 재가불자들중 견성한 이를 보셨는지요?



- 1931년 충북 괴산 生
- 58년 고려대 국문과 졸업
-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74~77년 송광사 주지
- 84년 조계총림 송광사 유나
- 통도사 해인사 승광사 상원사 망월사 김룡사 등 제방선원서 안거
- 현재 송광사 화엄전에 주석
- 저서로 〈禪의 세계〉 〈戒律綱要〉 등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렸어요. 생활에 시달리고 잡사에 끄달린다고 환경탓을 하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의 모든 조사스님들은 다 되었어요. 물론 세속에선 견성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출가스님들도 주지 등 소임에 매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초삼스님 같은 이는 일체 소임을 안 살고 순전히 공부만 해요. 77세인데 직접 밥 지어 먹으면서 토굴에서 혼자 공부만 합니다. 철조망 쳐놓고 상좌도 못 들어오게 해요.

효봉스님이 그러셨지요. 평범하고 미혹한 범부가 부처되기가 그렇게 쉬우냐? 죽을 고비를 몇번씩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금강산 유점사에서 선방 살 때 일주일씩 하는 용맹정진을 한철 여섯번 하는 것을 효봉스님 혼자 경책을 다 보셨답니다. 그래 여섯 주를 계속 서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더래요. 그걸 이겨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근기입니까. 효봉스님이나 구산스님이나 늘 단전으로 호흡하니까 아랫배가 나왔어요. 단전으로 호흡을 해가지고 우주의 기를 받아쓰거든. 참선해 득력하면 오래 오래 호흡해 피로가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거기에 참선의 묘미가 있습니다.

효봉스님에게 화두 받은 이중에 백련화 보살이라고 있었어요.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포목 비단 장사하다 자기 살림살이 다 팔아 지리산 내원암에 토굴 지어 20년인가 참선에 몰두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한 소식 깨쳤거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젊어서 스님 될 것을." 했대요. 죽어서 화장하니까 정골사리가 다 나왔어요. 한번 깨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 참선해 한소식 하니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왜 헛 것을 쫓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 보살 뿐 아니라 친구 여섯명이 구산스님께 계발고 다 증 됐어요. 이처럼 재가인들도 열심히 참선하면 그 경지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신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혹에도 쉽사리 넘어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쉽게 끓고 금방 식는 냄비에 많이 비유하는데 국민들의 정신력 강화나 차분하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
② 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
③ 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 / 값 3,800원 /
⑤ 유마경 박용길 역 / 값 3,500원 /

작은경전 시리즈 ④ 묘법연화경 ⑥ 능엄경 ⑦ 부모은중경 · 지장경 ⑧ 금강경 ⑨ 백유경 ⑩ 대반열반경 ⑪ 숫타니파타 ⑫ 본생경 ⑬ 미륵경전 ⑭ 과거현재인과경 ⑮ 밀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낮선 포교당에서 일어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간

원욱스님의 포교당일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란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세상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이름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씨 슬픔과 기쁨……,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일상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 / 값 7,500원

원욱스님은 20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과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남 함양 안의 포교당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남탓 말고 주관 뚜렷하게 처신
십우도 단계처럼 부단히 정진"

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도 참선 문화가 보편화되었으면 합니다.

▲구산스님은 항상 강조하셨어요. "자네 늘 참선하게. 참선하면 목에다 칼을 갖다대도 눈 꿈쩍도 안 해. 그렇게 정신력이 강해져." 하셨습니다. 구산스님이 50년대 정화때 서울 가서 혈서만 6백장 썼어요.

요즘같이 경박하고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참선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중심이 잡히고 주관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 번뇌를 끊어서 이 마음을 깨쳐 부처되는 방편중 가장 빠른 길이 참선입니다. 다생겁래 업장습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돼요. 뼈를 깎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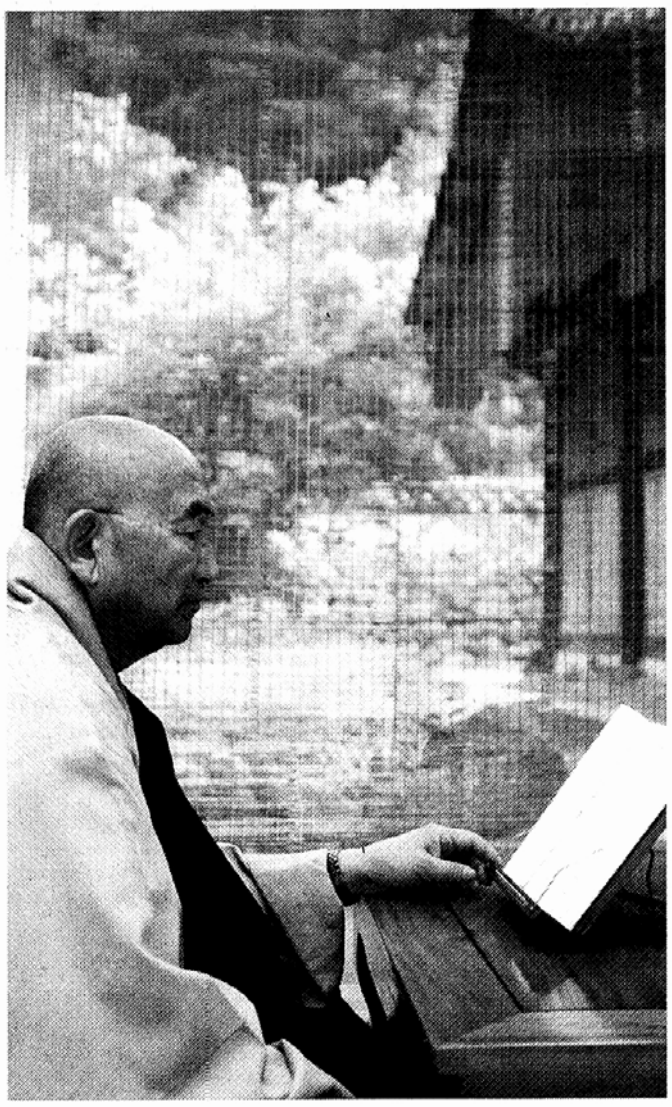
—일체가 내 마음의 산물이라 했습니다. 존재 방법의 근본이 마음이라 했는데 마음은 내 것이지만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토를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마음을 닦고, 쓰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흔히 절에 가 볼 수 있는 벽화가 '십우도(十牛圖)'입니다. 도 깨치는 단계를 10단계로 나누어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것인데 이 십우도처럼만 마음을 다스린다면 깨침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처음 공부 시작하는 단계를 심우(尋牛)라 그래요. 소 찾으러 나서는 것. 발심 단계지요. 그 다음이 견적(見跡). 소 발자국을 보는 것. 계율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참선해 소가 숨어있는 것을 보는 단계지요. 그리고 견우(見牛). 돈오점수에서는 소를 보았다고, 즉 깨쳤다고 다생겁래 습기가 다 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보림공부를 더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초입단계에서는 소를 잡아끌어도 소가 안 따라 올려고 해. 아직 번뇌망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공부가 덜 된 것이지요. 소가 말을 안 듣잖아. 득우(得牛)단계지요. 아직 번뇌가 남은 것. 소가 도망가려고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번뇌가 조복되지 않고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달아난다는 것이지. 다음이 목우(牧牛). 이제는 소가 스스로 사람을 따릅니다. 화두가 되는 것. 이른바 득력이 생긴 겁니다. 한국스님들 여기까지 가면 방장 할 수 있는거요.

다음이 기우귀가(騎牛歸家). 흰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망우존인(忘牛存人)에서는 소는 없고 사람만 있어. 강물을 건너갈 때 배가 필요하지만 강물 건너면 배가 필요없어. 견성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필요하지만 깨친 뒤에는 화두가 필요없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인우구망(人牛俱忘). 여기가 여행의 목적지, 처음출발한 때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칠지보살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이르면 신통력이 나오고 업이 붙지 못해. 모든 일이 무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업이 붙지 못해요. 깨치고 보니까 우주자연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지요. 여기가 성철스님이 말한 '산은 산 물은 물'의 경지지요.

내게 고조할아버지뻘 되는 용학스님은 그러한 단계에 든 분입니다. 3년후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 3년후엔 80인데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보다 더 살 것도 없고 덜 살 것도 없고 부처님처럼 2월 보름에 돌아가겠다". 안변 석왕사에서 66세에 통도사로 오는데 그 전날 주지가 꿈을 꾸는데 절의 신장님이 "내일 저녁 큰 스님이 한분 오니까 마중나가라"하더래요. 다음날 적멸보궁에 가니까 정말 한 노스님이 적멸보궁에서 절하고 있더래요. 1917년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에 그 스님이 생생하게 돌아다니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노장님은 돌아간다더니 뭘 돌아가 흉을 봤어. 노장님이 아침에 공양하시더니 머리 삭발하고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저녁 되니 열반종을 미리 치라고 하더래요. 자신만만하거든. 원래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종을 치게 돼 있어요. 용학큰스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용학스님을 뵈어야겠다고 천여명 대중이 모였어요. 스님이 법상에 앉아 "오늘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2월 보름이고, 내 나이 부처님 나이가 됐으니 더 살 필요도 없고 오늘 갑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바로 열반에 드셨어요.



◇법흥스님은 내생에도 또 비구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 공부 잘해 성불하게 해 달라고 원을 세워 기도하신다고.

어떤 학인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 석상대선스님이 대번에 답하기를 "봄날에 닭우는 소리가 불법이다." 학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재차 답변이 "가을에 개짖는 소리가 불법이다." 무슨 소리인지 엉뚱하고 알송달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두로 삼아 치열하게 참구해 보세요. 물도 마셔본 사람이 뜨겁고 찬 것을 아는 것처럼 그 경지를 스스로 공부해야 체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인이 조주스님에게 여쭈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를으니 너 진짜 부처를 묻느냐, 가짜 부처를 묻느냐. 학인이 다시 부처에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습니까 물으니, 부처에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가짜 부처이고 네가 진짜 부처다. 내가 눈으로 물건을 볼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있고 혀로 쓴 맛 단 맛을 볼 수 있고 바늘로 몸을 찔렀을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내 부처의 성품 아니냐 했어요. 절에 가 혹 '십우도'를 보게되면 자신의 수행 과정과 비교해 보아 단계단계 오를 수 있도록 부단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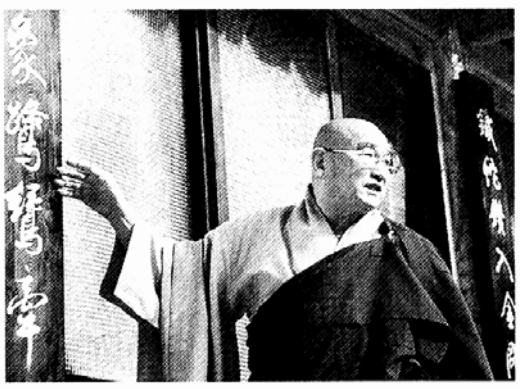
—스님은 평소, 다음 생에도 비구몸 받고 부처님법 만나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만 듣고도 금방 깨치신 육조스님 같은 분은 고불(古佛)의 후신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몇십년 닦아야 됩니다. 그래 금생에 안되니까 내생에 또 수행자로 태어나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이지요. 내 나이 지금 칠십인데 허리 꼬부라지고 참선하기 힘드니까 제발 내생에도 또 중으로 태어나 가지고 부처님법 만나서 성불하게 해 달라고 원을 세워 기도합니다.

우주생명의 원동력을 법성의 당체라 합니다.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불성이고 자성이고 진여라고도 하는 이것을 보려면 다생겁래의 번뇌를 녹일 수 있어야 하니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스님이 되어 절밥만 축내고 깨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으면 그것처럼 후회되고 한탄스러운 일이 없지요.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철저한 수행으로 다생겁래 익힌 습기를 녹여야 자성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법흥스님.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③

스님의 필치는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능숙하시다. 나는 편지를 받아보고 글을 쓴 이의 체격과 성격을 판단함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듯한데, 글씨 모양에 따라 신장이 드러나는 것 같다. 키가 훌쩍 큰 이는 의외로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쓰고 반대로 키가 작은 이는 큼직하게 글씨를 쓴다.

또한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대가(大家)의 글씨는 유연하다. 말하자면 법정스님의 필치도 여기에 속한다. 스님은 대체로 작은 글씨를 유연하게 쓰신다.

이런 글씨를 받아보는 이는 평생 잊지 못하는 듯 하다. 그래서 스님의 옥서(玉書)에 사인을 받으려고,

"스님, 한 말씀 써 주셔요."

할 때에는, '한 말씀' 하고 쓰신다. 붓을 들고 가서는 점 하나라도 좋으니 찍어 달라고 조르면서 종이와 붓을 준비해 가면, 정말 '점 하나' 만을 찍고 멈추신다.

또 어떤 육덕이 좋은 노 보살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올리니 즉석에서 이렇게 작명을 하신다.

"우량모(優良母) 보살!"

"스님 한 말씀 써주셔요"
'한 말씀'이라고 쓰신다

체격이 튼튼한 아이의 튼튼한 어머니로 적합하기에 '우량모'로 지으신 것이다.

한번은 엽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엽서를 받은 보살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런 유언을 하였다고.

"부탁이 있소. 내 위패 옆에는 큰스님이 친필로 써서 보내주신 엽서를 놓아다오."

스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부터 다른 이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쓸 때에 더욱 조심스러워 졌다고 하신다.

외국여행을 하실 때에 합장주나 조그만 기념품을 챙겨서 간혹 나눠 드리는 일도 스님의 심경 변화가 있은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인도 여행에서 불자들을 만날 때에 나눠준 조그마한 보시품이 받는 이에게 마음의 큰 선물로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시고 떠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다.

휴게소가 가까워 졌을 때였다. 스님이 말씀을 꺼내신다.

"지묵 수좌, 초콜렛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영문을 모르고 대답한다.

"아니요, 먹고싶지 않아요."

또 스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않아?"

"아니요, 먹고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님이 잡수시고 싶을 때에 물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흔연히 대답한다.

"네에, 먹구 싶어요."

이러면 스님은 사오라고 해서 함께 잡수신다. 옛이야기에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서 이런 말을 먼저 하였다고 한다.

"동서, 노래해."

하고 옆의 동서 옆구리를 찔벅거렸다나.

마을에서는 할아버지가 떡을 자시고 싶을 때에,

"얘들아, 너희들 떡 먹고 싶지 않니?"

하고 괜히 손자들에게 물으신다. 이게 옛날 어르신네가 점잖하게 처신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어르신이 체신 머리 없이,

"무엇 무엇이 먹구 싶다."

하지는 않았는데 은근하면서도 점잖은 표현법이다.



그림 · 문병성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다.

불일암에서 공양주로 지낼 때였다. 객이 와 있을 때에 저녁밥을 지을지 말지 망설여진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객은 떠나지 않고 해서 어떻까 싶어 스님의 눈과 마주 친다. 이때였다. 스님은 정말 전광석화처럼 눈치를 번쩍 채고 한 말씀을 하신다.

"여기, 오늘밤에 달이 뜨면 달맞이꽃이 보기 좋아."

이 말씀은 객이 저녁을 드신다는 사인이다.

"가만있자, 불일암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이 말씀은 객을 보고 묻고 있지만 실은 공양주에게,

"이 객은 곧 내려 갈거야."

하는 말씀이시다. 아니나 다를까.

"한 30~40분 걸렸어요."

하고 객이 차를 훌쩍 마시고 떠날 채비를 한다. 그래도 객이 눈치가 없을 때에는,

"큰 절로 내려가는 길에 이 책을 잊지 말구 가져가."

한다거나 혹은,

"아, 주차장까지 30~40분 걸리지요?"

하며 떠나는 이야기로 계속 화제를 삼는다. 나는 이런 대화를 통해 금방 알 수가 있었다.

'풀씨파종 자원봉사자 긴급모집'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장마대비 풀씨 파종-

◈ 파종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 일 시 : 1차 - 2000년 6월 6일(화)
2차 - 2000년 6월 18일(일)
◈ 파종방법 : 지표파종
◈ 기대효과 : ① 장마대비 토양유실 방지 및 수질혼탁방지
② 생태계복원

▶ 행사동참방법 (풀씨 파종 자원봉사자)
◈ 집결일시 : 1차 - 2000년 6월 6일(화) 오전 6시 30분
2차 - 2000년 6월 18일(일) 오전 6시 30분
(서울도착예정시간 : 오후 8시)
◈ 집결장소 : 조계사 앞(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
◈ 준 비 물 : 각자 도시락 및 면장갑
◈ 풀씨를 뿌리는 사람들께는 녹색보리수 뺏지증정
◈ 신청 및 접수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중앙사무국 (T. 723-6258)
(신청자는 미리 불자연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 풀씨 후원방법
◈ 후원 할 풀씨 종류 : 안고초, 참싸리, 솔새, 비수리 (토종풀씨)
◈ 후원금액 : 5,000원(1인당 풀씨 1봉지(250g) 5,000원은 현지시세에 준함)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6-01-0398-323 예금주 자비불사
-생명의 풀씨 나누기-

문의전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T.02)723-6258
Buddhist Volunteer Association F.02)723-6257

2000년 제 1기 達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지부지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弘益이니
達磨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尊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治方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白常 禪師-

【특 전】
·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해외 법사 위촉 및 해외 활동지원
·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 각종 사찰 불사사업 지원

【해외지원】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까다)CAIOI카나다(알브타)

【국내지부지회 (대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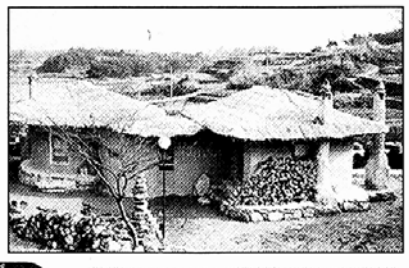
◆접 수 방 법: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 기 간 :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1차교육수련회비: 30만원
◆계 좌 번 호 :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 자기소개서,교육 수련회비, 입금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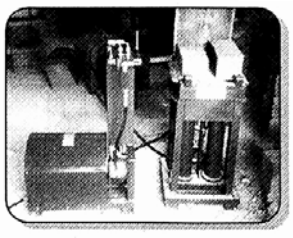
세계 상생운동연합 ioi 달마선원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신원사 중악단은 전체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유교의 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구성한 수법은 대가집의 주택형식, 그리고 본전 건물은 불교법당 형식이며, 본전의 지붕은 궁궐건물 같이 장식이 되어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명성황후 구국혼 깃든 산신당

신원사 중악단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28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한반도의 선조들은 고유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산에는 산신이 있고, 그들을 예배하는 산악숭배신앙이었다. 신라인들에 따르면, 그들의 국토는 다섯 개의 중요한 산이 있는데, 중악 부악산(현 팔공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동악 토함산, 그리고 서악 계룡산이었다.

불교가 한반도 전역에 퍼지면서, 고대의 중요한 산악들에는 당연히 명찰들이 건립된다. 그 장소들이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까닭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 신앙을 습합하여 민중적인 종교로 승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계룡산과 같이 이처럼 신성한 산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가람들이 자리잡게 된다.

계룡산에는 4대 사찰이 있었는데, 동쪽에 동학사, 서쪽에 갑사, 남쪽에 신원사,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북쪽에 구룡사가 그것이었다. 고대인들이 그들의 국토를 4방으로 나누어 산악을 신앙했듯이, 계룡산에도 동서남북에 사찰이 세워져 이상적인 불국토로 가꾸어진 것이다. 비단 계룡사 뿐 아니라, 팔공산, 토함산, 오대산, 지리산, 묘향산 등 이름난 산에는 모두 방위개념에 따라 사찰들을 질서있게 세워서, 산 자체를 가람들의 거대한 만다라로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행정구역상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한 신원사는 갑사나 동학사에 비해 덜 이름이 났지만, 가람을 둘러싼 자연 풍광만은 최고의 위치라 할 수 있다. 신원사는 651년 열반종의 개조인 고구려 보덕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지만,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대웅전 등쪽 50m 쯤 떨어져 있는 중악단 영역이다.

중악단은 계룡산의 산신을 모신 묘단으로서 원래 불교의 시설은 아니었다. 1394년 태조 이성계가 계룡단으로 창건하여 산신을 제사지내다가, 성리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던 효종(1615년) 때에, 미신 타파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다. 1876년 불교의 외호자였던 명성황후 민비의 후원으로 다시 재건되면서, 중악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울러 묘향산에는 상악단을, 지리산에는 하악단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중악단 뿐이다.

1394년 이성계가 창건
독립된 왕실건물 상징
儒·佛·民·官 건축미 응축

대웅전 영역은 남향으로 배치된 반면, 중악단 일곽은 남서향으로 자리 잡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웅전은 뒷산인 연천봉과 축을 일치시키고 있지만, 중악단은 더 멀리 있는 계룡주봉을 기준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곳이 산신당으로는 최고의 위치이며, 비록 신원사에서 관리는 하되, 독립된 왕실의 건축임을 상징하듯, 독자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중악단 일곽은 긴 사각형골로 담장을 두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지나 본전이 우뚝 서있다. 전체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유교의 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구성한 수법은 대가집의 주택형식, 그리고 본전 건물은 불교법당 형식이며, 본전의 지붕은 궁궐건물 같이 장식이 되어 있다. 최고의 민간신앙의 전당답게, 유불민관(儒佛民官)의 건축형식이 총망라된 독특한 건축물이다.

대문은 대가집에 있음직한 소슬대문 형식이고, 양쪽에는 부엌과 온돌방이 있어서 행랑채와 유사하다. 대문을 들어서면 중문채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의 조그마한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어 아늑한 공간을 마련한다. 3칸의 중문에는 사천왕상이 그려져 있어, 민간신앙이 불교화된 표징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천왕상 그림이 조정의 무신들과 같이 그려져 있어서, 이 건물이 왕실에 직속된 것임을 알시한다. 또한, 대문 옆에도 "왕실 직속관리와 높은 스님 외에는 모두 옆문을 이용하시오"라고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왕가 건축의 위엄을 높였다. 본존 마당 중앙에는 돌로 포장된 좁고 긴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고위 관료나 고승만이 통행할 수 있는 신도(神道)이다. 건물은 매우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고, 정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충만해 있다.

역사상 최고의 여걸인 명성황후는 다스려져가는 조선왕조의 운명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몰려와고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서, 그녀는 특히 고유의 산신들에게 의탁해 외세를 물리치려는 정성을 보였다. 이를 두고 명성황후를 마치 무당의 대장쯤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이들의 잘못이다. 신원사 중악단은 건축적 개성도 뛰어나지만, 이 나라 왕비의 애절한 염원이 스며있는 기념물이기도 하다.

"지구를 정토로" 참여불교 뜬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일상의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불자들의 신행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복신앙이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봉사와 사회적 회향이란 종교 본연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부재해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적지 않게 이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많은 불교단체에서는 수행-봉사-회향의 '참여불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의 구별도, 출·재가의 구분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삶과 수행, 사회적 회향을 통일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최근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봉사와 회향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 것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불교NGO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가연대는 △일상수행 프로그램 개발 △자원활동가와 사회봉사자 육성을 통한 신행혁신운동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 설정 △교단혁신을 활동과제로 삼고 있는 국내 및 국제 종교NGO와의 연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토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한국적 불교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재가연대의 '참여불교운동'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을 소개한다.

불교 NGO 勉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재가연대 — 한국적 참여불교 모델 개발

참여불교도국제연대 — 400여단체 인권·환경·여성운동

美 사회참여불교연맹 — 사회·정치·생태문제 관심

■참여불교도국제연대

참여불교도국제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는 1989년 2월 태국에서 태국의 승락 시바락사와 일본의 테루오 마루야마 주도로 11개국 26개 단체의 출·재가 불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33개국에서 400여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 모임의 목표는 참여불교의 비전을 개발하고 불교도간 또는 종교인들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며, 불교 또는 사회단체들의 정보제공과 INEB가 관계하는 지역에서 워크샵과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대안교육·비폭력운동·인권·환경·여성·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의 심성과 행동을 중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활동은 △Think Sangha(승가의 두뇌집단)를 통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항 개발작업 △미얀마 망명자 그룹에 대한 지원 △캄보디아 불자들을 위한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하는 공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사업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 △동남아시아 민중들의 지도력과 신심 개발, 문화적 보존을 위한 세미나 진행 등이다.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Sarvodaya Shramadana Movement, SSM)에서 '사르보다야'는 '모든 사람의 개달음', '슈라마다나'는 '노동의 나눔'을 의미. 1958년 앙가마게 투도르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이끄는 스리랑카 나린다 대학 학생들이 미개발된 마을에서 시작한 소박한 교육적 실험(농촌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아이아라트네는 도시출신 중산층 학생들이 가난한 마을에서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경험을 갖도록 도왔다. 1958년과 1966년 사이에 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농촌활동을 통해 대안적 개발을 추진하는 비정부기구로 발전, 스리랑카 전역의 1만1300개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지금까지 SSM이 이룩한 주거, 농사, 의료시설 등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지도력 고양, 여성들의 자아실현,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교육, 지역사회의 유대 등 질적인 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참여불교도연맹

사회참여불교도연맹(Buddhist Alliance for Social Engagement, BASE)은 불교평화우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BPF)의 혁신적인 불교수행 프로그램으로서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시작되어 그 기반을 보스턴, 볼더리프니아 등의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1978년 설립된 BPF는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류의 사회·정치·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단체.

불교 수행과 사회참여가 상호 결합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모델을 탐구하는 BASE 프로그램은 사회참여를 위한 행동강령 지원, 불교수행, 교육생간의 트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활동은 현대사회의 흐름과 참여불교의 근원에 대한 연구사업, 불교사상 연구와 수행, 일상생활에 불교수행 적용, 참가자들의 그룹활동(격주모임, 명상수행, 주말 산사수련) 등이다.



◇1989년 2월 태국에서 열린 참여불교도국제연대 창립회의 참석자들.

■사원공동체(United Buddhist Church)

틱낫한스님은 196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역압적인 베트남 디엠정권의 퇴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전쟁의 희생자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경화활동을 시작했다. 61년 대학교수, 학생들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를 조직해 시골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폭격으로 파괴가 된 마을을 재건하는 운동을 벌이자, 1000여명의 스님과 사회운동가가 동참했다.

1969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된 틱낫한스님은 프랑스에 사원공동체(United Buddhist Church)를 설립, 베트남전쟁 와중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운동과 강연활동을 펼쳤다. 이후 서양문명의 전반적인 현학함을 비판하며 부처님의 사상에 근거한 깨어있는 삶을 위한 공동체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다.

매년 전세계에서 수천명이 수행생활을 체험하는 UBC는 최근의 급속한 팽창으로 7개의 작은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9년 이후에는 '단풍나무 숲 사원'을 세우는 등 미국에서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틱낫한스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70여개에 이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기에는 "붙은 바 한 처의 아름다운 듯이 간직코자" 는 정신으로 시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1 전화 (02)737-6666 팩스 (02)737-6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열, 천한 사람, 대부호, 마낫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싱갈라경, 육아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모든 일 함이 없이 해야 잘 굴러가요

오늘 또 한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없이 항상 오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영원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조상들의 영령들뿐만 아니라 내 앞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전부 주인공 안에다 흡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 또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헤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살아나가는 데도 걸림이 없고 애로가 없게 되죠. 걸림이 없다 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통신이 돼서 공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걸림없이 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님네들도 신도들한테 꼭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공심·공생으로 사는법

이 하나하나가 너무도 살기가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뛰면 빠르고 느리게 뛰면 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뛰고 안뛰고가 없이 빠르게 생각하면 빠르고 이해가 안돼서 느리게 생각한다면 느린 거죠. 뭐든지 결정이 안나고 적응이 되지 않죠. 이해가 돼야 결정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넣는대로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 넣는대로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넣어도 넣어도 둘이 아니니 늘어나지 않는다. 또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다 집어넣으면 내한테서 우글거리고 집안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어넣어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체로 된다면 정말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럽단 얘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척 애를 쓰시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로 하지 않는다면 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봐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깐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이 되죠.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 경지가 참 많아서 법안, 혜안, 불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고 올라가시겠죠. 모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게 뭐냐하면 내 마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면 그 겨자씨 속에 일체제불이 다 들어가요. 그런 걸 다 이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쫓아 다니면서 모시고 받들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중생들도 다 넣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쥔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었다 또 꺼내서 풀어줘도 풀어준 사이가 없이 풀어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공법도리죠.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총에 맞아 죽었다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목을 매서 죽었다거나 이렇게 아무리 어려웁게 살고 악하게 살고 잘못 살고 이래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모든 거를 넣으면 그냥 바뀌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나가면서 모든 게 편안하게 사실려면 이 도리를 몰라서는 안됩니다. 지금 각 세계를 봐도 천주교나 기독교 또는 알라신교나 티벳불교 등 모두를 봐도 진짜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들어가서 자활을 하게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자활이라고 해도 화두를 갖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자활이 아닙니다. 화두는 내 모습이 벌써 화듭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일체제불도 일체 중생도 다 한꺼번에 공체로구나, 공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 쯤은 알아야 전체를 알게 되죠. 일하시는 것도 때로는 이쪽으로 들어갈 걸 저쪽으로 들어가니깐 참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도 골수를 찾아서 잘 들어가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기가 쑥 빠지고 자기 주인공을 내세우면 옳게 들어가게끔 다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이런 말만 자꾸 한다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아닌다면 나도 바다와 같고 여러분이 우물 안처럼 생각하시면 나도 우물 안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다로 탁 터져서 훨훨 턴다면 나도 훨훨 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그림 · 최주현

조상영령 · 이웃들
주인공 안에 흡수하면
둘 아니게 공생하게 돼
걸림없고 평안해져요

한치도 못나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 정신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경전 뜻으로 이해를

귀신이나 선신이나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지 누가 문 찾아서 들어옵니까?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고 천정을 통해서 그냥 들어옵니다. 선신은 그렇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문을 찾아서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런 도리를 안다면 문을 찾든지 벽을 찾든지 상관이 없죠. 만약에 바깥에서 10명이 들어온다면 나도 안에서 10명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깐요. 모습을 바꿔서 그 사람에 대치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화해서 말이죠. 이게 말이니깐 그렇지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어떻게 해야만 될런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실험을 해 볼래도 남을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다치게 하기 싫어서 내 모습으로만 자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상당히 고달팠습니다.

어느 신도가 점을 보러 가니깐 그러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봐 주구선 그 사람만 나중에 따로 불러서는 "댁에는 위에서 부처님이 다 보시는데 뭣하러 점을 치러 왔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혼나니깐 제발 좀 가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이게 말 자체는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제일 뜨거운 겁니다.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실험 다 해 봤습니다. 내 몸뚱이를 막 뒹굴려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만약에 몸뚱이를 몸뚱이 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게 살다가 그냥 옷 벗으면 될 것을 그렇게 괴로웁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테 어떤 뭐가 오더라도 그건 실험으로 생각하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거나 한다면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깐 말입니다.

내가 누구더러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선 내가 한번 해 보니깐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도 가겠다, 무꾸리쟁이한테도 가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게 있다는 거는 알지만 "너만이 너를 고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런데가" 하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래도 수술을 할 거는 하고 하지 않을 건 안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거나 할 거나 다 송두리째 가서 수술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무척 심하고 몸살이 크게 났으니까 진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진찰을 하다 보니깐 큰 병이 있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겁이 덜컥 나는데 이 도리를 공부한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볼 점이 있을텐데 공부도 안했고 일가친척중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무 얘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몰라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서 결국은 못나오고 죽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멀쩡히 걸어 들어가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을 사람은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도 차가 이쪽으로 와서 다쳐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에 치어 갑자기 죽은 영혼이 정신없이 뛰다가 얼마쯤 가다 보니 이상하거든요. 다시 자기 육체 있는데로 오니깐 육체가 이미 없어졌더랍니다. 그런 거를 수차에 봤어요.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아무 모습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라도 닥치면. 그러면 그게 벌써 그 도릴 모르니깐 들어와서 거기서 차 사고가 나게 만드니깐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건 저절로 병이 생긴 거죠.

영계성여라는 것도 이런 데서도 생기고 저런 데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꼭 내 친척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지간에 생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도리는 진짜로 아셔서 실험해 보시고 자꾸 자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거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이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절이든지 사찰은 많으나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그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절에 아무도 없더라. 사찰은 참 좋은데 그 절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러거든요. 그래 정말 아무도 없다는 줄 알았더니요 스님네들은 여러 스님네들이 계신데 아무도 없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만 딴 사람은 알아 듣지 못할 수도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깐요. 그 스님이 알아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건지 또는 부처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모르니깐요. 하여튼 오늘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질문1: 저는 포항지원의 정인화입니다. 큰스님,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런 법문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각자의 차원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그릇의 크기와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져 큰스님의 법문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스님: 내가 법문을 할 때에 그대로 담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해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이 진리와 틀리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법문하는대로 그대로 한다면 막말로 한다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서 흉내내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아, 앵무새? 허허허 허허. 앵무새밖에 더 돼요? 그러니깐 그 법문이 어떤 내용인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댁에서 그 말의 뜻을 말할 수가 있죠. 부처님의 말씀도 경에서 읽는대로 그대로 읽으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앵무새 흉내내듯 하지 말고 네 소리 좀 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깐 그대로 그 말을 담지 마시고 그 뜻을 담으시란 얘깁니다. 그러면 댁의 게 되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한 사이가 없고 앞으로 한다는 말도 없고 했다는 말도 없다. 그러니깐 없는 것을 받아서 있는 대로 쓰되 함이 없이 써라 이런 겁니다.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쓰되 뜻으로 받아서 함이 없이 써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봉선사 월운 큰스님 능엄경 산림 대법회 안내

봉선사는 일찍이 한국불교 교학의 근본 도량으로서 故 운허 큰스님의 원력으로 팔만대장경 역경불사와 후학 양성은 물론 서울 인근의 불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장경 역경불사의 회향을 준비하고, 능엄학림을 통해 도제 양성의 교육 불사에 위법 망구하시고, 종단의 어른이시며 대강백이신 **월운 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장장 6개월에 걸친 능엄경 산림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감로와도 같은 큰스님의 능엄경 설법을 통해 불자로서 거듭나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 뜻 깊은 대법회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 재 : 2000년 6월 8일 (음 5월 7일)목요일 오후2시
▶회 향 : 2000년 11월30일(음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6개월간)
▶법회시간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총100시간)
▶장 소 : 봉선사 청풍루
▶동 참 금 : 매월 30,000원 (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봉선사 사무실 (☎ 0346-527-1951)
봉선사 교무국 (☎ 0346-527-1146)

※ 교 통 편 · 청량리 우체국 건너편에서 707좌석 광능내 하차
21번 의정부행 봉선사입구 하차
· 의정부 시장에서 21번→봉선사 입구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 선 사** 주 지 **변 월 운**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0년 6월 5일까지
◆개강일시: 2000년 6월 5일 오후 5시 정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둘로 보지 않고 살면 애고가 없어

☞ 15면에서 계속

라. 이렇게 한다 하더래도 내가 공했다는 걸 알면 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 게 없구나, 더블어 같이 했으니까 말입니다.

질문2: 울산지원에서 온 윤병국입니다. 오늘 본원 5층에 오면서 갑자기 본원 신도님들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당을 지어 놓고 지원신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인연에 대해서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공부한 지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했던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법회때마다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때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서원을 하면서도 걸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건 너무 불가능한 서원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제 스스로는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도 참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 직업이 교수입니다마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깊고 간절히 마음 내도록

그런데 이제 둘로 보지 않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업식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둘 아니게 보고 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 업식 그대로 화를 내면서 제자들을 대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거는 업을 짓는 것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둘 아니게 보면서 대할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자들에게 조그만 씨앗이라도 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제 스스로의 불성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서 제 자신에게 너무나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인과란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눈으로 보면 건질 중생이란게 아예 없기에 보살님들은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서원을 하실 수 있었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홍서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게 되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편 큰스님께서 지으신 '일체제불의 마음'이란 노래를 법회때마다 부르면서 이 노랫말이 부처님 진리의 핵심임을 차츰 이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을 올리자면 오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인 그 도리를 다시 한번 설해 주시고 이 도리를 가슴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큰스님께 법을 청합니다.

스님: 지금 학생들한테 화가 날땐 화나는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질문2: 그럴 때도 있고 안그럴 때도 있고요.

스님: 예. 그런데 말없이 그 모든 거를 거기에 관하구서 화가 날때도 함이 없이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거기다 관하고 하시면 함이 없이 하는 거란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함이 있다면 아이들 한테 언짢겠지만 함이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관하고 하시면 언짢지도 않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또 화를 안내고도 그냥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사홍서원의 그 문제도 걸릴게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이나 선이나 둘로 보지 말라, 둘로 보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만 젖는다면 그냥 굴러서 들어간단 얘기죠. 쏜살같이 말이예요. 지체도 없어요. 그냥,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거 보다도 알면서도 질문하고 모르면서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참 좋은 결과가 됩니다.

질문3: 큰스님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원영입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법체 보존하시길 간절히 관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선원에 계신 모든 스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등불이 되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하게 살게 해." "공을 알게 해"하고 관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공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나를 세우지 않게 해' 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있지만, 어느 틈에 내가 하고 있다 라든지 내가 하고 간다 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정말 공부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게 아니로구나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참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먼 하늘, 먼 산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큰스님 가르침대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를 넘기고 갑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큰스님 가르침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입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포항지원 법당 신축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관합니다. 불사에 큰 일꾼이 되게 하라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도반들과 더불어 진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점을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스님: 이게 불사를 하는 것도 말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내 가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것을 억지로 빚을 내서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되 진정한 그 뜻으로다가 그렇게 되게 할려고 노력하면 어디선가 나올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내 주시는 공법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식으로서 하는 도리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진정한 믿음과, 믿는 마음 속에서 앙금도 없다면 그냥 선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속에서 앙금도 없다면 집의 눈에서 이슬이 맺히지 않을거야.

질문3: 큰스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질문4(독일신도): 큰스님 앞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됨에 굉장히 감사올립니다. 삭막한 유럽에 독일지원을 개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독일대법회를 열어 주셔서 길을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드디어 한마음공부를 알게 되었음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 대법회를 처음에 준비하는 그 시간에 독일 신도회는 아직 미약한 힘이었습니다. 두분 스님의 원력 그리고 큰스님 주지스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광대한 원력밖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산은 마음이었고 한마음 주인공이 있다면 법회는 이끌어질 것이라는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신조이었습니다. 6개월동안의 대법회 준비동안 기간은 짧았지만 각자 깊은 신앙체험들이 모든 신도들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이 대법회에 몇 명이 올 것인지 저희들은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는 쑥 빠지고 자기 주인공 내세우면 일이 옳게 진행되죠

그리고 대법회가 결정이 난 후로 갑자기 여기 저기에서 알 수 없는 초종파적이고 인종을 초월한 많은 도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그리고 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왔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종교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다는 그런 장엄한 체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개신교를 믿었던 어느 장로님이 신문에 이러한 칼럼을 썼습니다.

생사윤회 벗어나는 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대행 큰스님이 바로 살아있는 화현불이시다'라고요. 그렇게 길을 찾던 많은 유럽의 영혼들에게 큰스님은 감로의 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망이 있었다면 큰스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독일 언어권 전체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큰스님은 유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법회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어느 스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문 방송 그리고 매스컴을 상대로 했을 때 저희들은 몇 기자가 올 것인지 기대를 하지 않고 정말 큰스님을 알아뵙는 그런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법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희들의 내면세계에 정확히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법회는 쉽게 열리는 법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신도님들과 스님들께서 큰 원력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한 둘만 오면 성공한다던 방송 신문기자들이 큰스님이 오실 때 쯤 많은 언론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타게스차이퉁' 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중앙지에서부터 큰스님을 전면으로 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기자들이 큰스님께 받았던 내면의 영감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스님께서 3일전에 드디어 독일에 도착을 하셨고 저희 지원의 전화통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세계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남을 저희들은 법회 시작 전후로부터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법회날, 하늘에서 물밀듯이 내리는 많은 유럽인들이 큰스님이 대법회장에 나타나시자마자 저절로 일어나서 합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법회장은 장엄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부처님이 현존하시는 성스러움으로 하늘과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법회에 모였던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두시간이 넘어가면 유럽인들이 술렁일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시간 넘어가는 법회동안 한 사람의 미동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한마음이 되어서 깊은 장엄의 법열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법회장을 떠나실 때 푸르기만 하던 독일의 여름하늘에 갑자기 순식간에 굵은 비가 법회장 주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분명히 살아계신 부처님이 무엇인가 크신 화현으로 보여주심을 모두 다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기를 내어서 더욱 마음공부에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스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 법회마다 큰스님 비디오 법문 통역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독일의 신도들이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마음공부를 만나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더불어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님, 저희들한테도 한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안양 본원의 법당에 일생에 한번 큰스님 모시고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복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많은 마음들과 더불어 한자리 하는 날이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 모든 종교도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리까마는 저희 가족은 저희 애기 아빠가 완전히 건강해서 대학병원에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스님 법체 강령하시고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의 눈으로 열어 주시길 삼가 감사 합장 올립니다.

스님: 이 공부는 제가끔들 자기 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영원히 세세생생을 생사의 윤회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돼요. 영원히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아빠가 되고 또 세세생생을 자유스럽게 살고 참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집안이 되길 바래요.

질문5: 울산에서는 요즈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수련원이란 곳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은 조그마한 방에 모여서 마음수련을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큰스님 법문집인 〈한마음 요전〉도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쉽게 견성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대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그런 말들에 많은 신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스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 저승길이라는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꼬부랑 꼬부랑하게 그냥 멀리 가는게 아닙니다. 속담에 말로 공부를 한 사람은 그냥 한 찰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뭐 며칠도 걸리고 몇백일도 걸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붙잡아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승길을 모든 걸 알아서 견성을 해서 성불을 하고 또 육바라밀의 모든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또는 공식을 할 수 있어서 구정토에 이르러서 즉 말하자면 아미타국토를 간다거나 하는 문제는 살아서 다 이렇게 화현이 돼야 되는 거지 살아서 공부한 거 없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모습을 여기 앉혀 놓고도 수십억개로 모습을 만들어서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길잡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말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부득이 잘못되는 일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두 자신에게다가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다가 그렇게 그려 놓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한테다 넣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 또 그것이 인제 길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다소 얼마씩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해로움이 많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죠.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럴 거 같으면 기복도 하는데 뭐 그까짓 거야 어때 이렇게 하겠지만 그만큼 길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쪽으로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중심을 잡지 못한 분들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이 그러지 저 나무뿌리처럼 자리를 완벽하게 딱 잡아 놨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일년을 사는 저 수수대도 바람이 불면 쓰러질까봐 미리 뿌리를 잘 박아서 튼튼하게 해 놓고선 바람이 불거나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도 패이지 않고 잘 익어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데요.

마음은 흔들림이 없게

수련을 잘 하는데 같으면 참 잘한다고 할텐데 그 가르치는 분도 주장자가 겨우 요렇게 생길락 말락하니 어떻게 제대로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3의 뭘 그려 놓고 한다는게 나는 마음에 안들거든요. 각자가 모두 자기 몸을 화두로 가지고 사는데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 몸이 화두지만 그 화두조차도 공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몸속 생명체들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물 한컵을 먹어도 먹은 사이가 없다고, 공해서 돌아가니 공식하고 돌아간다. 먹는 것만 공식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공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걸 해 놓고서 길잡이 노릇을 할 때 그 신도들이 만약에 절반이 잘못된다 또 절반은 그냥 하다가 만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보는 나로서는 진짜로 내가 부모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각자 주인공이 있으니 가다가 빠질 듯 하면 그래도 올려놔 주겠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누가 하셨는지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참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이 에너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좀 이런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고 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여자 남자를 둘로 보지 말고 여자 남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일 또는 지니고 계신 일 그런 것이 물질세계로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럴 때 거기다 정신계를 첨부해서 만들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죠, 조그만 거 하나가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리고도 남는대요. 그리고 영원히 먹고도 되남게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날 이런 공부를 해서 전자에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고생을 했으니 이젠 대대로 올라가면서, 절대로 올라가되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되 내려가는 것도 없이 생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자유스럽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위 법문은 2000년 4월 16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474-8228 /011)560-5968
(선착순 1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전의식
▶ 기본과정 : 도량석, 쇳송, 예경, 불공시식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다비의식, 제반의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의식, 바라무, 작법무, 특별의식 등
▣무료강좌
▶ 생활불교의식과정 : 예경, 통과의례, 고사, 불공 가정의례, 법회의식, 기도의식등
▶ 교육기간 : 3개월 ▶ 지방수강생 상담 환영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481-4482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91)755-6997/759-1514
016)612-9204

역학개인 전수
· 책없이 손으로 짚어내는 역학을 전수합니다.
· 간단하고 편리하게 손안에 숙지하여 중생의 옳은길을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를 얻는 스님이 잘 짚은 이 비전은 부처님 氣가 있어야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011-695-2320

易學 수강생
남녀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특별교재로 역학의 원리와 이치를 깨우쳐주는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도 하오며 역학의 성취는 인연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 포교원 운영하시는 스님, 보살님
※易學을 노력해도 완성이 안되는 분
※易學은 기본과정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 수강시간 : 4개월(주 5일 수강)
▶ 수 강 료 : 월 25만원 (교재일체 무료)
▶ 강의시간
오전 10:00시-12:00시(일 120분)
저녁 19:00시-21:00시 (일120분)
▶ 접 수: 2000년 6월 5일 - 10일
15:00(냉방완비)
萬佛 철학연수원
(구)침례병원 앞 성빌딩
☎051)469-1239/442-5712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수강생 모집
주역, 명리, 육효, 작명, 사주
진심으로 도를 연구하여
일생을 진리와 더불어 살며 진실한 사명감으로
역술에 대한 전수 공부를 원하시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00명
▶ 연 령 : 30세이하의 남녀
▶ 학 벌 : 고졸이상
우리절 해원정사 02)3143-0231~3

구인구직

철 학 (개인지도)
▶ 주역(六효)
1. 사주를 감정하다 벽에 부딪친분들
2.아무리 공부를해도 말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
3.기초는 없으나, 늘 배워보고 싶은분들
4.혼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
5.혼자 책을 봐서 지친분들
6.개업 하기위해 자신이 서지 않은분들
※ 노력여하에 따라 3~5개월 책임완성
02)887-2668/018)419-4167
고 운 처사

사찰에서 일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위 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사 찰 : 조계종 대흥사 백화암
※ 비구니스님 사찰입니다.
자녀, 식구 있어도 가능합니다.
0634)533-2810

모십니다
분사증인 사찰입니다
컴퓨터 가능하고 종무소에서 일보실분
1. 연 령 : 30~40세 미만 독신녀
2. 기도스님 비구니30~40세미만
※ 장난 전화 사절
백만 지장 영험도량 **천국사**
043)742-5966
011)469-796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3) 614-6249
011)9729-824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 자녀있는 사람 가능
011)
9912-8859

운전기사 구합니다
(대구서광사)
053)
981-7276

天然地 氣 探知機
(땅의 기운이 영험해야 인물이 난다)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태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수맥탐지기 1세트 증정)
전화주시면 팜플렛 우송
TEL.053)982-4976/011)813-3679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동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벙치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바로 잡습니다.
본지 270호 (5월 10일자)
八公山 冠峯 藥師庵 광고중
산천불 관세음보살상을
삼천불 관세음보살상으로
바로 잡습니다.

기타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 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3477-5336

인터넷 무료 직거래 생활정보
무료매매, 물물 교환, 지역별 공공정보, 구인구직, 부동산 매매, 분양, 중고 자동차 사찰부지 · 포교원 안내, 고미술품 매매 컴퓨터, 생활용품, 무료 게시판 운용
02) 2242-0331 / 2242-0255
www.memull.com

현대자동차 (주)
불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스님 · 불자님의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믿음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진천점
과장 원응 곽영순
011)509-9456/053)639-1100
(부재시 메모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사찰안내

암자교환 원함
◆ 위치 : 익산시 신용동 원대뒤 800미터
◆ 부지 : 등기필130평, 국유지 40평, 총 180평
◆ 임법당 10평, 주방9평, 큰방1, 차량진입, 부지 넓은 산속 암자와 교환원합니다.
◆ 가격 : 전세3천, 양도9천
0653) 853-1666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예산
◆부지 : 700평
◆건물 : 조립식45평
(법당15평 요사 30평)
◆가액 : 6천 5백만원
0458)333-1163

토굴 안내
◆ 위치 : 광양시 진월면
◆ 대지 : 140평현대식식당1 방3(임법당 포함)
◆ 천연암반수 물, 샷시, 보일러실 바닷가까지 10분거리
◆ 가격 : 3천 7백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
◆ 평수 : 70평
◆ 건평 : 약 60평내
(임법당 20평+공방실 16평 + 방5개), 화장실2개, 욕실2개
◆ 가격 : 8천만원
(전세4천 5백)
052)254-1929/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00평이상(국유지)
◆ 건물 : 건평28평, 임법당 방1, 주방, 욕실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청정도량임.
◆ 가격 : 월세가능(답사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874-019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토굴(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25평
임법당,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800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371) 763-6032
011)9792-2078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동두천
◇법당 : 15평
◇요사 : 47평
◇부지 : 600평
◇가액 : 8천5백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0502) 713-5634
청송기획 02) 998-1994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 부지 : 300평(년 28만원)
◆ 건물 : 법당 목조단청12평, 산신각 4평, 요사 13평(욕실2개)
◆ 가격 : 6000만원
017)705-65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선도산 무열왕릉옆
◆ 대지 : 105평, 골기와33평, 아래채10평
(현재사찰 운영중)
◆ 가격 : 1억 2천만원
0561)743-573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천보사 포교원
◆ 건물 : 1층 요사채 28평 주방10평, 2층법당 28평
◆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 시설이 완벽함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10만원시설비 답사후 결정
0417)577-1469/017)741-1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홍도동 72-27 3층 보현정사
◆ 평수 : 법당35평 중 주방, 상담실, 침실 삼존불 각 탱화, 종
◆ 가격 : 전세 2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42)627-5925/011)742-5925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빼어난 산새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오태민 합장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총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토굴(암자) 안내
◆ 위치 : 지리산 백운산등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섬진강이 굽어 들어오며 흘러감
◆ 대지 : 130평, 법당1개 요사채1개, 방4개, 보일러식
◆ 가격 : 4천 5백만원
0664)781-4898

토굴(터) 안내
◆ 위치 : 삼천포 와룡산
◆ 대지 : 임야 4500평 건평80평, 방10개
◆ 특징 : 산세 수려, 차량진입 가능
◆ 가격 : 상담후 결정
0591)746-2478
011)830-2880

사찰운영 안내
◆ 위치 : 서울, 등산로 약수터 입구
◆ 대지 : 65평, 법당25평(2층) 요사 50평(1층), 지하실 20평
◆ 특징 : 산밑, 시내 아파트 인접 마을버스 절 안내 간판
◆ 조건 : 정법포교하는 스님
0502)040-040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읍 소재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동 40평
◆ 가격 : 1억 7천만원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되십시다
동진불사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사찰 안내
◆위 치 : 경북 김천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이상) 법당28평(사무실포함), 산신각, 창고 주차장,요사채55평, 빙7개
◆특 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별장이나 기도처로 최적지 대형차량진입
◆가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 안내
◆ 위 치 : 구리시 교문동 664번지 불광사
◆ 대지 : 151평
◆ 건평 : 약 30평, 방2개 및 법당 약 15평, 거실, 목욕탕
◆ 가격 : 3억 7천만원
0346)562-6904
016)464-690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대지 : 430평 (등기필)
◆ 건물 : 1층 70평(법당20평) 2층 20평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 덕산온천옆
◆ 가격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458)337-6348

성폭력 심각… '부끄러운 남성들'

지도층 인사 부도덕성 '물의'
성추행 상담 매년 급증
"여성 경시 사회풍조 개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오직 수행의 기쁨 속에 살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한 친구가 책을 보내와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책을 보니 쥐가 표지를 갉아 먹었다. 그는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구하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암소를 구했다. 또 혼자 둘을 보기 힘들어 여자를 들이고 그녀를 위해 집을 지었다. 몇'년이 지나자 귀여운 아이가 생겼다. 더 이상 그는 수행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불교설화의 한 토막으로, 단 한 번의 사소한 집착이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들 역시 단 한 번의 탐욕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 더욱이 성추행이 일반은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性)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터져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은 일반 국민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전 총선연대 대변인이었던 장원씨와 이선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과 여조교를 성폭행한 교수, 여교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 환자를 추행한 의사 등 시민운동가에서 대학교수에까지 만연해 있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또 육체적 성폭력 외에도 직장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도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사회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직면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달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직장내 성추행 상담건수는 모두 586건으로 전년도의 340건에 비해 무려 7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부도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사회 특유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가장 큰 사회적 배경으로는 유교주의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남존여비 사상을 꼽을 수 있다. 여성을 인격체로 배려하지 않는 풍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만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영웅호색처럼 능력있는 남성일수록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경시하는 경향이 묵인돼 온 사회적 관행도 문제다.

또 학벌·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여성을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우리 사회의 룸살롱 문화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밤 질펀하게 벌어지는 접대문화는 근본적으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도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열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왕이 거동하면 신하가 뒤따르듯 애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미혹(迷惑)이 따른다.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꽃을 탐해 꽃밭에 들어가 꽃을 꺾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실 때 마왕 파순이 성도를 방해하고자 그 무기로 욕망을 동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정각을 얻었다. 욕망은 인간을 어떠한 악도 스스럼없이 자행하도록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얻어지는 기쁨 또한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국내 유통 약품 "12%만 약효"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 "국민건강 위협"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의 상당수가 약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2천5백여 품목에 대해 '약효 등등성시험'을 한 결과 12.1%인 296품목만이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우리가 약으로 알고 먹었던 '약'이 약이 아니라는 얘기여서 충격적이다. 실제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이 아니라 '독'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국민건강을 이 정도로 방치해왔는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약 아닌 약'을 계속 먹어야 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품목의 절반 가까이가 원제품을 복제한 제품들이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원제품이냐 복제제품이냐에 따라 값이 크게는 10배, 약효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정부가 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복제제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질 낮은 의약품이 판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처님은 종종 대의왕(大醫王)이라고 불리운다. 중생의 아픈 구석구석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었다. 이것을 대기설법 혹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한다. 이 처방을 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거나 건강하게 됐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이나 약을 찾는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나 약을 얻기 위해서다. 바로 부처님의 응병여약 처방을 찾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먹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아함경〉에 "약을 쓰는 것은 이익을 얻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병의 괴로움을 없애고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이다"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무늬만 약'인 약효없는 약을 모조리 뿌리뽑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바른 도리다.



"새만금 간척 중단"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전북도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황폐해진 어촌을 상징하는 폐선박을 이용해 이색 시위를 벌였다.

설문조사 핑계 '사기 조심'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할인행사 초청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특별할인 가격에 물품을 사도록 강매하는 사례가 올들어서만도 최근까지 70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또 기업홍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접근해 물품을 떠안겨 피해를 본 사례도 181건으로 계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유경〉의 "장사하면서 법답지 않은 일을 하면 미래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는 악덕 상도의의 과보를 사기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여성 흡연 늘고 있다

우리나라 18~19세 여성의 흡연률이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여성흡연이 크게 늘고 있다. 또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연령은 대학 시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18세 이상 남녀 1,466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90년 1%에도 미치지 못했던 18~19세 여성 흡연률이 올들어 9.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시작 연령은 대학생 연령인 19~24세가 55.3%로 가장 많았고 16~18세(고등학생) 24.1%, 15세 이하(중학생) 8.2% 등으로 나타났다.

시론

부모를 죽이는 사회

얼마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비를 죽인 아들은 정신질환자도 아니었고,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젊은이였다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생명 주고받은 인연인데

살해의 원인도 단지 부모가 미워서였다고 한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다. 유학까지 갔다온 부잣집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중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패륜적 행위가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타락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창 경
〈신구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돈에 파괴되는 인간성, 실종된 사회 윤리와 기강, 가정 교육의 부재 등 진단도 여러 가지였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하는 자탄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 또는 지도층의 성폭행문제 등에서 보듯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불감증이 그 수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되는 관계다.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숭고함이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떳떳한 도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없이 견고했던 것이다.

설령 배움이 부족하고 미천한 신분의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맡이라면 순종할 줄 알았고 나무라면 반성할 줄 알았다. 따끔한 회초리의 쓰린 아픔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설령 부모의 꾸지람이 조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합당치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모가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제 회초리는 꺾인 지 오래고, 가정의 무게 중심은 자식에게로 옮겨갔다. 가정의 행사는 아이들 중심이다. 할아버지 제사에는 빠질 수 있어도, 학원은 빠질 수 없다. 단것만을 먹어 본 자식은 그것을 먹이기 위해 부모가 먹어야했던 쓴 음식 맛을 모른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그만두고라도, 부족하면 부모를 원망한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부모 탓이고, 얼굴이 못난 것도 부모 탓이다. 급기야 자신을 왜 낳았느냐고 대든다.

무엇이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었을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천만원경품 춤경연대회'는 바로 이러한 실상을 그대로 말해준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천만원의 경품을 걸고 춤추기 시합을 벌이는데, 선발기준은 춤솜씨보다 누가 더 많이 벗느냐에 있다고 했다. 거기에 참가한 한 젊은이는 "도덕을 지키면 누가 돈을 주느냐"고 했다.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일까. 이 시대 일그러진 우리의 단면이다.

세종 때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자가 부모를 죽이는 패륜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 사실은 곧바로 조정에 알려지고 조정 중신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조정에서 논의된 중심내용은 이 사람을 어떻게 벌주고 처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흩어진 사회 기강을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도덕성 붕괴…패륜 속출

논의 끝에 세종은 지성으로 부모를 섬긴 효성스러운 인물을 선정하여 〈효행록〉이라는 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케 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그 효행 사실을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려 글을 모르는 사람까지 그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깊이 깨달아 효심이 우러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시절에는 잘못을 꾸짖을 사회적 기강이 서 있었고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곧은 선비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성 붕괴는 아래 위가 없는 세태다. 지금 세종 때 부모 자식간에 지침이 되었던 〈효행록〉을 읽으라고 내놓으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누구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기댈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의 철저한 성찰밖에 없는 비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차단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氣 인증서 획득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앞면 : 오인법사달마도

뒷면 : ①반야심경


뒷면 : ②사업번창부
부처님 오신날 천만불자 보시용품
(주) 골드타운은 불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뒷면 : ③차량안전부


뒷면 : ④시험합격대길부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

달마도 상반신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순금판크기 : 11×16㎝
표구액자크기 : 27×32㎝

달마도 전신상


앞면:달마도 뒷면:반야심경(外 3종)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의 함량과 제품의 품질에서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 20,000원, 소형(3×5㎝)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3×4㎝)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사진,글씨,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구매시 사은품증정!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연극 · 문화학교 · 예절교실 · 역사기행…

눈높이 새싹 포교프로 '눈길'

경주 신라문화원 운영

쉽고 재미있는 문화체험 통해 불교사상 자연스럽게 심어줘

새싹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주 신라문화원은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신나는 연극교실' '어린이 문화학교' '어린이 예절교실' '달빛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아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중 어린이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나는 연극교실'. 경주시립극단 송정현 씨가 지도를 맡은 이 프로그램은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를 매개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 발표력 등을 길러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 방식도 능동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화는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송 씨의 연극 지도 방식은 특이하다. 우선 송씨는 초등학교 1~3학년이 대부분인 연극교실 어린이들에게 막대기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지시한다. 잠시 후 어린이들의 스케치북엔 '우산', '골프채', '넥타이',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사물이 그려진다. 그러면 송씨는 각자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식 그림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완성되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나의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 발표하게 한 후, 등장인물의 성대묘사와 함께 연극에 필요한 대사와 발성 연습을 자연스럽게 시킨다.

경주지역 현직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4~6년 대상 '어린이 문화학교'는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경주지역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어린이…'는 답사에 앞서 교사들이 모여 학과 공부와 연결된 답사 교재를 편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교재에는 '무덤의 둘레가 자신의 걸음으로 얼마나 되는가' '석탑의 층 수는 어떻게 셀까' 등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넣는다. 그런 다음 교사들과 어린이들은 현장으로 가서 함께 고민하며 숙제를 풀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매월 25일 하루만 접수를 받는다.



◇신라문화원은 새싹불자들에게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연극, 예절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날짜를 기억해 놓았다가 먼저 신청할 정도다.

이외에도 5월27일부터 문을 연 '어린이 예절 교실'이 있다. 한국다도협회 김계연 경주지부장이 가르치고 있는 '예절교실'은 변질돼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 예절을 어린이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고자 마련됐다. 실습 위주로 교육되고 있는 '예절교실'은 △인사예절 △행다법 △주인과 손님 역할 해보기 △한복예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8월14일에는 황룡사터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제6회 달빛과 함께하는 신라역사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새싹불자의 포교는 우리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희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자칫 딱딱하게 여기기 쉬운 문화체험을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불교사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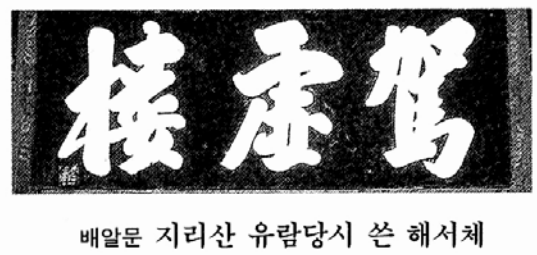
⑦ 창암의 태안사 · 대둔사 편액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1770~1845)은 호남칠고봉(湖南七高峯)의 한 사람으로 본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글씨에만 몰두해 평생을 곤궁하게 지낸 선비였다. 그는 글씨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점, 획 하나를 한 달씩이나 가르쳤다고 하며, 먹을 갈아 벼루 3개를 구멍내겠다는 결심으로 병중에도 매일 천자씩 쓸 정도로 충사 〈원통당〉 편액 등이 그의 글씨이다.

곡성 태안사 선원 구역 내에 있는 〈배알문〉 편액은 9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문을 개창한 혜철(惠哲) 선사의 부도탑 앞에 세워진 작은 문에 걸려 있다. 지리산 구룡계곡 옥룡추 근처 암벽에 '용호석문(龍湖石門)'이라는 창암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리산을 유람할 당시 절에 들러 쓴 글씨가 아닌가 싶다. 편액의 글씨는 그의 다른 글씨와는



◇태안사 선원 편액



◇대둔사 가허루 편액

배알문 지리산 유람당시 쓴 해서체
가허루 강건 · 의연한 선비정신 담겨

글씨 쓰기에 전념했다고 한다.

창암은 어린 시절 이광사의 글씨를 배웠으며 끝없는 노력을 통해 김정희도 탄복할 정도로 건유(健愈)한 필세를 특징으로 하는 창암체를 이뤄냈다. 또 여러 체의 글씨 가운데 특히 초서를 잘 썼다. 본래 정읍 사람으로 전주에 살았던 그는 해남 대둔사 〈가허루〉, 구례 천은사 〈회승당〉, 〈보제루〉, 전주 송광사 〈명부전〉, 곡성 태안사 〈배알문〉 편액 등 호남 일대의 사찰에 많은 글씨를 남겼으며, 이외에도 강화 전등사 〈원통각〉, 공주 동학사 〈동학사〉, 금산 보석사 〈대웅전〉, 밀양 표충사 〈원통당〉 편액 등이 그의 글씨이다.

창암 글씨의 특징은 강건(健勁)한 필획과 초솔(草率)한 서미를 지닌 해서이다.

해남 대둔사 〈가허루〉 편액은 천불전 입구에 자리한 단층 누문에 걸린 편액이다. 1815년 초의(草衣) 선사가 그와 함께 전주 한 벽당에서 시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 편액 역시 그 때를 전후하여 초의 선사와의 교분으로 인해 쓴 글씨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기굴한 맛은 없으나 선비의 의연한 심성이 엿보이는 강건(健勁)한 필획과 초솔(草率)한 서미를 지닌 해행(楷行)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조깅

조깅은 돈 들이지 않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무작정 뛰는 것보다 효과를 보면서 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효과적인 조깅법을 살펴보자.

▲횟수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운동강도에 따른 몸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 초보자라면 처음 3, 4주 동안은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빠른 걸음(또는 느린 조깅)으로 워밍업하고 원하는 스피드까지 달리는 순서로 진행한다.

▲올바른 자세

좋은 자세는 어깨를 뒤로 하고 머리를 올린 자세이다. 이때 팔과 손은 자유롭게 흔들어 준다. 또 발뒤꿈치가 땅에 닿게, 발 앞부분을 구부려 발바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엄지발가락을 밀어준다. 주의할 점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신발은 발가락이 끼지 않는 편한 것이 좋다.

일주일 3번이상 해야 효과
조깅후 대화할 정도면 적당

▲효과적인 조깅법

조깅을 마친 후에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을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강도로 트레이닝했다는 증거다. 이때 염두에 둘 것은 달린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다. 예를 들어 20분 안에 3~4km를 달려야 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얼마 만큼의 거리를 뛰었냐를 걱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루트의 변화를 주면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도전을 하려면 언덕이나, 경사진 곳을 추가한다. 경사에서 조깅할 때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상체를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조깅후 관리

조깅 후에는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한다. 또 조깅 후 근육에 아직 열기가 있을 때 몸 전체를 스트레칭한다.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5월2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가칭) 청소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부산 청소년 문화재단 만든다

12월 창립…장학 · 문화 · 해외답사 활동

울 12월 부산에 청소년문화재단이 설립된다.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칭)청소년문화재단(준비위원장 정각 스님)은 5월20일 코모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한·일 청소년문화사업 △아시아 문화체험 △청소년 문화교실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상담전화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부산 청소년문화재단은 이사회 구성을 거쳐 12월 재단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각 스님은 "청소년 문화재단은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을 비롯 혜총 감로사 주지, 강관중 동아대교수 등 부산지역 인사 11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청소년단신

해운대서 연꽃문화제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는 5월21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16회 연꽃문화제'를 열었다. '푸른꿈, 푸른세상'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 글짓기, 모래 조형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졌다. 특히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선암사 어린이회가, 모래 조형물 만들기에서는 김해 보광사 어린이회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서불청 상조회 결성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에 상조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상조회 구성은 5월12일 운영회 법회에서 서울불청의 단합과 회원들의 경조사 후원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9일 2차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구성 작업을 마무리한다. (02)730-9108

청보리회 초기불경 강좌

청보리회는 10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남산 충정사에서 〈숫타니파타〉 〈법구경〉 등 초기불경 강좌를 연다. 청보리회 김재영법사가 진행하는 이번 법회의 신청을 원하면 학림 홈페이지(www.freechal.com/haklim)에 접속해 동참의사를 밝히면 된다. (016)260-6951

28일 청소년예술경연대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5월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3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를 가졌다. 동대부중, 관음포교원, 혜명보육원 등 16개팀이 경연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동대사대부중 풍물놀이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 성신여중 청소년자원봉사단과 동대사대부고가 우수상을, 청교련 해남지회가 '가야금병창'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물 아끼기' 등 환경 5계 선언

대불청 전국 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10일부터 1박2일동안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제1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연다. '초발심의 청년불자, 환경사랑 지킴이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청년대회에서는 환경관련 '애니메이션 상영', 'DDR 경연대회', '대불청 가요제', '법륜 스님의 환경 강연' 등이 펼쳐진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물을 아낀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모피로 된 옷을 입지 않는다 △사후 화장한다 등의 환경 5계도 발표된다.

한글 금강경 독경법
(재가불자를 위한 신심나는 독경법)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추어 박력있고 신명나며 리드미컬하여 가슴(중단전 챠크라)이 열려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저절로 침이 넘어가며 혀는 이완되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워지며 머리는 상쾌하고 가슴은 시원하며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독경삼매에 환희심을 발하고 큰소리로 몇시간을 독경해도 목이 잠기지 않는 수행으로 조석 예불 수행시나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시에 직접 배우고 실수를 할수 있음.

(한글금강경을 독경하시면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수행이 잘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 독경중이나 독경후 가슴답답하고 명치가 빠근하고 후끈하며 허품이 자주나오며 피곤하고 졸립고 퇴굴심이 나면 자세와 호흡과 독경운율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독경은 하였지만 스트레스 받은것과 같으니 자세한 독경 테크닉을 배우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병, 화병, 가슴답답함, 속이 불편한것이 순간 극복된다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참선수행의 기초, 행선, 와선, 태양기공체조, 선체조도인 건강법

◈ 매주 철야정진 : 토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아침 8시
◈ 매일 수행교육 : 3명이상 예약하면 언제나 교육함
◈ 수행, 기도, 명상, 휴양 : 3. 7. 15. 30. 50. 100일
◈ 7월 1일부터 무문관 독실 토굴에서 수행하게 됨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홍천대명스키장,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사찰 내 암반굴착 공사 전문

당사는 암반굴착 전문 기술 업체로 사찰내의 석굴불사 축조 및 기타 불사에서 암반제거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축조작업과 같은 터널작업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성심껏 작업하겠습니다.

▶ 시공방법
① 다르다, HRS 등에 의한 무진동 굴착 공법
② 플라즈마, 제어발파 등에 의한 미진동 굴착 공법… 그 외 여러 가지 공법 중 주변 환경과 작업여건에 따라 공인기술 자격을 보유한 본사의 기술진들이 적절한 공법을 적용, 원하시는 대로 실현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719-5371/2
02)719-7614(FAX)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1511호

"현재 상주시 연수암 내 석굴 불사 축조 작업 중"

(주) 세현 ENG 기술사사무소

인재(印材) 벽조목

▶ 벽조목의 본래의 의미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의미합니다. 민속에서는 이 벽조목을 가지면 악귀를 쫓는 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인재(印材) 벽조목은 가공 압축된 대추나무를 가르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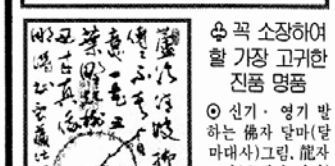


이번 「능혜사」에서는 「진품」인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가공 염주와 벽조목 부적 등 소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귀를 쫓고 가정에 평화를 이루며 자신에 건강을 지켜주는 벽조목을 인연있는 몇분께 인연을 지을까 합니다.
능혜사로 연락주시면 진품 벽조목과 가짜 벽조목을 직접 확인 작업과 아울러 진품 벽조목을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진품 벽조목의 작은불사에 뜻있는 여러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능 혜 사 주지 이 법조 합장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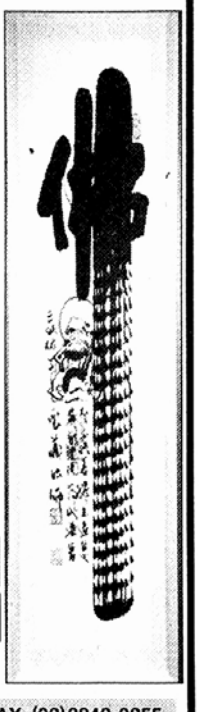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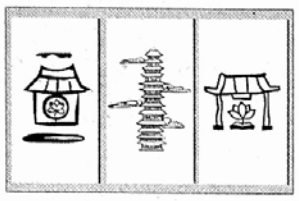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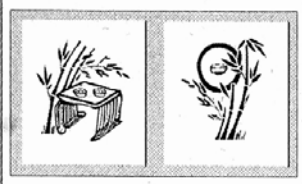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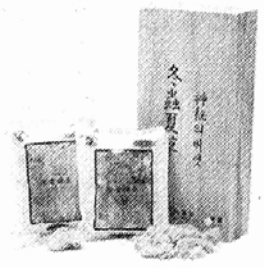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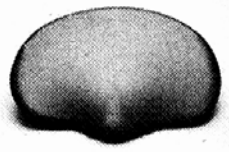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휘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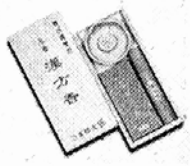


천연향방
악함 목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동+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함 목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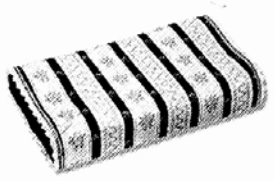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함 목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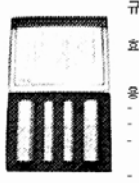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게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마음에 좋다.

가격 : ₩28,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한공, 법회, 의례, 잡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등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8,000
일반형(인조미혁)
₩25,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량 형 : ₩20,00원
무개량형 : ₩15,000

조상묘지용 동 히란야



▸용도및효능
산소수맥차단 최에너지장을 변화시켜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순금도금 온 히란야메달



▸용도및효능 남녀공용 보로최형 배달
▸재질 : 천연자수정스부착 온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방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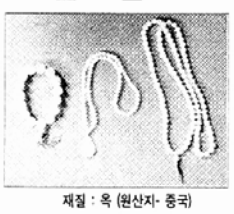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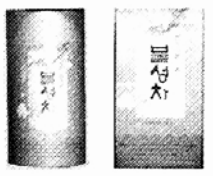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 90,000 / 세작 ₩ 50,000
중작 ₩ 30,000 / 대작 ₩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형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삼보미용죽염



피부에 기생하는 진성균류나 방선균류의 세로 포먼을 감싸서 세균등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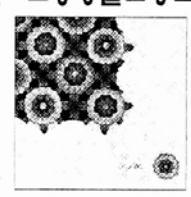
옴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2. 죽염의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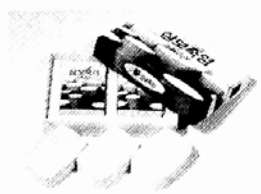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관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밑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찜)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철분, 각종 필수 미네랄이 생성 융합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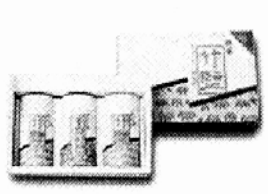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종양, 해열산출, 구토와 곽란, 거담, 중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풍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66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삼보죽염 세트
응량 : 600g
가격 :₩1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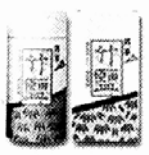


삼보죽염비누
응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응량 : 600g(분말 알갱이 홍화씨환)
가격 :₩108,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응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길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에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열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菓)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패륜범죄

가정이 뿌리째 뽑혀 무너지고 있다. 자식이 친부모를 잔혹하게 살해, 토막쳐 유기하고 계모가 어린 딸을 오랫동안 학대하다가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끝내 숨지게 하는 등의 패륜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명문대생의 엽기적인 부모 토막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사회 구성원간의 윤리의식이 '총체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박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 온 이들마저 공연히 불안해지는 지경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대화부족과 이기심, 불신 등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본다. 〈편집자〉

가족끼리 경애하며 미워말라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부모는 다섯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첫째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할 것, 둘째 착한 것을 가르쳐 줄 것, 셋째 학과 도를 가르쳐 줄 것, 넷째 좋은 며느리를 구할 것, 다섯째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장아함 선생경〉

▨세상의 온갖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건대, 여러 바르지 않은 종류의 일과 여러 바르지 않은 부류의 일이 다 마음이 앞장서 인도하는 탓으로 일어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하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생기는 까닭이다. 〈본사경〉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부처님의 몸을 상하여 피가 나게 하는 일. 이런 것을 오역이라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십륜경〉

▨악은 마음에서 나와 도리어 제 몸을 파괴한다. 쇠에서 녹이 생겨나 도리어 그 몸(쇠 자체)을 좀먹는 것과 같다. 〈법구경〉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 가서는 응당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느니라. 〈광명동자인록경〉

▨노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며, 노하면 불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여움을 제거해야 복을 가져오는 선이 항상 몸을 따르게 된다. 〈법구경〉

▨포악한 자가 도리에 벗어나는 비방을 가해 와도, 지혜있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가지고 참음으로써 이 비방을 없앤다. 〈저법집요경〉

▨보살은 백천 겁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또 백천 겁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란 소리의 생멸에 지나지 않아서, 꿈 같고 산울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대지도론〉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노여움은 불 같거니,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우리라. 〈대장엄경론〉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부모를 해치고자 하면,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몸도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곧 오역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오역의 원인인 까닭에, 부모를 해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열반경〉

▨부모에 대해 살해할 생각을 일으켜 마음에 결정하면, 이 죄는 지극히 무거우니, 날카로운 칼로 삼계의 온갖 중생을 해친대도 이보다는 죄가 가벼울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덕에 거꾸로 해칠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얻음이 매우 무겁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묘법성염처경〉

▨울화가 치밀어도 쉽게 참기란 달리는 마차를 다루는 것과 같다. 〈잡아함경〉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갚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출요경〉

▨칼이나 몽둥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올바른 지혜에 기초한 방법과 수단으로 악을 멀리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신행 캘린더

6월7일 (수)

■봉은사 야간법회=봉은사는 오후7시30분 대웅전에서 수요야간법회를 봉행한다. 02)517-0149

■선암사 통일기원 경전정대불사=태고종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선암사 장경각 경판 정대불사를 오후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한다. 정대불사는 9일까지 매일 오후1시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02)745-2030

6월8일 (목)

■봉은사 영암스님 추모법회=봉은사는 오전 9시30분 대웅전에서 영암스님 열반 1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이 참석해 법문한다. 02)517-0149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출범=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전담할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출범식이 2시조계사 대웅전에서 있다. 02)735-5864

■월운스님 〈능엄경〉 산림법회=봉선사는 오후2시 청풍루에서 월운스님이 법주로 참여하는 가운데 6개월에 걸친 〈능엄경〉 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한다. 법회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2시~4시. 0346)527-1951



◇부부불지인 유필화-C기향 교수가 8일 독일 본의 쾨니스호프호텔에서 〈부처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독일어판 출판기념회 겸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무용 '선향(禪香)'을 통한 의상발표회를 갖는다.

6월9일 (금)

■장경뷔 '21세기 문화변동' 세미나=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전10시 한국방송통신대 별관 세미나실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화변동'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97-0585

유엔 불교NGO활동 수련생 모집

미국 뉴욕 미주불교현대사(편집인 김형근)는 우리나라 불교의 국제적인 NGO활동을 위한 수련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 미주불교현대사는 2명의 수련생을 선발, 유엔NGO에 배치한다.

선발된 수련생에게는 뉴욕시립대학교나 뉴저지주립대학교의 영어 연수과정을 한학기동안 수강할 수 있는 학비와 숙식, 매월 200달러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지원자격은 만 30세 이하인 대학 졸업생 또는 재정자로 영어구사 가능자면 된다. 제출서류는 학력증명사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불교단체 또는 스님의 추천서 각 1통. 문의 및 접수는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02)725-6231

6월10일 (토)

■김구석씨 '경주남산' 열린강연=조계사는 오후3시 제16회 열린강연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남산 연구소 김구석 기획실장이 '천년부처님의 땅, 경주 남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02)720-1390

■대불련 전국지부장 회의=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일까지 양일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전국 지부장단회의'를 연다. 02)732-0239

■감사원불자회 수덕사 성지순례=감사원불자회는 이틀(10~11일)에 걸쳐 덕숭산 수덕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11-443-2033 안홍부

■조계종 포교원 전북 신도간부연수=포교원은 11일까지 금산사에서 전주 전북지역 사찰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을 실시한다. 02)720-7060

6월11일 (일)

■서해안 용왕대재 및 조상천도재=용진신행회는 서해안에서 수륙대재 및 방생, 조상 조상천도대재를 봉행한다. 02)2270-1191

6월12일 (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6일까지 5박6일간 일본 동경 천초사 등지에서 제2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02)720-1708

■대각회 사암연합회 모임=조계종 대각회는 정오 본원정사에서 각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는다. 정관변경 경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02)904-1010

법회안내

봉은사 일요설법



인환 스님은 11일 오전9시30분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설법한다. 02)517-0149

부산구도회 법문



권기종 동국대 교수는 8일 오후7시 부산구도회의 초청으로 구도회 법당에서 법문한다. 051)462-5062

초기불경 강의



김재영 법사는 10일 오후5시30분 남산 충정사에서 열리는 초기불경 연찬법회에서 강의한다. 02)2266-3760

강동구역법회 법문



최봉수 동국대 교수는 9일 오후1시 봉은사가 법왕루에서 여는 강동구 구역법회에서 법문한다. 02)517-0149

안반수의경 강의



김열권 법사는 7일 오후7시 강남포교원에서 〈안반수의경〉을 강의한다. 02)539-2631

게시판

알림

▲담양의 정자와 원림문화를 찾아서=터사랑은 오전7시 담양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 명옥헌 답사길에 나선다. 길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 선생이 맡는다. 02)725-1284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7~18일 봉은사에서 제2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찬불가교육=법장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30분~4시30분 찬불가를 교육한다. 지도는 찬불가협회 조영근 부회장이 맡는다. 02)971-0303

▲행원문화상 추천=행원문화재단은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 대중예술상 부문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6월 30일 까지. 020926-4377(교환302)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아동=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만8~12세 정신지체·정서장애·자폐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2~7시 방과후 교실을 연다. 02)2282-1100

▲어린이여름불교학교=신흥사는 7월23~25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생 접수중. 0339)357-2695

▲금강경 강의=서울불교청년회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만해교육원에서 〈금강경〉 강의법회를 봉행한다. 법사는 동국대 홍법스님. 02)730-9108

▲어르신 무료진료서비스=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7일 오후 1시30분~3시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서비스를 실시한다. 02)385-1351

▲사찰음식강좌=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2일 연구소 내 강당에서 단오절 사찰음식 조리강좌를 연다. 02)355-5961

모집

▲사찰종무원=봉선사 서울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에서는 종무원을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여성으로 신심있는 불자여야 한다. 02)584-1108

▲경전학교 수강생=봉은경전학교는 주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송찬우 교수의 지도로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공부한다. 02)516-5652

▲배달 자원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월~금요일 오전 11시 광진구 결식청소년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어 줄 배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02)458-1664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거나 생활상담, 가사지원서비스를 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강좌

▲아동프로그램=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유치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강좌를 연다. 과목은 피아노·컴퓨터·미술·글쓰기·영어·동화 구연 등이다. 02)852-0525

▲발맛사지 교실=백천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발맛사지 교실을 연다. 모집인원은 20명. 053)811-1347

▲어린이영어=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5~6시 어린이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051)363-2063

▲종이접기=덕유사회복지관은 유치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3시 종이접기 강좌를 실시한다. 032)325-2161

▲불우이웃돕기 후원회원=김홍국장학재단은 불우이웃 돕기에 뜻을 같이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1구좌에 만원. 02)786-4011

구인

▲행자=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행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명이며, 행자가 되면 공부와 수행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된다. 053)474-8228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인덕노인복지관은 장기요양원 호암마을에서 일할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을 모집한다. 30~50세의 자격증 소지자및 교육 이수자는 우대한다. 02)385-8205

▲신도회 직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신도회는 신심이 두텁고,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대졸직원을 모집한다. 0431)257-6789

생전·현재의 모습 100% 재현

밀 납

■ 사진 1장으로 영정을 대신할 생전의 모습을 100% 재현합니다.
■ 밀납은 살아계신 고승·종정·은사스님을 재현 현재의 모습으로 가까이서 모실수 있읍니다.
■ 일반회사 창업주, 학교 설립자 이사장,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조성해 드립니다.
■ 크기는 실제 모습을 기준합니다. (앉은모습 서있는 모습)
■ 밀납은 동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구적 재료 사용)

한국불교 미술 밀납 연구원

원장 법 인 합장

▶ 전시장(작업실) 천안시 오룡동 56-5
▶ 대 표 전 화 0417)565-6977
▶ 긴 급 016)565-697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진쑥이 아니라 자연산 해발700m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생년간 자라면서 겨울에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정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고양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몸과 마음으로 건성·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에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상황버섯·기간지천식·홍억기침에 특효라는 겨레엿·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등이 필요하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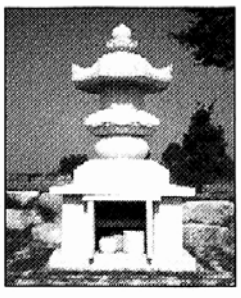
☎ 주문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영탑공급원(전국) 모집

▶ 묘지의 혁신

·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합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20여기 봉안으로 문중, 종중, 탑, 선산, 정원 등에 설치
· 조상 대대로 봉안하여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화합이 잘됩니다.
· 국내외 사찰경내에 신도의 조상을 함께 모시므로 그 자손이 대대로 신도가 된다.
· 전국 사찰경내 신도영가 영탑설치 환영.
· 영탑사업에 동참하실 주주를 모십니다.
· 벤처기업으로(특허) 국내외에 사업확장.
· 벤처기업 실무유경험자 0명 모집합니다.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우)330-820
▶ TEL : 0417)584-6674~6 FAX : 0417)584-2335
011)438-0149
▶ home-page : WWW.YRP.CO.KR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손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차나 한잔 들고 가세요"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무료다실 열어

다도대학 설립…주말 등산·기도객 애용

경치좋은 산사에서 무료다실과 다도대학을 열어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신행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어 화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 중턱에 자리잡은 수종사가 바로 그 곳.

주지 동산스님이 무료다실 '삼정헌(三鼎軒)'을 연 것은 지난 3월 27일.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명상하고 속세의 시름을 털고가는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평소 차마시기를 좋아해 작은 다실까지 차려놓고 있는 동산스님은 "차를 끓여 마시는 일은 참선과 마음상태나 분위기가 비슷해 불도를 닦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개원 이유를 밝혔다.

5월 24일 다도대학을 개설한 것도 다도보급을 통해 불자가 되는 기회를 자연스레 제공하기 위해서다.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다도대학은 주지 동산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의로 시작해 다인 윤부용씨와 박희준씨의 행다법과 다이론 수업이 격주로 이어진다.

"차를 마시기 위해 자세를 바로 하다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청정해 집니다."

본격적으로 다도를 배우기 위해 다도대학에 원서를 냈다는 이무량정(서울 서초구 서초동, 49) 보살은 처음 배운 행다법이 아직은 서툴지만 '다선일여'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에 한번은 도반들과 수종사를 찾는 이보살은 오전 기도 후 점심공양을 마치면 꼭 다실에 들러 차를 마신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아이들도 함께 들릴 때가 많다.

중창불사가 한창인 수종사는 무료다실을 연 이후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평일에는 주로 등산과 기도를 겸해 찾는데, 많을 땐 하루 100명이 넘는다. 이러다 보니 정기적으로 참배하러 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무료다실을 개원한 이후 가족 단위로 절을 찾는 신도들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주말이면 다실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 "가족들과 절을 찾고 차를 마시면서 어릴 적부터 목탁소리, 염불소리에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다실 운영을 맡고 있는 천혜림 보살은 전한다.

무료다실은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예불시간(오전 10시30분~12시)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처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다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예법에 얽매이기 보다 편하게 차를 우려먹는 법을 주로 가르친다.

수종사는 조선말의 대표적 다인인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의 교유지로 유명한 곳. 특히 약사전 아래 바위에서 샘솟는 석간수는 차맛을 잘 우려내기로 이름나 "물 맛은 수종사가 최고"라는 말이 전할 정도다. (0346)576-8411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수종사 무료다실에서 한가로운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

원주 청림사 소음·먼지 극심

민원제기에 채석장 업주 '도로봉쇄' 으름장

채석장의 소음과 분진공해로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소재 청림사(주지 청림)와 마을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동경석재 측은 환경공해를 줄이기는 커녕 사찰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를 폐쇄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채석장의 작업도로 100여m는 사찰과 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 4년전 채석장의 요구로 청림사가 어렵게 1000만원을 모아 직접 포장했다.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공해로 민원이 발생하자 채석장측이 지난 5월23일 도로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며 이를 폐쇄하겠다고 사찰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지난해 말 채석장의 소음도가 허용기준치인 65db보다 2db초과한 사실을 실측결과 확인했지만, 채석장 여건상 방음시설 설치가 힘들고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만 한 후 최근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채석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청림스님은 "엄청난 산림훼손과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도 도로를 볼모로 큰 소리 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채석장의 횡포"라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 연계해 수행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주 관음사터 훼손

도자기등 출토지역 도로 건설

고려와 조선시대에 제주도 관음신앙의 모태였던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관음사지가 임항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천리 일주도로와 조천포구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로 훼손된 관음사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60년대 말에 이어 최근에도 기와·도자기 조각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관련 학계에서는 "한번 훼손된 문화재와 문화유적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도로 확·포장 등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제주군은 관음사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사찰 유적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경우 시굴조사를 통해 유물·유구를 확인한 후 도로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장보고 축제때 호국영령 천도재

광주사암련 완도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스님)는 제5회 장보고 축제의 일환으로 5월31일 전남 완도 해변에서 호국영령 전물군경 천도 및 선상방생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완도불교사암연합회장 법일스님, 광주불교사암련 부회장 성호스님, 완도 신흥사 이용태 신도회장, 차관훈 완도군수, 윤석민 완도군의회의장, 김희문 장보고축제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천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상 방생을 봉행함은 불성을 지닌 뭇 생명을 존중하고 갖가지 업에 의해 떠도는 고혼을 천도함으로써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동체대비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주용직 광주지사장

은해사등 영천8경 뽑혀

영천시 관광 홍보키로

영천시는 최근 지역내 사찰과 명소 8곳을 '영천관광 8선'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가 확정한 '영천관광 8선'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국보14호 영산전이 있는 거조암 △국내 최대법당 만불사 △국내최대 규모인 보현산 천문대 △포은 정몽주를 모신 임고서원 △폭포 등 경관이 좋은 치산관광지 △시원한 드라이브 코스 영천댐 △소원성취를 겹치는 북안 돌할매 등 이다.

시는 이들 8곳을 연결한 관광코스도 당일과 1박2일 코스 두가지로 마련했으며, 홍보책자 발간과 인터넷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구공항 등 관문지역에 관광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탑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재

11일 3천여명 위패봉안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혜명)는 11일 오전 11시 탑사 대웅전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날 위령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억울하게 희생된 3천여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천도재를 모셔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11시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의식, 천도재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지 혜명스님은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이 천도재를 통해 극락왕생의 복전을 일구길 기원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0655)433-0012 김재경 기자

전북불교회관 단오축제

전북불교회관은 전라세시풍습보존회와 공동으로 6일 단오절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에서 단오절 기념 민속놀이 5종경기 대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단오차례, 단오음식 및 부채 나누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첩 경연대회, 견훤대왕제,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민속놀이 5종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0652)275-4626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분한신고 10월로 연장

총무원(원장 정대)은 5월30일 종무회를 열고 승려분한신고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한 분한신고에는 비구 450명, 비구니 460명 등 모두 9,100여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이는 90년 분한신고한 1만1800여명의 77%에 이르는 수치다.

태고종

백운사 대웅전 낙성

마산 백운사(주지 석봉)는 10일 오전 9시 30분 대웅전 삼존불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하는 삼존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보처불로 모시게 된다. 백운사는 지난해 9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대웅전이 전소돼 10월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천태종

관문사 순국선열 천도재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4일 옥불보전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대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육법공양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천도축원, 추모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관문사는 법회후 신도들과 함께 국립현충원과 전쟁박물관 등 6.25 사적지를 탐방했다.

진각종

군법당 건립기금 千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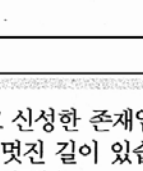
성초 통리원장은 1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초격 한영규 법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군법당 호국관음사 건립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중국 유학승 2명 초청

통리원은 중국불교협회와의 인적 교류 차원에서 5월24일 중국불교협회에 유학승 초청 공문을 전달했다. 대상 유학승은 2명으로 한국체류기간 5년 동안 학비와 체류비, 한국어연수비용 전액을 진각종에서 부담한다.

일붕선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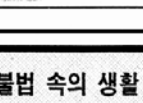
일붕스님 4주기 추모재



초대 종정이었던 일붕 서경보스님〈사진〉의 열반 4주기 추모법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열린다. (02)394-9468

법륜종

새 총무원장에 창법스님



5월29일 제2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공석이던 총무원장에 창법스님(충남 논산 지장암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창법스님은 1938년 논산 생으로 81년 보광사에서 금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81년 남호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96년 정각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법륜종 유지재단 이사, 중앙종회의원, 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총화종

원찰건립 내달 논의

총무원(원장 남정)은 5월 31일 수진사 관음전에서 상임위원 22명 등 종단 간부 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 건립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내달 22일 열리는 부산회의에서 원찰건립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9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팽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가슴에 묻은 원혼을 위한 진혼의 노래
일제치하 태평양전쟁희생자와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한
마이산 탑사 천도재
2000년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 천도재
태평양전쟁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고 무주고혼의 혼령들을 천도하는 천도재가 마이산 탑사에서 거행됩니다.
* 무주고혼의 영가위패 접수 *
(위패 1인영가당 5,000원)
신비의 영산 마이산 탑사에서 주최하는 천도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00년 6월 11일(일) 11시
◆장 소 :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 광장 특설무대
◆참가자 :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및 일본의 관련단체, 일반시민
◆주 최 : 한국불교 마이산탑사 천도재 추진위원회
◆주 관 :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후 원 : 마이산 탑사 신도회
안내전화 : (0655)433-0012, 2900, 432-0652 FAX 432-0072
홈페이지 : maisantapsa.co.kr / E-mail : maitapsa@komet.net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파 업 체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재수가 있고 취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 나의 독경 위신의 기력인것이다.
나의 친필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영험과 기적은 모를것이다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 춘 길
선전기간중 보급가
· 합죽반야선 친필 13만원
· 법화경 수탕품 친필 20만원 10폭
· 佛字나 기타 액자 친필 3만원
연락처 : 0591) 746-7350 017) 552-735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재가불자도 하안거 "스님처럼"

수선회·달마선원 등 10여곳 개방…직장인·주부·학생 동참

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5월 18일~8월14일)까지는 산중 문턱을 나서지 않고 수행정진에 전념하는 납자들의 안거(安居)기간. 스님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던 안거가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안거는 선방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의 '안거수행 따라잡기'에 나섰다. 이는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이 보다 심화되고 철저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수선회 종로선방에는 하루 평균 200여명의 불자들이 안거수행하고 있다. 이는 평소보다 2배에 가까운 참여율. 안거수행을 개방하고 있는 수덕사 서울 무불선원, 범어사 해운정사 보살선방,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통도사 부산포교원 시민선방 등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인 대상 안거수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안거에 들어간 재가불자들은 이 기간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석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세상의 유혹과 내부의 아집을 떨치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님들처럼 두문불출하지는 못하지만 재량껏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불태우는 치열한 구도정신만큼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세상의 일을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접고 일정한 시간에 선방에 들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스스로 또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마음을 비워내는 일은 재가불자 안거수행의 묘미다. 스님들이 안거 중에 외출하는 것을 파하(破夏) 즉 마치 어린아이가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것과 같다고 하여 엄히 다스렸던 것처럼 재가불자의 안거수행 또한 불필요한 잦은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안거수행 개방사찰	시 간	연락처
수선회 종로선방	새벽 2시30분~밤 12시	02)732-5960
수선회 강남선방	새벽 2시30분~밤 12시	02)517-3108
해인사 달마선원	새벽 3시~밤 9시(3개월 숙식조건)	0599)93)7308
범어사 보살선방	오전 10시~오후 4시	051)508-3127
해운정사 보살선방	오전 10시~오후 4시	051)746-2256
통도사부산포교원 시민선원	오전 9시~오후 4시	051)616-2241
수덕사 서울 무불선원	안거 6.1~8.31 오전 9시~밤 9시	02)541-0002
봉은사 봉은선원	안거좌선법회 밤7시30분~9시30분	02)516-5652
대구 보현사 시민선원	새벽4시30분~6시30분, 오후7~9시	053)254-6966
부산 여여선원	새벽4시, 오전10시, 오후2시, 오후7시(2시간씩)	051)863-5486

매일 저녁8시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안거수행하고 있는 최명진씨(46, 벤처사업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90일 동안 사사로운 볼 일을 일체 삼간 채 매일 같은 시간에 선방에 와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수행이다"고 귀띔하고 "이 기간만큼은 앉아 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 공양을 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화두 하나만을 참구하는데 일념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수선회 종로선방에서 안거수행에 든 재가불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뉴스 & 뉴스

정부-병원에 손배청구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6년이나 국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던 네팔인 노동자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여)씨가 정부와 청량리정신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부주의를 들어 8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월26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찬드라씨는 소장에서 "경찰은 한국말이 서툴고 행색이 보잘 것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신원 확인절차도 없이 한국인 행려병자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승가원 8·9일 '바자회'

승가원(이사장 현성)은 8~9일 이틀간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승가원 대바자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목적도 함께 갖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한솔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성남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복, 아동복, 잡화 등이 판매되며, 먹거리 바자회도 함께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충효자비원 호도잔치



경북 영천 충효사 부설 충효자비원(대표이사 해공)은 5월29일 포항시 죽장면 거주 노인 5백여명을 충효사로 초청, '효도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충효자비원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효행실천의 날로 정하고 각지의 노인들을 초청 효도잔치를 열어왔으며, 포항과 영천지역 거주 무의탁노인 60명에게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한명우 기자

은평복지관 어르신 무료진료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관장 성운)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달 한달간 복지관내 진료실에서 지역어르신 무료진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이며, 은평구 갈현동 소재 청구성심병원팀이 진료를 맡는다. 한명우 기자

진관스님 집시법위반만 적용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진관스님이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형사법원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용균)는 판결문을 통해 "회합 및 통신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원심을 기각하고 범민족대회 통일선봉장을 맡은 사실을 인정해 집회와시위에 관한법률만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관스님은 실형이 만료되는 16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강북 노인복지관 위탁 '물의'

서울시, 실적-직원없는 케어코리아 선정

교계 수탁신청 법인 "선정 배경 공개-재실사"

서울시가 5월30일 강북, 도봉, 성동, 금천 등 4개 지역 노인복지관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승가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등 7개 법인이 수탁신청한 강북지역에 사업실적도 거의 없는 신설법인 케어코리아를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케어코리아는 99년 8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상근직원도 없고 법인사무실도 미용실을 개조해 만든 조잡한 상태에서 간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동석 사무국장도 "1년도 안된 신설법인이 어떻게 공신력과 사업운영 능력이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보건복지국 강종필 노인복지과장은 1일 종단협을 방문해 "심사과정상 부정은 전혀 없다"며 "중요한 결점이 없는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진각종 사회복지재단 지현정사는 강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선정이 끝난 지금까지 심사기준, 선정위원, 선정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고 케어코리아에 대한 실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종단협의회는 2일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명의로 케어코리아의 복지관 운영능력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는 고건 시장의 지시로 이번 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관 위탁체로 기독교법인 1개, 천주교법인 2개, 기타 1개 법인이 선정, 기독교 일색이어서 불교계의 항의를 받고있다. 김두식 기자

단오행사 '풍성'

옥천사 소금매립 전국의 사찰이 6일 단오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범어사 고당제

봉원사 영산재

경남 고성 옥천사는 이날 절 앞의 연화산 정상에서 화마(火魔)로부터 삼보와 가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금 묻기 의식을 가졌다.

또 부산 범어사는 선방과 강원 스님 등 50여 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산 고당봉에서 사찰의 평안과 대중스님들의 용맹정진을 기원하는 '고당제'를 지냈다. 고당제는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 일대를 시주한 할머니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부터 지내오고 있는 추모재이다.

서울 봉원사는 영산재 시연을 통해 민속명절을 기념했으며, 합천 해인사와 보은 법주사는 6일과 7일 각각 단오절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2일 오후2시 연구소 강당에서 단오절에 즐겨 먹었던 사찰음식 조리 강좌를 마련한다. 도필선 기자

혈소판 헌혈자모임 '희망나눔' 발대

생명나눔 광주본부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영조)는 5월27일 광주 원각사 법당에서 소아암과 백혈병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혈소판 헌혈자 모임인 '희망나눔' 발대식을 가졌다. '희망나눔'은 소아암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혈소판을 공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발대식에 이어 전남대 소아과 윤원상 교수의 "소아암, 백혈병 치료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강의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조스님을 비롯해 성호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과 손양호 생명나눔실천회 상임이사, 강영선 광주불교장학회장과 혈소판 회원 40여명 등 모두 2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영조스님은 인사말에서 "희망나눔은 육신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라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구현하고 자리이타의 실천행을 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아파트 건립 환경파괴 보상 방안 제시하라"

원각사, 시청 항의방문

인근의 구미선산주공아파트 건립으로 사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원각사(주지 대혜)는 1일 오후1시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구미시청을 항의방문했다.〈본지 272호 23면 참조〉

원각사는 이날"구미시가 무단으로 주공에 편입시킨 구거(溝渠, 공유지)는 원각사에서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것"이라며 "구거의 편입으로 농기계와 소방차가 뒷산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각사측은 이어 △원각사피해에 대한 합동조사반 구성 △주공아파트 건설의 타당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피해보상방안 제시 등 5개항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22일 주택공사측은 피해보상 명목으로 요사채 개축을 위한 골조자재 지원을, 구미시는 문화재 보수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주공에 편입된 구거에 대해 주공측이 옹벽 및 계단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

이 공사로 원각사 주차장이 일부 잠식되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이 통행할수 없게 됐다. 대구=이윤호 기자

통일 언제? 탈북자 76% "30년후"-남한주민 39% "10년내"

좋은벗들 설문조사

남한 주민들은 가장 우선적인 통일과제로 경제교류와 평화협정 체결을, 탈북주민들은 미군철수와 군비축소를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북 북한주민들은 90%이상이 통일을 희망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30년 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내용은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이 지난 1~5월 20살 이상의 남한 성인남녀 500명과 중국에 있는 19살 이상의 북한탈북주민 1027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비교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 남북주민에 대한 공동설문조사는 분단 이후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 희망여부에 대해 남한주민은 83.4%가 '바란다'고 응답한 반면, 탈북주민은 무려 98.9%가 찬성해 훨씬 높은 열망을 표시했다. 또 통일가능 예상시기에 대한 물음에 남한주민은 '10년 이내'가 38.8%, '30년 이내'가 16.4%였으나 탈북주민은 '30년 또는 50년 이내'가 75.9%(10년 이내는 20.2%)에 달해 훨씬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가장 시급한 통일과제로는 남한 응답자의 34.6%가 '경제교류'를 들었으며 반면 탈북주민들은 66.1%가 '미군철수'를 우선 꼽아 큰 차이를 보였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소기업청 선정 최우수 아이디어 제품

COOL BAG 물병가방

휴대용 냉장고로 한여름을 시원하게!!

▶ COOL BAG 물병 가방은?

섬유를 이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얼린 물병과 외부온도차이에서 줄줄 흐르는 물방울, 즉, 이슬현상(결로현상)을 방지하여, 학생은 물병을 책가방에 넣어 다녀도 책이 젖지 않고, 자가운전자 및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은 하루종일(최대15시간)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좋다. 또한 부피도 작고, PET병을 사용하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다.

▶ 사용법

· PET 병에 물을 2/3 정도 채운다.
- 전체를 얼릴 경우 얼음이 빨리 녹지 않아 마실 수 없습니다.
· 냉동실에 넣어 얼린다. (24시간 정도)
- PET병 2개를 교대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얼리는 물의 양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조절
· 사용할 때 나머지 1/3정도 물을 채운다.
· 물병가방에 넣는다.
- 물을 마실 때 편리 하도록 마개 부분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



▶ 이슬 맺힘 없이 최대 15시간 보냉!!

▶ 특허
실용신안원제10795호



▶ 제품의 종류
· 0.5L용 8,000원(PET 병 포함)
· 1.5L 멜방 10,000원(PET 병 포함)
· 0.5L용 12,000원
· 0.5L용벨트 쌕 20,000원
· 색 상 : 자주색, 청색, 검정색, 카키색

▶ 제품문의
☎ : 0351)874-2160/2352
E-mail : joia21@hanmail.net

▶ 계좌번호
· 농 협 : 201016-52-070562
· 우체국 : 100735-0068893
예금주 : 정연길

WOOJUNG 우정산업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끝자락 토곡산 기슭에 자리잡은 절!

기도영험도량 영암사는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속에 한줄기 빛으로 서 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토곡산과 오공산, 천태산, 가파른 각도로 일어선 봉우리들. 배내천, 영포천, 원동천의 맑은 물은 깊고 먼 근원에서 밤낮을 쉬지않고 남으로 흘러 낙동강과 합류한다. 뒤로는 명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물빛 파란 낙동강이 굽이치는 아름다운 고장. 배산임수,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토곡산 기슭에 영암사가 자리해 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온 대월스님이 현몽을 하고 절을 세웠다는데, 모두들 도시로 향하는 시절에 토곡산 가파르고 깊은 산중에 터를 닦고 주춧돌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일상이라는 틀을 벗어나 순간순간 새롭게 거듭나려는 스님의 또하나의 시작, 영암사를 사찰순례에서 만나본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마을이다. 옛부터 가뭄을 모르고 농사를 지었기에 훈훈한 정이 남아있는 고장이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를 타고 6시간쯤 달려 양산I.C로 들어서서 구포와 삼랑진 방향으로 차를 돌려 조금 달리다보면 물금읍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2차선 국도가 펼쳐지는데, 읍내를 지나 20여분 달리다보면 오공산 능선이 일어서는 산굽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오공산을 휘감고 도는 푸



▶ 영암사 천경

른빛 일렁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달리다 보면 영암사 1.8km라고 쓰여진 입간판. 이곳이 바로 영암사가 자리한 화제리 매화마을이다.

신라말의 대학자요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전국 각지를 유랑할 때, 이곳 화제리에 머물러 산수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었다.

안개덮힌 산 첩첩하고 강은 끝없이 이어지니
강빛 맑은 마을에서 푸른 봉우리 대하는구나
외로운 배 바람따라 어디로 가는가

"벌연히 날아가는 새 발자취가 없구나"최치원의 '임경대'란 시처럼 화제리는 병풍처럼 둘러있는 푸른 첩첩산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강한 영남시루리의 흔로들이 황토를 경작하는 마을, 푸른 하늘과 따가운 햇살이 바래가는 벗짚을 대신해 지붕을 삼아도 좋을만큼 푸근한 시골마을이다.

토곡산의 드높은 기상과 청정도량을 상징하는 계곡물은 영암사를 기도도량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영암사를 지키는 스님과 불자들. 그 뜨거운 믿음으로 일체 공덕을 갖추고 토곡산 영암사는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속에 한줄기 빛으로 서있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 일주문에는 두타행 벽화가 절찾는 이를 청정케하고 ...』

사람사이의 정이 훈훈하게 살아있는 화제리 매화마을. 영암사는 그렇게 농촌 한가운데 범부들 삶 속에 둥지를 틀었다.

매화마을에서 토곡산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오르면 영암사 일주문에 다다른다. 일주문을 받치고 있는 양쪽 벽에는 출가 정신을 일깨우는 남방스님의 두타행 모습이 벽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바루를 들고 한줄로 늘어서서 탁발을 하는 차츳빛 가사의 스님들. 일곱집을 들며 탁발을 했던 걸식은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수행자의 본분이었다. 합장하지 않아도 고개가 숙연해지는 풍경이다.

둘러봐도 반듯한 땅 한평 찾을 수 있는 가파른 산중턱. 스님은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곳에 절을 세우게 된 것일까?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천일동안 관음기도 중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대월스님. 천일기도를 회향한 후에 다시 꿈 속에서 백의(白衣)관음을 현몽하고 영암사를 창건했다.

천일 관음 기도중 백의 관음을 현몽으로 친견하고 꿈속에서 본 자리에 청정도량불사를 결정!!

대월스님은 토곡산 자금의 영암사 자리를 보고 이곳이 바로 굼속에서 본 자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곳 토곡산 일대는 골짜기 이름이 암자골, 절골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암자가 있었다고 했다. 해방전에 남아있는 암자들은 모두 소실되고, 마을 사람들은 골짜기 바위 밑에 향이며 초를 올려놓고 치성을 드리는 정도였다. 스님은 단박에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발원했다. 1992년 6월 스님은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돌덩이같은 골짜기에 집을 짓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스님 곁에서 절살림을 돕고있는 거사를 비롯해서 신도들 모두가 스님이 부산 녹야원에서 편안히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은 한결 같았다. 도심 한복판에 절을 짓는 일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산 중턱에 절을 짓는다는 일이 그리 만만하겠는가.

불심으로 마음을 열어준 마을사람들의 동참으로 불사의 첫난관을 극복하며…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지극 정성에 감동하여 뜻을 따라 주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불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또한 마을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농부에게 있어 땅은 삶의 터전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그들 삶의 일부다. 그런 땅을 조금씩 거두어들이고 길을 넓히기까지는 돈보다는 더 큰 원력과 기도가 절실했을 것이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길때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올렸던 스님. 수미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부처님의 도량을 일궈냈다.

공사에 착수한지 2년만에 금당과 삼성각, 요사채가 완성되었다. 땅을 사들이고 법적인 절차를 마친뒤 절이 세워지기까지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어렵게 이뤄낸 불사였다.

낙성식을 봉행하면서 자리에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은 환희심에 젖었다.

신도회 회장소임을 맡고 있는 주원각성 불자.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한 끝에 밝은 보살과 마주한 느낌이었다. 스님과 신도들, 마을사람들까지도 한마음이 되어 기쁨을 나누었다. 마을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던 영암사. 영암사 터를 닦고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4년이란 시간은 영암사와 마을사람들 사이를 가깝고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

『신도회장과 마을사람들은 신·구·의 삼업을 살피는 도량을 염원하며 불사에 전념했다.』

더없이 맑고 깨끗한 산문의 중심에서 세속의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토곡산 높은 곳에 절을 세우고 그 입구에 삼선대를 세웠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삼선대'란 글씨는 영암사가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살피는 도량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옛사람들의 불심이 이끼되어 앉은 바위에 새겨진 신·구·의 삼업을 상징하는 삼선대. 온갖 집착과 타성의 집에서 미련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출가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스님의 의지는 삼선대와 일주문 벽화, 그리고 절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스님이 영암사에서 기도 정진하고 있던 중 부산에 살고 있는 어느 눈먼 학생이 찾아왔다.

이 학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이 때부터 스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하는 불자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오직 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극 정성의 기도 때문이였는지 학생의 눈이 띄어졌고 부처님의 가피에 스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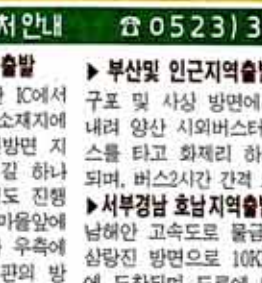
영암사를 청정기도 영험도량으로 만들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1053옥불의 영험력!!

기도할때는 오직 한 생각으로 움직임 없는 부동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마치 다 죽어가는 외아들을 의사에게 맡기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오직 한 생각에 몰두할 수 있을때,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때 믿음도 생활도 견고해진다고 믿는 스님의 실천 철학을 행으로 옮긴것이다.

영암사 경내로 들어서면 토곡산 깊은 골짜기 지하암반에서 끌어올린 감로수가 청량한 기운을 내뿜는다. 맑게 피어나는 연꽃은 영암사의 가람구조를 상징한다. 연잎처럼 굴쳐진 요사채가 법당 주변을 감싸고 있다. 법당은 연꽃을 상징한다. 영암사 가람구조를 연꽃으로 구상한 배경은 허망하고 그릇된 중생심을 지혜롭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라는 스님의 견고하고 자상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법당 안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그 좌우에는 약사여래 부처님 천불을 옥으로 조성해 놓았다. 대월스님의 말처럼 옥의 신비와 약사여래 원력을 통하여 병으로 고생하는 뭇 중생들에게 가피를 전해주는지 모른다.

법당을 나와 오른쪽으로 보면 용왕전이 모셔져 있다. 절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용왕기도를 올렸던 터가 있었는데, 바로 스님이 꿈속에서 백의 관세음보살에게 축원카드를 건네받던 곳이었다. 절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용왕전을 모셨다. 일찍부터 토곡산 정상에 솟아있는 문바위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마다 기우제를 지내온 전통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용왕기도는 이곳 마을사람들에게 영험과 믿음을 전해준다. 농사짓는 일에 생계를 기대고 살아온 마을사람들에게 용왕에게 치성을 드려 자연의 섭리를 순조롭게 하려는 것은 어쩌면 이 지역만의 독특한 신앙형태인지도 모른다. 불교가 처음 우리 나라에 전래됐을 때 우리의 토속신앙까지 껴안을 수 있었던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이곳 영암사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용왕전을 돌아 법당뒤로 삼성각과 약사여래 입상이 서 있고, 도량 곳곳에는 스님이 손수 가꾸고 조성한 분재가 화단을 장식하고 있다.

토곡산 속의 영암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안온함이 느껴지는 옥의 기운은 법당을 찾는 불자들의 마음을 한층 환희심나게 하고 기도의 영험을 높여준다.

영험과 가피!!
기도 수행 불자들의 체험

(주원각성 불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옥부처님의 영험담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영암사를 찾는 할머니들도 절을 한번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다가도 옥불전 예만 서면 108배, 1000배도 거뜬히 해내곤 한다. 옥으로 조성한 약사여래 부처님이 천불 모셔진 법당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험도 있다고 한다.

(임갑수 할머니)
옥에 어떤 기운이 스며 있기에 임갑수 불자의 기도가 한실로 다가온 것일까. 마을주민과 영암사를 찾는 불자들은 기도공덕을 옥으로 조성한 부처님과 대월스님에게 올린다.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일이 수순하게 풀릴 수 있다면 기도에 힘이 붙고 믿음도 배로 커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불자들은 오늘도 영암사를 찾아 찰아로 관음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전무량해 불자)
영암사 신도회에서 총무소임을 맡고있는 전무량해 불자. 관음주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고 믿고 있다. 부산에서, 혹은 더 먼 곳에서 불편한 교통을 감내하며 이곳 영암사를 찾는 불자들에겐 나름대로 스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처로서 영암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님은 불자들에게 기도하는 방편을 일러주고 불자들과 함께 기도한다. 불자와 스님의 두 마음이 일치됐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까닭이다..

(권옥희 불자)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괴로움이 있을리 없다.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먼길도 마다않고 영암사를 찾는 권옥희 불자. 영암사를 감싸고 있는 토곡산 산세는 마치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형상을 갖추고 있다. 사계가 뚜렷하고 계곡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청정한 도량. 여기에서 영암사가 자랑하는 감로수에 목을 축이고 나면 생활에 찌든 몸과 마음이 말끔히 씻겨가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보리심을 일어서게 하고 깨우침을 주는 선지식은 비단 부처님과 조사뿐이 아닐 것이다. 청정한 한 그루의 나무일수도 있고, 맑은 바람일수도 있고, 연못의 연 꽃 일 수 도 있다.



◀ 용왕당



▶ 대월 주지스님

" 영암사가 위치한 토곡산은 아라한이 머물러 수행했던 산입니다. 이전 이성계가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하고 가던중 이곳 절경에 취해 하루를 쉬어 갔었습니다" 기도도량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는 영암사. 대월 주지스님의 불가에 귀의 한 뜻은 남달랐다. 개인적인 성불보다는 많은 중생들이 업장소멸하고 기도정진해서 성불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영암사에서 수행에 전념한 것이다.

영암사는 대월스님의 굳은 서원 결실로 지장영험도량으로써 많은 불자님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대월스님의 끊임없는 기도정진은 부처님 사리탑 건립 불사로 이루어진다.

"영암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남방에서 8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15과나 되지요. 이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사리탑 건립 발원을 했습니다."

적광전 좌측산 위치에 내년 초파일이전까지 조성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대월스님의 끊임없는 정진속에 토곡사에 위치한 영암사는 앞으로도 고통받은 많은 중생들의 소중한 귀의처로 남을 것이다.

▶ 영암사 기도처 안내 ☎ 0523) 387-7227~8

▶서울및 인근지역출발
경부고속도로 양산 IC에서 빠져나와 물금읍 소재지에 오면 밀양, 삼랑진방면 지방국도 1022호 외길 하나가 나온다. 10분정도 진행하면 원동면화제 마을앞에 이르게 되며, 길가 우측에 영암사 사찰 안내판의 방향에 따라 마을로 들어서면 된다.

▶부산및 인근지역출발
구포 및 사상 방면에서 지하철 호포역 종점에서 내려 양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 원동행 시외버스를 타고 화제리 하차. 화하 내하 마을 찾으면 되며, 버스2시간 간격 요금은 800원

▶서부경남 호남지역출발
남해안 고속도로 물금읍 소재지 국도 타고 밀양, 삼랑진 방면으로 10KM쯤 오면 원동면 화제마을에 도착되며 도로에 영암사 안내 표시판을 따라 마을로 들어 오면 됨

▶ 주 소 :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84-8

